

MAY 2013

Gardenin

SEASON THEME

이 계절에 심기좋은 Garden Plants
야생화, 초화류, 관목, 유실수, 채소



HOT ITEM

웰빙 유실수가 뜬다
퍼플초크베리
개암나무

BEST GARDENER

파워블로거
'비온후'의
베란다 정원 관리

가드닝 DIY

3만원이면
그린 인테리어 완성
4가지 식물을 이용한
디쉬가든 만들기



GARDEN IN LIFE
창간호
VOL. 1

For Beginner

- ✓ 초보 가드너 길라잡이
- ✓ 병해충 관리
- ✓ 전국 꽃 축제

CHECK LIST

5월에는 뭐하지?..
정원 및 텃밭 관리 요령



9 772288 171000
ISSN 2288-1719

한국형 새로운 식물,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Coreuri



2013년 히트 품종
4계절 꽃피는 코레우리
이제 시장에서 만나십시오

우리꽃이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는 새로운 식물은
이제 한국의 전문농가들이 고양에서 생산합니다.

 **우리꽃**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진상미로 942-87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May 2013 Garden in



Contents

- | | | | | | |
|----|----------------|----|-----------------|----|---------------------------|
| 6 |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 28 | 한국인이 좋아하는 쌈채소 | 44 | 학명이야기 |
| 10 | 천하미색 앙귀비 | 30 | 정성훈의 텃밭 농사 길잡이 | 45 | 종자이야기 |
| 14 | 관엽식물을 내방에 | 33 | 영양가 많은 상추 | 46 | 세계의 정원 'Butchart gardens' |
| 16 | 재미있는 가든 | 34 | 정원 속 작은 기쁨 다육식물 | 49 | 이완주 박사의 '식물의 영양관리' |
| 17 | 좋은 품종은 삼목이 유리 | 36 | 포도를 달은 꽃 무스카리 | 50 | 남해원에예술촌의 Flower Festival |
| 18 | 이선영의 베란다 관리 | 38 | 나비를 달은 그네 팔레놉시스 | 54 | Interview 송정섭 박사 |
| 22 | 이 계절 심기 좋은 유실수 | 40 | 초보가드너가 키우기 쉬운 꽃 | 56 | Interview 변현단 작가 |
| 24 | 박공영의 가든 관리 | 42 | 초보가드너를 위한 가든 도구 | 58 | Interview 김광춘 대표 |



COVER

Peony

수줍음을 머금고 그윽한 향기를 뿜내는 작약.
꽃송이가 크고 흰해 사람들이 '함박꽃'이라 부
르기도 한다.

Editor's Letter

자연이 도시로 오면...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도시를 찾아 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도시'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인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도시와 인간의 밀접, 많은 일을 하고 또 도시는 자연
을 침략해 도시를 넓히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먹거리와 여유, 편안함이 점차 인간을 도시의 노예로 만들
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도시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신도시가 생겨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연이 더 허락하지를 않았
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인간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도시로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모두
들 자연을 도시로 모셔오는 데 동의하는 눈치입니다.

면 훗날 우리는 도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파괴되었던 자연은 다시 숲이 되어 자랄 것입니
다. 아파트 벽면에 꽃이 피고, 딸기가 열리고, 새들이 집을 짓고... 신선한
공기와 물, 풍부한 햇살을 받으며 자란 채소동 902호에서 자란 상추와 속
갓은 같은 단지 101동 301호의 저녁 삼겹살 파티를 위한 주문으로 배달되
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은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생산성은
조상들이 파괴했던 자연을 살리고 치유하는 숲 가꾸기와 생태계 복원을 위
한 기금으로 조성되어 더욱 아름다운 지구를 가꾸어가는데 이용됩니다.

Garden in은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합니다

가든인(Garden in)은 우리생활 속의 작은 정원부터 시작합니다. 가든인은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합니다. 행복한 먹거리, 내 삶의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행복한 맘을 흘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두를 위한 잡지입니다.
단순히 먹는 즐거움, 보는 혹은 보여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심는 행복, 가
꾸는 행복을 즐기는 것에서 비롯되는 나와 그리고 이웃을 위한 실용가이드
가 되겠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정원숙의 모든 가치와 종류를 담은 그릇
이 되겠습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초보적인 가든을 한국적
문화로 만들어 가는데 그 가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매호 더 알찬 실용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공동 발행인 김영채 이순영

월간 Garden in 창간호

발행처 벽화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공영

전문위원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유봉수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우정아 경기조경가드대학 강사/가드디자이너

황원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 대표

최주권 농학박사

편집장 조순복 go1108@hanmail.net

취재지자 정승환 saintlylove@hanmail.net

정지은 kkom8@hanmail.net

최형호 rhyma0580@hanmail.net

객원지자 김지태 jt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tmail.com

편집 디자이너 변해인 bhi0429@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로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가든 인 라이프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
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십
시오.

자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성이 12만원 ▶ 할인이 10만원

창간기념 정기구독자에게 가든도구 7중세트를
드립니다.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187-01-310917

(입금후 꼭 가든인에 알려주십시오.)

문의 031-712-7009

May 2013 Garden in



Contents

60 산에서 만나는 꽃 이야기

62 초보 농사꾼 박선영 · 김양수

64 작은 생명의 숲 '미미의 정원'

68 청소년 농부 '감자심기'

70 동화 같은 자연 신구대식물원

73 텃밭농사 시작하라

74 민트를 이용한 어린이날 간식

76 병충해, 예방이 답이다

78 감자 심은 후...감자병 주의

79 Interview ISOFAR 손삼목 교수

80 가든 레스토랑 'Promessa'

82 오만과 편견 Pride & Prejudice

84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88 2013 국내 축제 정보

92 2013 May 세계의 플라워쇼

94 산소 같은 휴식 '옥상정원'

96 나무상자, 화초를 품다

97 식물 호르몬

98 자생화분 키우기

100 창문, 채소밭이 되다

102 Gardening Reader

104 Q&A / 전문위원의 식물관리해법

108 친환경 퇴비 만들기 강좌 외

110 Book Cafe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꽃은 경기도 이천에서 야생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직접 야생화를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을 육종하고 증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엔 개밭, 육종, 생산식물을 이용해 2010년에 조성된 정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식물의 생리생태를 감안 조성된 정원으로 연중 변화하는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코너는 우리꽃의 정원을 연간 매달 현장 식물들의 성장과 개화 그리고 사라져가는 모습까지 담아내 우리 독자와 같이 하고자 한다. 물론 언제라도 독자들이 우리꽃 정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변화 모습과 실용적인 관리팁, 그리고 품종 소개를 겸하고자 한다.



수레동자의 붉은 모습은 양귀비 만큼이나 강렬하다. 뒤쪽의 무늬역새가 여름, 시원함을 경조할 것이다.

5월은 가장 변화가 심한 계절이다.

거의 10~15일을 주기로 식물들의 개화하는 모습이 변화하는데 분위기는 약 7일의 기간에도 느껴진다. 사진은 정원에 유일하게 자리하고 있는 소나무 주변인데 혼합식재에 의한 연중 개화하는 정원이다. 특히 5월 말의 사진인데 대체로 우리꽃 정원은 부직포로 멀칭하고 화산석으로 그 위를 멀칭. 일반적인 정원에 비해 일주일에서 십일 정도 성장이 빠르고 안정되어 있다.

다양한 꽃들이 보이지만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꽃은 6월의 여왕 알리움 기간티움이다. 알리움 기간티움은 가을에 심는 추식구근 가운데 가장 늦게 피는 꽃종의 하나이다. 알리움 기간티움은 꽃이 아이들 머리만큼 커 매우 사랑을 많이 받는 식물인데 꽃봉우리때 파밤나방등이 꽃을 모두 갉아 먹어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잘해야 한다. 주변에 꼬리풀도 보이고 붉은잎 동자 그리고 이른 봄 개화하여 시들어가는 속근사루비야도 있고 이제 막 피어날 미국쑥부쟁이, 사포나리아 코튼 등도 눈에 띈다. 더욱이 수레동자의 붉은 모습은 이제 다가올 6월의 더운 아름다움을 예상하게 한다.



이천 우리꽃 농장의 핸드마크 벽화수!
이층사무실 계단에 설치되어 연중 아름다움을 뽐낸다.

〈사진 1〉은 맷돌을 이용해 만든 계단식 폭포와 연못 주변인데 흰색의 아스틸베 글로리아와 페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노루오줌이라 하여 불리는데 유일하게 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그리고 후룩스 볼맞이는 꽃잔디와 후룩스 중간형인데 꽃피는 시기도 딱 그 중간형이다. 보라색의 봄바람도 좋은 품종이다. 노랑꽃창포가 지고 있고 패랭이 '참이슬'이 한창이다. 그리고 중간에 차이브라 일컫는 꽃파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앞 다투어 아스틸베의 중만생종이 곧 피고 톱풀 '비단'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맷돌을 이용한 폭포는 소리도 아름답지만 으로는 물줄기가 경감다. 주변의 아스틸베 잎파리가 폭포수로 삼그럽다.



우리꽃 정원에 피어나는

이달의 야생화



꽃파



아이리스 "흰뚨꽃"



꼬리풀 이브



아이리스 spp.



꼬리풀 블루



아이리스 spp.



꼬리풀 핑크



꽃잔디 레드썬/후룩스 볼맞이



아이리스 '비트엔 슈가'



후룩스 봄바람



서양쑥부쟁이



〈사진 2〉는 우리꽃 정원의 가장 안에 자리한 곳으로 ARI가든과 그 유사한 방법으로 조성된 곳인데 식물이 한 포기씩 여유있게 심겨진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때문에 각각의 식물들이 원래 자기들이 가졌던 식물 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라고 꽃을 피워 어떤 정원보다도 식물이 우선인 곳이다.

이 사진은 5월초의 모습이다. 진보라색의 속근 사루비아 '비올라'의 강렬함이 돋보인다. 그리고 우리꽃이 개발하여 유럽 화훼의 본고장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세계에 수출되어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도 피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패랭이의 학명인 *Dianthus*의 뒷글자 *hus*를 우리꽃의 영문이니셜인 *uri*를 결합시켜 'Dianturi'로 명명되어 품



클로아와
콤비를 이룬
상록잔디패랭이가
길 동선 안내는
확실이 아는 듯 하다.



우리나라 꽃류종에서 활리 피는 종류로 제비꽃과 부채꽃이 있다. 한 포기씩 심겨져 더 멋스러워 보인다.



하늘매발톱과 꽃잔디의 조화



5월말이 되면 톱풀비단의 색채가 매우 아름답게 피어난다. 아래의 상록잔디패랭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하는 것으로 키낮은 식물을 원하는 곳이나 비탕으로 적용하면 요격적이다.

〈사진 3〉은 5월말 6월초의 사진인데 각 식물들이 혼성이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앞쪽의 아스틸베와 중앙의 역새 '모닝라이트'의 아름다운 선과 겹치는 적엽좁쌀풀과 꽃나리. 분홍조팝의 스크린에 매혹적인 양귀비까지 참 아름다운 어울림을 제공한다. 이들이 곧 있을 6월의 주인공이다.



종명을 'Dianturi twinkle'로 판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진한 보라색의 제비꽃과 중국 붓꽃 그리고 부채꽃 등 꽃류가 피어나고 있다. 오른쪽 암부분을 자세히 보면 꽃대가 잘린 튤립의 싱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내년에도 좋은 튤립을 보기 위하여 꽃이 진후 꽃대를 잘라 양분이 뿌리로 모여지도록 한 것이다.



속근사루비아 로즈



하늘매발톱



속근사루비아 비올라



매발톱 '캐나다인'



속근사루비아 화이트



매발톱 spp.



속근사루비아 랜드



매발톱 spp.



속근사루비아 마르쿠스



매발톱 spp.



사루비아 블루



기타티움



구름국화 '봄비'



기타티움

Season Item

천하미색

양귀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평섭

천하미색 양귀비에 대한 내 기억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사변으로 생활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양귀비 턱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배가 아플 때나 종기가 났을 때 양귀비를 말려 끓여먹거나 미숙된 열매에서 즙액을 채취하여 상비약으로 쓰기도 했던 때이다. 그때 화단에 화초로 심었던 꽃은 흰색이었는데 이후 원예종으로 개발된 품종들은 여러 가지 색과 화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마약법에 의해 양귀비과의 앵숙(罂粟) 식물들은 재배가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양귀비과식물 가운데 어떤 종은 관상화훼식물로 재배되어 화훼식물로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양귀비과식물들이 저렇게 심어도 되는 것인가의 문을 갖기도 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화단이나 꽃시장

에서 양귀비과 식물의 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용감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우리꽃 박공영사장이 씨앗을 유럽에서 들여다 양재천에 심었는데 시민이 신고를 하여 마약단속반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한다. 마약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조사 끝에 마약성분이 없다고 규명되어 한국의 화단에서도 식재가 가능하게 되었고, 꽃꽂이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솜니페럼(*Papaver somniferum*)과 세티게럼(*Papaver setigerum*) 같은 식물은 안 되지만 마약성분이 없는 것은 재배하여 관상해도 무방한 것으로 인정된 것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화훼사(花卉史)에 남을만한 일이다.



금낭화(*Lamprocapnos spectabilis*, *Dicentra spectabilis*)



흰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Pantaloons')

한국 전역에서 많은 종의 양귀비 자생

한국의 자생식물로 양귀비과 식물은 두만강 지역과 중국 동부, 아무르, 우수리에서 자생하는 흰양귀비(*Papaver anomalum*)와 백두산과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노랑색 꽃이 피는 두메양귀비(*Papaver radicum* var. *pseudo-radicatum*), 두메양귀비의 품종으로 흰꽃이 피는 흰두메양귀비(*Papaver radicum* var. *pseudo-radicatum* 'Albiflorum'), 꽃잎이 여러 갈래로 잘게 갈라져 노랑색으로 피는 갈래두메양귀비(*Papaver radicum* var. *dissepitatum*) 등이 있다.

또한 국내 마을 부근이나 들판, 산지비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독성이 있는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도 있고, 산이나 계곡 주변의 적습지에서 자라는 노란색으로 피는 피나물(*Hylomecon hylomeconoides*), 피나물과 거의 비슷한 노란색으로 피는 노랑매미꽃(*Hylomecon vernalis*)도 있다.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중국 동북부지방, 아무르 지방에 자생하는 앙꽃주머니(*Adulmia asiatica*)와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인 붉은색 꽃을 피는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도 있다.

현호색속(*Corydalis*)으로는 연보라색으로 피는 왜현호색(*Corydalis ambigua*), 흰색으로 피는 흰왜현호색(*Corydalis ambigua* 'Lacticolor'), 키가 작으면서 연보라색으로 피는 좀현호색(*Corydalis decumbens*), 좀현호색과 비슷하지만 꽃색이 흰색으로 피는 흰좀현호색(*Corydalis decumbens* 'Albiflora'), 한국 전역에서 자라는 보라색꽃이 피는 현호색(*Corydalis turtschaninovii*), 노랑색 꽃이 피는 산괴불주머니(*Corydalis speciosa*) 등 많은 종들이 있다.



롬네이아 코울테리(*Romneya coulteri*)

유럽종, 화훼식물로 많이 이용되는 외국종

외국종으로 화훼식물로 많이 이용되는 종은 유럽 원산종으로 붉은색으로 피는 개양귀비(*Papaver rhoeas*)와 유럽동부가 원산지인 마약의 주범인 흰색과 분홍색, 붉은색으로 피는 양귀비(*Papaver somniferum*), 분홍색, 분홍빛 보라색, 또는 흰색 꽃이 피는 엑시미아금낭화(*Dicentra eximia*), 흰꽃엑시미아금낭화(*Dicentra eximia* Torr. 'Alba'), 꽃색이 흰색으로 피는 엑시미아금낭화 '스노우드리프트'(*Dicentra eximia* Ker-Gawl. 'Snow Drift'), 노랑색꽃이 피는 캘리포니아포피(*Eschscholzia californica*), 일명 금영화라 부르기도 하며 원예종으로 많은 품종들이 있다.

또 멕시코가 원산종인 노랑색 꽃을 피는 멕시코양귀비(*Hunnemannia fulnifolia*), 붉은색으로 피는 쥐눈양귀비(*Papaver commutatum*), 꽃양귀비(*Papaver nudicaule*), 오리엔탈양귀비(*Papaver orientale*), 캘리포니아무양귀비(*Romneya coulteri*), 히말라야푸른양귀비(*Meconopsis betonicillola*), 롬네이아 코울테리(*Romneya coulteri*) 등이 있다.



멕시코양귀비(*Hunnemannia fulnifolia*)

화단식재용부터 약용, 식용, 마약원료용까지 다양한 용도

양귀비의 용도는 식물에 따라 다르다. 화단식재용, 분화용, 절화용, 약용(기침과 설사치료제), 허브용, 요리용, 염색용(꽃), 포프리용, 제빵, 제과용, 마약원료용 등 다양하다.

마약의 주원료가 되는 종은 양귀비(*Papaver somniferum*)이다. 유럽에서는 식물원이나 대학약초원에서 전시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양귀비는 마약성분이 있다하여 한국에서 재배하지 못한다.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를 풀었는지 모르나 양귀비를 제외한 개양귀비나 엑시미아금강화류, 캘리포니아양귀비, 쥐눈양귀비, 꽃양귀비, 오리엔탈양귀비 같은 양귀비과 식물들은 화초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꽃시장에서도 꽃양귀비는 절화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재배 및 관리,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생육

양귀비과 식물들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생육온도는 원산지가 한대성과 열대성, 난대성식물로 대부분 한국에서도 잘 자란다. 그러나 원산지가 백두산과 두만강 주변에서 자라는 한대성인 흰양귀비나 두메양귀비, 흰두메양귀비, 갈래두메양귀비들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가능하나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 물러죽는다. 또 이식할 때는 이식력이 약해 옮겨 심으면 죽는다. 그래서 대부분 포트에 양묘하여 이식한다. 한대산이나 열대산 모두 여름온도는 15~25℃에서 잘 자란다. 물은 일반 화초모양 보통으로 주면 된다. 토양은 비교적 비옥한 적 습지에서 잘 자란다. 번식은 주로 종자를 파종하여 번식한다.



양귀비(*Papaver somniferum*)
재배 금지된 양귀비



캘리포니아 양귀비(*Eschscholzia californica*)



파나풀(*Fylyomecon vernaie*)

양귀비과 식물은...

양귀비과의 식물은 전세계의 온대와 한대에 26속 250종이 자생하지만 주로 북반구에 많이 분포하며 한국에는 6속 23종이 분포 자생한다. 양귀비과는 3아과로 현호색아과(Fumarioideae)와 양귀비아과(Papaveroideae), 히페코오이아과(Hypecooideae)로 분류하며 현호색아과(Fumarioideae)는 꽃잎이 외측에 1개 또는 2개가 있으며 기(距)와 포(胞)가 있다. 수술은 6개로 수술대가 일부가 붙어 있다. 꽃받침은 작고 자방은 2심피로 된다. 유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양귀비과식물들의 특징은 꽃이 모두 아름답다.

▲현호색아과(Fumarioideae)에는 현호색속(*Corydalis*), 금강화속(*Dicentra*), 푸마리아속(*Fumaria*)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꽃받침이 두 개이며 꽃잎이 4개로 복주머니모양이거나 꽃통 뒷쪽에 꼬리모양의 거(距)가 있으며 괴경(塊莖)을 가지고 있다.

▲양귀비아과(Papaveroideae)는 꽃에 거가 없으며 또는 꽃잎이 없는 경우도 있다. 수술은 많고 꽃받침은 크다. 자방에는 2~8개의 심피로 되어 있고, 유관(乳管)이 있다. 양귀비아과에는 아르게모네속(*Argemone*), 캘리도니움속(*Chelidonium*), 덴드로메콘속(*Dendromecon*), 에오메콘속(*Eomecon*), 캘리포니아 양귀비속(*Eschscholzia*), 글라우키움속(*Glaucium*), 훈네만니아속(*Hunnemannia*), 마크레이아속(*Macleaya*), 메코노프시스속(*Meconopsis*), 양귀비속(*Papaver*), 프라티스테몬속(*Platystemon*), 롬네이아속(*Romneya*), 상구이나리아속(*Sanguinaria*) 이 있다.

▲히페코오이아과(Hypecooideae)는 꽃잎이 모양과 크기가 같으며 거는 없다. 수술은 4개이며 꽃받침은 작다. 자방은 2심피로 된다. 유관은 없다. 잎은 톱니모양 깃털모양으로 갈라진다. 프테리도필룸(*Pteridophyllum*)과 프테리도필룸(*Pteridophyllum*)이 있다. ■



애기통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쥐눈양귀비(*papaver* spp.)



속근양귀비 원예품종 (*Papaver* spp.)



현호색(*Corydalis turtschaninovi*)

관엽식물로 내방에 GREEN INTERIOR

봄의 끝자락에 푸른 정원을
내방에 들여놓자
그린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기정화식물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디자이너

■ 글: 정지은 기자 / 사진: 변해인 기자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식물이 주는 인테리어와 공기정화 효과는 매우 크다. 하지만 실내에 식물을 들여 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 대부분 실내 환경은 식물이 자라기에 부적합해서 금세 시들시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꽃이 있는 식물은 실내에서 기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스파티필름과 같은 관엽식물들은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합하다. 공기정화식물의 대표인 관엽식물들로 디자이너를 꾸며보자.

스파티필름

학명 *Spathiphyllum spp.*

영명 Peace lily

분류 천남성과

원산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특성 예쁜 잎과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흰색의 불꽃(육수꽃차례를 둘러싸는 포가 변형된 큰 꽃턱잎, 흔히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스파티필름. 꽃가루가 날리는 것이 문제될 경우 꽃을 잘라낸다. 꽃이 제거되더라도 불꽃포가 손상되지 않아 여러 주에 걸쳐 감상할 수 있다. 열대지방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윤기 있고 싱싱한 녹색 잎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꽃을 피우는 몇 안 되는 관엽식물이기에 인기가 높다. 또한 알코올, 아세톤,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사철나무

학명 *Euonymus japonica*

영명 Evergreen spindle tree

분류 노박당굴과

원산지 아시아 지역

특징 사철나무는 잎이 넓으면서 사계절 녹색을 볼 수 있다. 추위에 강해 전국 어디서든 정원용, 실내용 모두 좋다. 웬만큼 척박해도 잘 자라며 반그늘 이상의 빛이 있는 조건이면 쉽게 뿌리를 내린다. 나중엔 매우 굵은 성목으로도 잘 자란다. 변종으로 잎이 타원형인 무룬나무, 잎이 긴 긴잎사철, 잎 가장자리에 하얀 점이 박힌 흰점사철, 잎에 하얀 줄이 있는 은테사철, 잎에 노란 반점이 있는 금사철, 잎 가장자리가 노란색인 금테사철, 잎에 노랑과 녹색 반점이 섞여 있는 황록사철 등이 있다. 모두 정원용으로 훌륭한 것들이며 우리 자생 자원들이다.



step
by
step

3만원으로 내방에 정원 만들기

준비물

접시(15000원), 흙(2000원), 식물(스파티필름 2000원, 황금사철 3000원, 피토니아 2000원, 아이비 2000원), 모종삽(2000원), 돌 0원



그릇에 돌을 깔다.



흙을 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어준다.



주지가 되는 식물로(스파티필름) 자리를 잡아준다.



그 다음 키가 작은 식물 순으로(왕금사철, 피토니아) 또는 포인트를 주어가며 배치한다.



지피식물이나 덩굴성 식물(아이비)로 빈곳에 으름론다.



흙을 잘 덮고 물을 음뻑 준다.

피토니아

학명 *Filtonia alibivenis*

영명 Nerve Plant, Mosaic Plant

분류 취괴리망초과

원산지 콜롬비아, 페루

특성 잎이 무성한 가지가 옆으로 뻗어 땅을 기면서 자란다. 잎은 마주나며 그 크기와 잎맥의 빛깔은 종마다 약간씩 다르다. 꽃은 노란색이며 크기 5~6cm로 작게 핀다. 그늘지고 배수가 잘되는 땅에서 잘 자란다. 땅이 건조하면 잘 시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꺾꽂이 또는 포기 나누기로 번식한다. 재배하기 쉬운 집에서 기르는 관엽식물로 인기가 있다. 색상이 다양하고 귀여워서 디자이너들에 포인트로 심기에 알맞다. 더 커서 덩굴이 뻗으면 행잉바스켓으로 이용하면 보기에 좋다.



아이비

학명 *Hedera helix*

영명 English ivy

분류 두릅나무과

원산지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특성 아이비는 덩굴성 식물이라서 매우 빨리 자라며 공중 뿌리가 뻗어 나와 이를 이용해 벽 따위의 표면이나 철사 등을 잘 타고 오르는 특성이 있다. 잎에 얼룩무늬가 있는 아이비의 경우 빛이 부족하면 색이 탈색될 수 있으므로 빛을 충분히 쬌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식물은 잎과 가지가 지를 자르고 다듬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형태의 장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아이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잎 모양과 색깔이 다양하고 기르기가 쉬우며, 실내의 다양한 환경에도 적응을 잘한다.



아름다운 상식 재미있는 가든

우리는 가끔 산행을 하다가 문득 절벽에 붙어 사는 식물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요즘 벽면녹화나 수직정원이나 하는 말들이 회자되기도 하고 실제로 건물의 벽에 정원을 가꾸듯 디자인이 되고 식물이 심겨지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다. 아니 이렇게 하면 식물이 벽에 붙어 살 수 있어요? 물론이다. 수직의 벽에서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거꾸로 매달려 자랄 수도 있다. 사실 식물의 뿌리는 명숙을 향하고 줄기는 태양(빛)을 향해 자란다. 전문 용어로 뿌리가 땅속으로 향하는 것을 굴지성이라 하고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굴광성이라 한다. 그런데 식물에 있어서 토양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지작용이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일생을 한자리에서 서서 자라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토양의 물리력이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토양이 없다면 식물은 서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식물이 공중에 매달려 있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님 물속



에 담겨 있는 고정기 되어야 한다. 물론 토양이 비옥한지, 물 빠짐이 좋은지 등은 식물의 생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식물의 죽고 사는 문제에는 별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경재배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식물을 물로 기르는 것이다. 물속에 영양분과 공기를 녹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물이 움직이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스폰지나 플라스틱 등으로 고정을 한다. 그리고 요즘엔 수경재배방식에 LED등을 이용한 빛까지 적용해 작은 실내나 아님 공간형으로 키워 식물공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토양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착안된 방법이 행잉 바스켓이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 재미있는 식물을 기르는 방법으로 거꾸로 매달아 기를 수도 있다. 보통 열매 채소들 중 줄기가 자라거나 덩굴처럼 뻗으면서 자라는 식물이 더 효과인데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토마토나 오이 등의 식물을 햇빛이 잘 드는 온실이나 배란다 혹은 카페 등의 디스플레이 용으로 재배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꽃으로 행잉을 재배하는 모습은 도로가나 처마 등에서 재배되는 것을 많이 보았을 테니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식물을 행잉으로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무게이다. 줄기의 무게와 열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나 품종을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열매식물이나 채소는 빨리 열리고 딸 수 있는 품종이 좋은데 토마토는 일반적인 토마토보다는 열매가 작고 빨리 딸 수 있는 미니토마토가 좋다. 오이도 생채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미니오이품종인 피클용 품종 등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카페 등에서는 화분의 아래는 채소를 심고 화분 위에는 꽃을 심어 재배하면 참 재미있는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상식의 세계로 떠나보자.



가정에서 재배하는 번식 이야기 좋은 품종은 삼목이 유리

야생화는 국내에서는 보통 다년생 식물을 일컫는다. 주로 산야에서 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 정원이나 분화용 식물중 좋은 품종은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어떤 품목이나 품종은 아예 씨앗을 맺지 않아 출자가 없는 종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식물을 번식할 수 있을까. 포기나누기, 조직배양 등 많은 번식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삽목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꽃이 개발하여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의 증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로 식물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은 무단으로 증식하여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자신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취미로 가꾸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핀다는 상록잔디패랭이를 내손으로 직접 증식하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식물도 쉽게 증식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Step by Step 상록잔디패랭이 삽목법



- 1 상록잔디패랭이의 모수(화단이나 화분에 재배되어 원종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어미식물)의 새싹을 자른다. 이때 새로 나온 잎이 최소한 5매 이상은 붙어 있어야 줄기가 굳어 삽목시 뿌리를 잘 내린다.
- 2 채취한 트윈한 삽수(삽목을 하기 위해 모수로부터 잘라낸 순)를 맨아래 잎 1~2장을 제거하고 줄기의 끝에서 약 1cm 정도를 남기고 잎을 싹둑 잘라 여러 개 준비한다.
- 3 지름 15~21cm되는 화분을 준비하고 약간의 거친 원예용 상토를 알맞게 채운다
- 4 상토가 채워진 화분에 약 3~5cm 간격으로 삽수를 꽂는다. 이때 삽수를 꽂는 깊이는 삽수 총길이의 3분의 1지점까지 꽂아준다. 이때 발근촉진제를 발라주면 더욱 좋지만 구비되지 않았다면 그냥 꽂아도 된다.
- 5 물을 흠뻑 주고 손가락으로 삽수를 흔들어 뽕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너무 얇게 문혔다면 눌러주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다.
- 6 비닐필름을 이용 밀봉하듯 끈으로 묶어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이때 비닐의 중앙을 약간 높게 하고 지름 2cm 정도의 구멍을 내어 통기가 되도록 한다. 처음 일주일엔 그늘에 보관하거나 차광을 하고 일주일 후 햇빛이 드는 창가 등에 둔다.
- 7 약 20~30일 후 비닐을 벗기고 뿌리가 내렸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뿌리가 내렸다면 비닐을 완전히 벗기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일상적인 화분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 8 주의할 점은 상록잔디패랭이는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으므로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는 꽃을 가위 등으로 모두 잘라주어야 한다.



Season Theme 베란다 관리

늦은 봄...

“채송화와 해바라기 파종해 보세요”

5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도 한다. 꽃이 만들어지기까지 분화된 눈의 성숙과 광, 온도, 일조 등 내적·외적의 조건이 기가막히게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꽃이 티지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 이런 5월에 새로운 꽃을 터트리기 위한 ‘베란다 꽃밭’ 저자이면서 파워블로거 ‘비온후’ 이선영 씨의 5월의 베란다 가드닝 이야기를 시작한다.

■ 글: 정승환 기자 / 사진: 이선영, 정승환



채송화와 해바라기...그리고 물(水)

채송화는 25℃의 고온이 필요한 늦봄까지 심기 좋은 종자다. 해바라기는 이를 그대로 햇빛이 없으면 안 되는 식물. ‘해품달’이 아닌 ‘해품 꽃(해를 품은 꽃)’이라 해도 좋겠다. 채송화는 씨앗 크기가 매우 작고, 해바라기는 매우 크다. 채송화 같은 미세씨앗은 흙에 먼저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반면 해바라기와 같은 큰 종자는 그냥 흙에 심고 그 위에 물을 줘도 상관없다. 두 씨앗 파종 시 “절대 물을 말리지 않도록 한다”고 그는 당부한다. 채송화 같은 미세씨앗은 비닐랩을 씌워 수분을 공기 중으로 뱉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물주기가 끝났다면 채송화, 해바라기는 광발아 종자로 햇빛이 따듯한 양지에 놓는 것이 좋다.

발아가 잘 안되면 ‘습파종’ 권장

파종할 때마다 고민해야 할 것이 ‘발아율’이라 한다. “공간이 협소한 베란다에 숨어내는 것을 대비해 넉넉히 뿌리는 것이 좋아요.” 그는 발아율이 높은 화초를 아파트 앞 화단에 심어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가 잡초인줄 알고 뽑아버려 난감했었다는... 발아율이 매우 낮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런 씨앗을 위해 그는 ‘습파종’을 권한다. 물을 적신 흙에 종자를 흠뿌리는 방법으로 발아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간혹 발아가 안 된 씨앗이 담긴 화분에 녹색이 보일 때의 기쁨은 그 누가 아는가. 이선영씨는 씨앗이 썩지만 않았다면 언제가는 발아한다고 조언한다. 또 파종했던 흙을 분갈이할 때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다.

QUICK TIP

묵은 씨앗은 습파종으로 테스트. 종패(종자검질기) 딱딱해 우이가 나오지 못하면 분무기로 물을 적혀 말랑말랑했을 때 손톱이나 핀셋으로 살살 벗겨낸다.

step by step 채송화(미세종자)의 파종



1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재월용 용기를 이용한다. 모종상과 큰 씨앗을 위한 구멍을 내는 도구도 있으면 좋다.



2 원예용 상토를 꼭 채워넣지는 않는다. 나중 모종이 쓰러져 복주기(흙을 추가하는 과정)가 필요할 수도 있다.



3 채송화는 종자의 크기 때문에 물을 먼저 주는 것이 좋다.



4 채송화 종자를 뿌린다. 일명 흠뿌림. 나중에 발아되어 웃자라는 것은 속이 내는 것이 좋다.



5 종자 파종이 끝나면 다시 분무기로 살짝 뿌려줘 파종을 마무리 한다.



6 아주 작은 종자(미세종자) 채송화는 파종후 엽을 씌운 후 구멍을 내어 공기순환을 시켜준다.

* 캄펄은 수분과 습도 유지에 좋다.

5월의 베란다 식물은 생육하는 시기

5월은 아쉽게도 봄 초에 꽃의 화려함을 자아냈던 초본류들이 자신의 역할을 마감하는 시기다. 그는 올라온 꽃대를 잘라주거나 가지치기를 통해 식물의 생육을 위한 양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식물 생육이 좋으면 벌레들에게는 자려진 밥상이다.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물을 줄 때마다 잎의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발견되면 닦아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해요.” 기하급수적인 해충이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광합성을 이용한 화분 배치

베란다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화분을 이용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햇빛의 방향으로 화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계절마다 햇빛의 양이나 높낮이가 달라 벽에 거는 화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실용성이 좋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화분배치를 바꾸는 일은 힘들지만 베란다가 늘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화분의 배치는 식물의 염류소 생성을 위해 그가 식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 또 베란다 정원을 꾸미는 스킴 중 하나다. ■

‘페튜니아’의 수나

이선영 씨가 키우는 페튜니아. 얼마 전부터 일 주위가 갈변증상이 보이고, 분갈이를 해도 상태는 같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화훼과 한경숙 박사에게 문의했다고 한다.

Clinic 새순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토양이나 실내에서 키우므로 기상환경에 의한 문제도 아니다. 증상으로 보아 급격한 스트레스성 생리장애로 추정된다. 새로 나오는 잎은 괜찮아질 수 있으니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



2012년에 핀 ‘채송화’와 ‘해바라기’



채송화 (Portulaca grandiflora)

설명이 불필요한 채송화. 꺾꽂이 화라고, 홀꽃은 단아하다. 베란대에 일조량이 부족하다면 심하게 웃자랄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피고 지는 꽃이 날마다 즐겁게 한다.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개량종인 미니해바라기. 기름도 짜고 씨앗을 먹을 수 있는 해바라기는 베란대에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키가 작은 개량종 씨앗을 파종하면 베란대를 노릴 수 있다. 특히 테디베어(우)해바라기는 겹꽃종으로 품인형 같은 부드러운 털을 달은 잎을 가졌다.

Season Theme 베란다 관리

발아기간에 따른 관리법

- 발아기간이 3~7일인 씨앗이라면?
채송화, 해바라기, 나팔꽃, 코스모스, 맨드라미, 백일홍, 봉선화, 바질, 캐모마일, 페튜니아 등
- 램을 씌우면 추가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됨.
- 발아기간이 10일 이상인 씨앗이라면?
베고니아, 버베나, 일일초, 임파첸스, 프리들러, 라벤다, 로즈마리, 한련화, 시클라멘 등
- 햇빛이 강하거나 온도가 높을 경우 아침에 물을 뿌려주세요.

핵심체크

채송화

- 미세종자
- 파종은 흙뿌림.
- 25°의 고온필요. 늦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해바라기

- 대립종자
- 파종은 점뿌림
- 씨앗크기의 2~3배 복토하는 것이 좋다.

이선영씨의 '베란다 꽃밭'.
봄의 정령이 베란다를 아름답게 수 놓았다.

step by step

해바라기(대립종자)의 파종



1 송곳을 이용해 용기에 적당히 구멍을 뚫어주면 배수가 용이하다.



2 물바짐이 좋게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이선영 씨는 스티로폼을 조각내어 밑에 깔았다.



3 상토를 넣은 용 위에 파종막대를 이용해 씨앗의 2~3배 깊이의 구멍을 낸다.

5

BEST 이선영이 추천하는 꽃

펠라고늄 '랜디'

Pelargonium grandiflorum 'Angeleyes Randy'

독일의 회사에서 개발한 분화용 꽃. 자갈과 건조한 상황에서 식물의 생육이 진행된다. 6시간의 일조량 상태에서 4월 말 정도부터 개화가 시작한다. 손지르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풍성하게 키우려면 손지르기 하는 것이 좋다. 5~10℃가 생육 적정온도로 추위에 강한 편이다.

페튜니아

Petunia spp.

가지과 식물로 우리나라 대표적 화단용 일년생인 페튜니아는 한해·여려해살이풀이다. 페튜니아는 파종기를 조절할 수 있다. 봄과 여름에 꽃을 보려면 각각 전년도 초겨울과 당해 봄에 파종하면 된다. 또한 페튜니아는 습해에 약해 정마절에 조심해야 한다. 월동 불가능한 식물이기도하다.



미니 장미

Rosa hybrida

꽃의 대명사. 세계 3대 절화종 하나로 절화와 분화용 품종들이 많이 있다. 미니장미는 나무높이가 30~50cm이다. 화경(꽃의 지름)은 약 2cm이다.



버베나

Verbena spp.

보라색 화단을 꾸미고 싶다면 버베나를 추천한다. 꽃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핀다.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 버베나는 일년생으로 양지에서 4~7월에 개화한다.



캄파눌라

Campanula spp.

초롱꽃과로 여러해살이풀인 캄파눌라는 꽃이 크고, 꽃의 모양이 종을 닮은 한국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 4~8월에 개화하는 캄파눌라는 씨앗으로 번식이 쉽고, 포기를 나눠 심어도 꽃을 얻을 수 있다. 다소 건조하게 물관리를 하면 좋고, 꽃은 분홍색이나 보라색 등이 있다.



4 미니 해바라기 씨앗. 논지에 키우는 해바라기 보다 키가 작아 베란다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꽃이다.



5 분무기를 사용해 흙이 젖을 정도로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다.



6 파종이 끝났다면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둔다. 발아는 3~7일 정도 걸린다.

Season Theme 유실수

나무심기 좋은 계절, 유실수를 심어보자 정서적, 사회적 녹색사업 발전에 도움 돼

■ 글·사진 최형호 기자

유실수는 예쁘장한 꽃과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과수다. 가정, 산책로 등에 한 번 심어 놓으면 오랫동안 재배할 수 있어 경제적인 나무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유실수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하에 공원, 빈터 등지에 많이 심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상여건, 지형, 토양 등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나무들이 자라지 못했고, 그 자리에 벚꽃이 들어섰다. 그나마 살아있던 나무들마저 오래돼버린 바람에 더 이상 나무에 열매가 맺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무심기 좋은 요즘, 유실수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



비타민나무 *Hippophae rhamnoides*

- 심목2년_3,000원 ● 심목 3년_5,000원

낙엽활엽소교목으로 키가 3m에 달해 일반적으로 1~2m 키위 열매를 수확해 이용한다. 추위에 강해 영하 30℃ 이상에서도 잘 견디며, 물오지대인 석회암, 건조한 모래땅, 거름이 없는 토양에서도 잘 견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다. 열매는 9월에 황색으로 익으며 약간 신 맛이 난다. 자웅이가화(雌雄二家花)로 암수가 따로 있어 실생묘인 암수구별이 안 되므로 심목묘를 식재하는 것이 좋다. 재수가 잘 되는 마시토나 양토를 좋아하며 많이 달리려면 질소, 인산, 칼슘이 고루 함유돼있는 퇴비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매에는 당분, 유기산, 비타민 C 비타민 B1, B2, 비타민D, 마로틴 등이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기름 12%가 포함돼있다.

특히 가정에서도 화분에 식재할 수 있으며 잎이나 열매를 수확해 차나 음식재료에 이용할 수 있다. 잎은 정신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 치료 이용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나무껍질은 만성기관지염, 심장병, 녹내장 등 효과가 있다.



빌베리 *Vaccinium myrtillus*

- 포트묘_10,000원

북유럽이 원산지인 빌베리는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등 각종 항산화물질이 4~5배 많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눈에 좋은 열매다. 특히 잎은 각종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차나 음식 재료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블루베리와 같으나 내한성 및 병충해에 강해 가정에서 화분재배용으로 적합하다.

칼슘나무 *Prunus humilis cv.*

- 실생 1년_1,500원 ● 실생 2년_3,000원

낙엽활엽목관으로 추위에 강해 병해충이 거의 없다.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아 재배가 쉽다. 열매는 선홍색이나 황색으로 8~9월에 익는다. 약간의 신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무게는 5~15g이다. 열매는 칼슘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름도 칼슘나무가 됐다. 그 외 비타민, 아미노산 등 여러 영양소가 다양 들어있다. 임과 즐기는 차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봄의 흰색 꽃과, 가을의 열매가 아름답다. 가정용화분용과 조경수로도 최적의 나무다. 아직 국내에는 많이 식재돼 있지 않아 활용가치가 높고, 꽃과 열매가 예뻐 관상용으로 좋다. 앞으로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다래나무 *Actinidia arguta*

- 심목2년 포트_5,000원 ● 심목1년 포트_10,000원

야생성 과수로 조경 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열매는 달콤하며 식용 또는 과실주로 인기가 높으며 약용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정원, 공원, 신간지 등에 많이 식재하며 휴게 공간 등에 주로 이용된다. 열매는 장과이고 길이 2~3cm의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10월에 황록색으로 익는다. 어린잎은 나물로 하고, 열매는 날 것으로 먹거나 과즙·과실주·젤 등을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 열매를 미후리(蜜梨)라는 약재로 쓰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많은 증상을 치료하고 소갈증을 제거하며, 금식간염에도 효과가 있고,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에 건조시킨 미후리를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개량다래는 일반다래보다 과일이 3배 이상 크며, 다과성으로 많이 달리는 속성수이다.



크렌베리 *Oxycoccus quadripetalus*

- 4치 포트묘_3,000원 ● 6치 포트묘_10,000원

신달래과 식물로 땅을 기어 다니며 자라는 상록활엽덩굴성이다. 추위에 강해 전국 노지에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습기를 좋아하는 열매다. 꽃은 6월에 붉은 빛을 띤 흰색으로 피며 과일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미국 태나다 영국 핀란드 등에서는 포조, 블루베리와 함께 3대 과일로 꼽힐 정도로 인기종으로 대량 재배해 고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생산지가 소규모여서 농가에서는 경쟁력 있는 식물로 통한다. 국내에서는 100% 수입돼 시중에 원액 주스, 분말, 캡슐제, 아이스크림 및 각종 과자 첨가제로 판매 중이다. 비타민이 풍부해 생과로도 먹을 수 있으며 콩팥, 방광계통, 비뇨기 질환, 소변계통, 전립선염 등에 효과가 있다.

국내 최대 전시 판매장 구비
다양한 고품질 종묘 저렴하게 판매
조경수 목록 및 성목 각종 종자 납품

대림원에종묘(주)

☎ 02-575-5933 www.dailimseed.co.kr

경기도 과천시 주왕봉 58-1번지 (과천나무모듬도매단지)

퍼플초크베리



기존의 블랙 초크베리의 맛을 변화시키는 신종종, 기존의 레드와 블랙 교배 선발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옅은 광택이 있다. 검정색 열매가 매력적이다.

1년생 포트	2000원
개량종포트	6000원
실생 1년	1500원
실생 2년	3000원

준베리



새롭게 뜨는 과수로서 농가 소득 작목으로 경제성이 높은 신소재 작목, 생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마그네슘 칼슘 아미노산이 풍부, 각종 웰빙 식품으로 최고다.

실생 1년 특묘	3000원
1년 포트묘	5000원



가든플래너의 정식
garden planner
박공영

Garden Planner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관리

5월은 신록의 계절이다

봄은 이미 더워져 많은 식물들을 신록으로 그리고 꽃으로 뒤덮는다. 그리고 일년초 꽃식물과 채소는 이제 집박으로 진정한 봄나들이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원관리에 있어 연중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하고 새로움을 즐기는 때이기도 하다.

오월은 가장 빠르게 식물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꽃이 피고, 지고, 싹이 트고 자라고 그리고 초봄의 식물들은 종자를 맺거나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씨가만 변덕이 심한 것이 오월의 정원이다. 자 그럼 무엇보다 해야 할까. 사실 오월은 자연현상 중 변화가 가장 심한 계절이라 상순, 중순, 하순을 나누어 설계를 해야 한다. 우선 5월 상순에는 우선 정원의 채소나 일년생

초화를 노지에 직접 파종하는 시기이다. 상추나 쑥갓, 열무, 알타리, 봄배추 등 잎이나 뿌리를 이용하는 채소를 파종하는 적기이다. 그리고 이른봄 파종해서 육묘한 묘종을 본밭에 심는 시기이다. 그러나 육묘한 식물의 경우 아직 아침 저녁 쌀쌀한 때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또한 늦서리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비닐을 씌워주거나 플라스틱 덮개 등을 덮어 보호에도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다.



정원의 경우 이른 봄 피었던 톨립, 수선, 무스카리 등 구근식물의 꽃이 지는 시기이다. 이들은 주로 이른 봄이나 겨울에 생육하고 양분을 모으는데 꽃을 피우면서 뿌리속의 양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년 점차 구근이 작아질 수 있는 때이다. 이때 꽃이 약 70~80%정도 지는 상황으로 아름다움을 잃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꽃대를 잘라 뿌리분구와 함께 양분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구근으로 이동되도록 해야 내년에도 탐스런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물론 약간의 복합비료를 주고 건조한 경우 적당히 물을 주어 조금이라도 늦게 활엽이 되고 휴면에 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때는 정원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싹을 틔운 후 이기 때문에 겨울



주식구근식물은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재배되어야 한다. 간혹 뿌리를 캐내어 굵은과 뿌리가 썩어 있다면 불량 배수를 의심해 봐야 한다.

✓ 5월의 체크리스트

● 종자 파종 및 번식

- 채소 및 일년생 노지 파종용 초화 직파
- 다년생 식물의 포기나누기 및 삼목 번식
- 초식구근 알뿌리 나누기 및 식재
- 고구마, 감자 등 뿌리식물 순심기 및 조각 심기

● 채소정원 퇴비, 경운 및 비닐 씌우기

- 채소정원은 보통 4월이면 퇴비하고 경운하지만 늦어도 5월 상순까지는 퇴비를 넣고 경운한 다음 이랑을 만들고 검은 비닐심을 자리는 투명비닐 효과적을 미리 덮어 각종 채소를 심는다.
- 입 채소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흙을 뿌려 속들이 용하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통 한 포기씩 심어 가꾸는 것이 관리와 수확에 더 효율적이다.



● 열매채소 정식하기

- 고추, 호박, 토마토, 옥수수 등 열매채소를 채원에 심는 늦서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활죽을 꽃고 비닐 터널을 씌우고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얇은 비닐을 뚫어 공기의 통풍을 유도한다.



● 병충해 방제

- 잠미, 원추리 등의 새순에 진딧물, 총채벌레, 응애 등의 해충발생이 심한 때이므로 잘 관찰, 방제해야함.
- 채소 야생화 등에는 배추흰나방, 파밤나방, 만달랭이 등 가식성 해충 방제

● 일년생 초화박스 식재

- 도시의 경우 5월이면 화단이나 플라워 박스에 일년생을 외부에 심을 수 있는 시기이다.
- 하나의 화분에 한종을 심기보다는 최소 3종 이상의 식물을 혼합해서 디자인하면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정원의 빈자리 새로운 식물 심기 및 세력 좋은 식물 화단 정리 및 이식

- 전년도에 죽어 빈공간이 발생된 곳은 새로운 식물을 채워 주고 세력이 매우 좋은 식물들은 그 공간을 한정하고 캐내어 적절한 공간배열
- 전 년도 떨어진 씨앗 발아 묘종 제거 및 육묘-일년생으로 씨앗이 떨어진 식물들은 다음해 싹을 틔우는데 꽃이라 해도 이들은 정원에 불필요하다. 정원을 쉽게 망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모두 제거하거나 일부 남기고 심은 곳만 남겨 두고 휴식 육묘를 하고 심다면 캐내어 트레이나 포트 등에 심어 육묘후 이용할 수 있다.



● 수목이식 마무리

● 각종 화목류 전정 및 소나무 등 침엽수 순따기

- 이른 봄 꽃 피는 식물들의 전정 및 식물 수형 관리
-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의 순따기

● 제초 작업

- 정원의 2년생 식물 뿌리 자르기 및 다년생 식물 제초
- 일년생 발아식물 호미로 표토 제초

● 생울타리 전정

- 조팝, 뽕나무, 무궁화, 화양동 등 생울타리를 주 목적으로 한 경우 과감히 전정하여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생울타리를 너무 늦게 전정하게 되면 아래의 줄기에 순이 발생하지 않아 머리 부분만 모여나게 되어 아름다운 생울타리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 순이 많이 나게 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Step by Step ▶ 배초향 묶는순 정리

많은 야생화로 전년도에 생육한 줄기가 이른 봄까지 붙어있다. 이들을 정리하고, 최소 5월 이전에는 잘라야 한다.



조심스럽게 새싹을 밀치고 마른 줄기를 자른다.



왕금배초향의 새순이 바로 나오고 있다.



새싹이 나오면 조심해야한다.



잘 정리된 왕금배초향

우리 살處的 정원 - 가든 人

에 동사를 하였거나 전년도 경장에 의해 정원의 빈공간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또 어떤식물은 필요 이상 남의 영역을 침입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곳은 다른 새로운 식물로 채워 주고 너무 많이 자란 포기는 나누거나 일부 캐내어 정원의 적당한 비율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또 이른 봄 퇴비 주는 것을 놓쳤다면 마지막으로 가능한 시기이다. 물론 묵화비료나 영양제를 살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꽃이 오래 피는 식물들은 많은 퇴비를 주어야 꽃이 탐스럽다. 이때 잘 발효된 퇴비는 많이 주어도 식물에게 조금씩 양분을 내주어 과잉에 의한 피해를 없지만 비료는 한꺼번에 많이 주면 장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식물을 너무 웃자라게해 쓰러짐의 원인이 되므로 각각의 식물 상태를 보아가며 약하게 자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퇴비를 적당히 주었다면 정원에 있어서 비료는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 이시기는 잦은 바람과 건조해서 6월에 개화할 식물들과 초기생육에 매우 중요한 수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적인 땅에서는 물 관리에 크게 신경을 필요 없었지만 옥성이나 베란다 등 인공구조물위의 경우에는 특히 물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옥성이나 통글레 등 잎을 보는 식물은 이시기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야 모양 좋은 잎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리고 중순으로 넘어 가면 대부분의 과일나무와 철쭉 등 봄 화목은 꽃을 지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목에 있어서 모양과 내년도 화아분화 가치를 만들기 위한 전정기 수반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철쭉, 동백, 목련, 모란 등 봄 일찍 개화하는 화목류는 꽃이 지면 전정을 하여 수형을 만들고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생육이 매



우 중요하므로 되도록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정원의 과일 나무에 많은 과일을 모두 다 수확했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이때 적당히 열매를 솎아 탐스럽고 건강하며 맛있는 열매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종류마다 적당한 과일을 키우는데 필요한 잎수가 있는데 복숭아는 1일에 20~25장이면 충분하고 열매 간격은 20cm정도 되게 한다. 배나무는 한꺼번에 많은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송이 아래부터 핀 2~3번째 열매 중 하나를 남기고 남은 20장 정도에 열매 한알을 남기고 모두 따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사과는 40~60장이 필요하고 포도나무는 새순에 열매송이가 나오는데 꽃이 피기전 자람이 늦거나 약한 송이를 따내준다.

정원의 많은 시설물도 손을 보아야 하는데 연

못의 손질도 이시기에 해야 한다.

겨울에 얼었던 연못의 물을 빼고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물통 등으로 이동시키고 물속식물과 정수번식물을 정리한다. 월동에 약한 식물의 사체를 제거하고 너무 많이 자란 연과 수련을 정리하고 원통에 심었다면 많은 뿌리를 분주하거나 적당히 솎아 내고 필요할 경우 원효성 유박 등의 고행비료를 퇴비를 공급한다. 이때 퇴비나 고행비료를 양파망과 같은 곳에 넣어 통속에 넣어 주거나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자갈로만 이루어진 연못의 경우 뿌리 근처 자갈로 눌러주면 좋다. 보통 퇴비나 비료는 물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이동이 쉬워 물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물을 완전히 빼고 자갈에 있는 물이끼를 제거한 후 며칠 말렸다가 물을 채워 주면 더 좋다. 물을 채운 후 다시 물고기를 안전하게 풀어주고 분수나 폭포의 물을 틀어 흉촌 산소량을 늘려주어 곧 있을 신란기를 대비한다.

여름철 물이끼를 없애기 위한 약품을 이용하는 경우 친환경제품을 이용하면 좋는데 대부분 고가이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요한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물이끼를 끼지 않게 하기 위해 연못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조경수를 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일이다.

잔디의 생육도 매우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양잔디와 들잔디의 생육특성이 조금은 다르지만 물과 비료는 이시기에 가장 신경써야 할 일이다. 충분한 비료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잔디깎기는 양잔디는 주 2회 들잔디는 1회정도 깎아 준다.■



미리보는 6월의 귀부인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는 덩굴식물중 가장 사랑 받는 식물중 대표종이다.

국내에서는 으리라고 불리지는 16종이 자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으아리와 큰꽃으아리, 노랑종덩굴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주로 온대 지방에 약 230여종이 자라며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개량한 종류가 주로 재배되는데 그 품종수는 매우 큰 식물군으로 발전해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것은 커다란 꽃과 더 볼어 깃 같은 털이 달린 열매를 관찰하는 식물이다.

주로 덩굴성을 이루는데 덩굴손이 자리 벽이나 나무 등을 감아 지탱하며 줄기를 뻗어올린다. 많은 덩굴성식물은 빨리 자란다. 때문에 정원에서 이들의 손을 정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빠짐이 좋은 사양질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항상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환경

로워 재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정리와 물주기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 것이 클레마티스이다.

클레마티스는 전년도 자란 줄기가 대체로 3분의 2지점에서 아주 튼튼한 두 개의 꽃 눈을 남기고 죽는다. 그리고 많은 경우 원줄기와 새로운 줄기 사이에 있는 원줄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죽게된다. 때문에 매년 새로운 손은 남기고 죽은 손은 정리해 주어야 한다. 물론 아주 많은 줄기를 정리해야 튼튼한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손을 정리하면 이전의 지지물에 걸었던 덩굴손도 대부분 제거되므로 순정리와 함께 줄기를 가지런하게 유인하여 매듭을 묶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클레마티스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빠짐이 좋은 사양질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항상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환경

에 더 잘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클레마티스는 덩굴성도 있지만 개버리리와 같은 종들은 덩굴성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원종으로 하면 키가 나지막하게 자라게 된다. 또 어떤 종들은 2~3m를 자라고 또 어떤종들은 10m이상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덩굴식물의 가장 큰 무기는 빨리 기어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빨리 자랄수록, 높이 자랄수록 잎이나 꽃은 뒷부분에 줄로 달린다. 이들 품종은 아래 쪽에는 양상한 줄기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치는 품종, 중간품종, 높이자라는 품종을 쉽게 되면 전체적으로 딱한, 그리고 형태의 생상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화기를 조절해 꽃을 오래 볼 수도 있다. 대체로 높게 빨리 자라는 품종은 꽃이 작거나 중간형이 많고 중간정도 자라는 품종은 꽃이 크며 화색이 다양하고 키높은 품종은 대체로 꽃이 중간형이거나 크다. 대신 화색은 중간정도로 다양하다.■

Step by Step 클레마티스 순정리



겨울을 난 클레마티스는 줄기 윗 부분이 말라 죽은 듯하다.



클레마티스 덩굴을 정리하면 덩굴손이 휘손되어 넘어지므로 피복판 철선을 이용한다.



줄기의 2/3 쪽에 큰 눈을 아고 있는 튼튼한 싹이 있다.



정리된 손을 묶어줄 때는 너무 조이지 말고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틈을 남겨 묶는다.



줄기의 가장 눈이 큰 마디 위 약 1cm 지점에서 자른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지런하게 정리한 모습. 이제 아름다운 꽃만 기다리면 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쌈채소 10선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 '불고기 하면 쌈채소'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고기와 쌈채소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채소를 대표하는 엽채류 중 '반찬을 싸서 먹는 잎채소'인 쌈채소는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채소 농가들이 추천하는 쌈채소 10가지를 선정해 보았다.

문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031-760-4757

레드치커리

레드치커리 종류 중 '트레비스', 곧게 자라는 적치커리는 잎이 붉은색이고, 가정자라는 패턴 녹색의 엽맥이 조화를 이룬다.

재배Tip

종자 발아는 7~14일이 걸린다. 보통 적파도 가능하지만 육묘할 경우 깨끗한 흙과 퇴비를 1:1로 섞은 용토에 5~6cm간격으로 줄뿌림 한다. 포기수확시에는 60~80일째 수확한다. 지상부는 잎채소로, 지하부는 줄을 담거나 주전자에 끓여 마실 수 있는 다목적 작물이다.



쌈케일

선명한 녹색 때문에 인기가 있는 쌈케일은 샐, 셀러드, 녹즙의 재료로 쓰여 '쌈케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잎은 담팻잎처럼 넓고 길고 두껍게 자라다 햇빛을 받으면 짙은 녹색을 띤다.

재배Tip

2~3월 파종할 때 온도에 따라 추대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아하는데 5~12일 정도 걸린다. 잎이 자라 손바닥 정도 됐을 때 수시로 수확하고,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하므로 밑거름은 충분히 준다. 노지에서는 봄에 씨앗 뿌려 가을에 서리 내릴 때까지 재배할 수 있다.

청경채

배추과인 청경채는 단맛이 나고 시원한 점이 특성이다. 서늘한 지역에서는 연중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여름과 겨울에 노지재배는 힘들다. 잎은 진한 녹색으로 두텁다.

재배Tip

배추와 이므로 결국 상태로 수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잎을 하나씩 뜯어 수확한다. 파종 후 3주 정도면 속아서 수확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큰 포기부터 차례로 밑동을 잘라 수확한다. 텃밭에서 초봄에 파종할 때는 저온에 감응해 추대할 수도 있으므로 보온재배가 필수적이다.



청치마

'갯상추'라고 부르는 진한 녹색인 청치마는 생육이 좋은 편이다. 축면 상추와 함께 국내 대표적 상추이기도 하다. 잎의 크기가 길지 않아 쌈용으로 적당하다.

재배Tip

본잎이 8~10장 올라오면 아랫잎부터 잎이 완전히 전개된 1장만 남기고 한 잎씩 수확한다. 텃밭에서는 4월 중순~7월 하순까지 재배가 가능하다. 보통 저온에서는 생육이 늦고, 환경이 불량하면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다. 저온저리로 싹을 낸 후 파종하는 것이 좋다.



셀러리

식물체에 향기가 난다는 어원을 가진 셀러리는 미나리와 식물로 잎과 줄기를 따로 먹을 수 있다. 또 초새가 왕성하고, 두텁고, 부드러운 잎자루를 갖고 있다.

재배Tip

가볍고, 토심이 깊고, 배수가 좋은 토지에서 잘 자란다. 적파재배시 본엽 3매시 1회, 본엽 5~6매시 2회 속아주는 것이 좋다. 재배 시 수분을 유지해 건조를 막아야 한다.



적·청 로메인

로마인들이 즐겨먹던 로메인 상추. 잎 색깔이 선명하고, 단맛이 좋고, 즙액이 많은 편이다. 상추 종류지만 배추처럼 잎이 직립해 포기지며 자란다. 잎은 광택이 있고, 줄기는 두텁고 넓다.

재배Tip

발아온도는 18~22℃이고 발아는 5~7일 정도 걸린다. 고온에서는 추대가 될 수 있으므로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포기 수확과 잎 수확이 가능하다. 잎따기는 파종한지 30~40일 정도 지나 수확하는 것이 좋다. 저습지나 배수가 불량한 곳은 피하고, 생육초기에는 과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잎이 어느정도 자라면 손바닥 크기로 잎을 떼어내 수확한다.



비타민

심파화과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채'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새싹채소로 이용하는 비타민은 서리에 강한 특성을 가진 품종이다. 수저 모양으로 자라는 잎은 진한 녹색을 띠고 생장속도는 다른 엽채류에 비해 느린 편이다. 한여름에 재배하면 성능이 우수하다.

재배 Tip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다. 씨앗을 6~8시간 물에 불린 뒤 발아시킨다. 발아온도는 약 25℃가 적당하다.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싹이 나오면 상온에서 키운다. 저온이나 불량한 환경에서는 생육이 나빠지고, 잎이 시들 수 있으므로 온도와 추비관리가 필요하다.



적촉면

적색이 진하고 잎에 빈적거리는 적촉면상추는 재배가 쉽고 생육이 빠르다. 엽수도 많아 수량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안정된 추대를 갖고 있어 수확기간이 다소 길다.

재배 Tip

추대는 고온일 때 일어나므로, 고온 재배 시 주의해야 한다. 생리장해와 병충해가 발생되기 정식 후 지나친 관수는 모종이 웃자라거나 병에 걸리기 쉽다. 생육 초반에는 2~3일 간격으로 주다가 수확 이틀 전부터 단수하면 잎의 경도가 높아진다. 저온에서 싹을 낸 후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다.



오크리프

참나무 잎(Oak leaf) 모양이라 해서 오크라고 불린다. 샐과 셀러드로 많이 이용하는 오크는 열무 잎보다 갈라진 길이가 크고, 기온 상추에 비해 아삭하고 단맛이 있다. 또 임줄기가 도통해 점이 많다.

재배 Tip

발아 적온은 15~20℃, 25℃ 이상 되면 발아가 잘 안된다. 텃밭 재배시 3~9월에 피종하는 것이 좋다. 유기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이달의 텃밭 농사 길잡이

채소류의 파종과 정식, 시작하세요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가꾸 먹는 즐거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활력소이다. 정성훈 지도관은 경기도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36년 동안 농촌지도업무를 해왔다. 그가 갖고 있는 300평의 땅에는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산채류, 약용식물, 과일나무, 특용작물 등 50여종의 작물이 있다. 작물의 종류만 봐도 전문 농사꾼임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저의 텃밭농사 및 지도 경험을 초보 텃밭 농사꾼들에게 손쉽게 편리하게 영농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 글_ 사진_ 정성훈 기자 / 자료협조_ Daum 카페 '농사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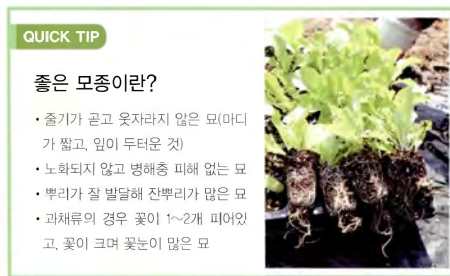
정성훈 지도관은 "밭에서 갖 수확한 채소는 시장에서 사온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

텃밭농사 시작...육묘부터 시작하자

5월은 텃밭농사에서 엽채류의 파종과 육묘, 모종 정식의 달이다. 텃밭농사를 이월부터 시작한다면 모종을 구입해야 하는 것과 직접 육묘하는 방법, 또는 직파 가능한 종자 및 모종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는 모종을 키우기 어려운 가지과 채소인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은 미리 종묘 상에서 구입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고추나 토마토 등은 첫 화방이 개화하는 모종이 좋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덜 키워진 것이 많아 구입 후 베란다 등에서 굳히는(hardening) 과정을 겪는 것이 모 상태를 좋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모종을 키울 수 있다면 미리 육묘판(트레이)에 키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추나 치커리, 배추 등의 엽채류와, 콩, 옥수수, 파, 부추 등은 육묘와 직파재배 둘 다 가능하지만 육묘 재배하는 것이 좋다. 그는 "육묘재배가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수확량이 많으므로 권장한다"고 말한다.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육묘 파종

육묘로 결정했다면 다음은 육묘판(트레이) 선택. 그는 큰 포트에 파종하면 뿌리의 매트(뿌리 엉킴)형상이 잘 안되므로 적절한 육묘 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어떤 트레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종이 생육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성훈 지도관은 육묘 파종은 관행법과 조금 다르다. 상토에 직접 구멍을 내는 것보다 육묘판을 모개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가자가 직접 확인하니 쉽고 빠른 것이 특징이다. 발아율을 높이는 방법도 소개한다. 발아율을 높이려면 파종한 상자위에 신문지를 놓고 쌓은 후 비닐로 덮어 두고 발아가 시작되면 바닥에 펼쳐 놓는다. 만약 베란디에 재배할 때는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보온덮개 등을 놓으면 효과적이라고 한다.



QUICK TIP

좋은 모종이란?

- 줄기가 곧고 웃자라지 않은 묘(마디가 짧고, 잎이 두터운 것)
- 노화되지 않고 병해충 피해 없는 묘
- 뿌리가 잘 발달해 잔뿌리가 많은 묘
- 과채류의 경우 꽃이 1~2개 피어있고, 꽃이 크며 꽃눈이 많은 묘

모종 심는 시기...늦서리가 사라지는 5월이 적기

늦서리는 작물에게 있어 위험한 기상재해이다. 작물을 일찍 심으면 냉해에 위험이 있고, 과채류 같은 경우 핵아형성이 멈춰 순맛음현상이 올 수 있다. "경기도 광주는 늦서리(미상)가 4월 30일(미상)로 늦서리 피해로부터 안전한 달이 5월이다. 보통 어린이날(5월 5일) 전후로 심는 것이 좋다." 또 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비, 즉 밑거름이다. 그는 퇴비, 유박, 토양개량제 등의 밑거름들이 가스피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식 전 15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밑거름이 토양의 가스를 유발해 작물 뿌리에 해를 주기 때문이다. ■

5월의 텃밭 Check list

5월의 텃밭은 모종 심는 시기

- 시기_ 서리가 끝나는 5월에 정식하라.
- 밭_ 정식 15일전에 퇴비나 유박, 토양개량제 등을 밑거름 준다.
- 두둑_ 과채류는 외줄재배, 엽채류는 두둑(0.9~1.2m)을 만들어 심는다.
- 비닐 멀칭을 하는 것이 지온상승과, 습기유지, 잡초발생억제에 좋다.



백색비닐 피복은 발아율을 높이고 초기 수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발아 후 제거하면 효과적이다.

작목마다 적절한 재식거리가 있다

- 작목마다 적절한 재식거리가 있으니 준수하는 것이 좋다.

상추, 치커리 등 엽채류	20 × 20cm
고추	90 × 40cm
토마토	35 × 40cm
강낭콩, 완두콩	70 × 30cm

직파재배는 작목마다 시기가 있다

- 직파재배는 기상환경을 고려해 파종한다.

감자 · 완두콩	4월 1일 전후
옥수수 · 강낭콩 · 땅콩	4월 20일 전후
상추 · 치커리 등 엽채류	4월 30일 전후
고추 · 가지 · 토마토	5월 1일 전후
콩	5월 25일 전후



씨앗마다 파종방법 다르다

- 엽채류는 줄뿌림이 좋고, 부추 · 콩류는 점뿌림을 이용한다. 파종 깊이는 종자의 2~3배 정도. 광발아종자나 미세종자는 복토하지 않거나 얇게 복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물에 따른 육묘판(트레이)

- 적절한 뿌리의 매트(뿌리 엉킴)을 위해 종자별 적절한 트레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고추	72구
배추	105구
상추 · 치커리	128구
파 · 부추 · 강낭콩 · 완두콩	50구, 72구

Step by Step 고추 모종 정식

모종삽의 길이는 33cm. 고추모종간 재식거리는 35~40cm 이니 모종삽의 반 뽕 정도 추가하면 되겠다.



멀칭된 이랑에 구멍을 낸다. 고추는 외줄재배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구멍에 물을 넣어 토양이 물을 흡수하도록 한다.



고추는 얇게 심는 것이 중요. 깊이 심으면 생육상 좋지 않다고 한다.



한글판 그라운드지키퍼
http://hangreentech.com

식품 포장재의 새로운 기준, Zippys

더욱 더 신선하게, 더욱 더 깨끗하게, 더욱 더 건강하게

Zippys®프레쉬팩 (가능성 비닐팩)

한글판 TEL : 02-929-1457~8 FAX : 02-929-1459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원동 25-68 백암마트빌딩 3층

HOW TO

육묘판(트레이)에 종자 파종



1 105구 트레이, 배추 등의 식물을 파종 육묘하는데 적절하다. 상토를 트레이에 워까지 평평하게 깔아준다.



2 새 상토는 물을 한번 주면 겉에만 젖는다. 물이 스며들 수 있게 시간 간격을 두고 2~3회 주는 것이 좋다.



3 일반적인 파종방법과는 달리 물에 젖은 상토가 담긴 트레이를 여러 겹 쌓는다. 쌓은 후 손바닥으로 꼭 눌러주면 상토가 다져지고 흠이 생긴다.



4 여러 올들이 동시에 생긴 것이 보인다. 올 안에 종자를 빠르게 뿌린다. 업체류 종자이니 만큼 안쪽에 하나씩 뿌리는 것이 좋다.



5 파종이 끝났다면 다시 상토를 트레이 가운데 뿌리고 펼치면서 채워 나간다.



6 복토(흙주기)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물을 더 준다.



7 트레이를 높게 쌓아 놓는다. 만위를 제외한 아래 트레이들은 자연스럽게 보온이 된다. 때문 신문지를 사이에 넣어도 좋다.



8 전체적인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비닐로 덮는 것을 권한다. 밖에 난 우에는 염으로 펼쳐 놓는다.



9 발아한지 20일 정도 된 업체류, 일반 하우스에서 난 달 정도 키우면 육묘장에서 출하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한 모종이 만들어진다.

Season Item

영양가 많은 '상추'

"더 이상 삼겹살 파티의 조연이 아니다"

'상추쌈을 먹으면 졸리다'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락투카리움이란 성분 때문. 이 성분은 불면증과 신경과민 증세에 효과가 있다. 또한 상추는 피를 맑게 해줘 빈혈에 좋고 섬유질도 풍부해 변비에도 좋다. 청상추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 적상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 있어 항산화작용을 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4가지로 구분되는 상추

재배되는 상추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잎이 가늘고 두꺼운 다육질의 줄기를 먹을 수 있는 줄기상추 ▲잎이 포개져 단단하게 결구되어 있는 결구상추 ▲로제트형으로 나는 잎이 곱슬곱슬하며 길게 갈라지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참나무 잎처럼 생긴 잎상추 ▲부드러운 잎이 포개져 된 결구가 크고 장방형이며 성글은 배추상추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잎상추를 많이 재배하는데 요즘에는 샐러드용으로 이용되는 결구상추 재배도 늘어나고 있다. 잎상추는 포기로 수확하는 '포기 상추'와 한 장씩 잎을 따는 '치마 상추'로 나뉜다. 잎 색깔에 따라 녹색을 따는 '청상추'와 붉은 색을 따는 '적상추'로 나뉜다. 여름철에는 청상추가 재배하기 용이한데 특히 '하청'품종이 발아가 잘된다.

차가움을 좋아하는 상추

상추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생장이 잘되는 호냉성 채소로서 더위에 약하여 생육기간중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쓴맛의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다. 한여름보다는 지금이 딱 심기 좋은 시기이다. 싹 트는데 알맞은 온도는 15~20℃이고, 상추가 잘 자라는 온도는 15~20℃이며 결구에는 10~16℃가 적합하다. 가능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 통기성과 수분함량이 충분한 토양이라면 어디서든 잘 재배된다.

노지재배와 육묘재배 가능한 상추

텃밭에 바로 뿌릴 경우는 20cm쯤을 만들어 줄뿌림을 한다. 상추 종자는



안토시아닌 색소로 붉게 물들여진 로메인상추, 업체류인 상추는 쌈이나 겉절이로 이용된다.

빛을 좋아하므로 씨 뿌린 후 흙을 얇게 덮어주어야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모종을 키울 경우는 육묘상에 6cm 간격으로 파종하거나 128공 물리그로판 이용한다. 모를 키우기가 번거롭거나 작은 면적이면 구태여 힘들여 모를 키우지 말고 종묘상이나 꽃 가게에서 구입해 심으면 편리하다. 씨 뿌린 후 1달 정도면 텃밭에 옮겨 심을 수 있다. 옮겨심기 전에 일거름을 넣은 다음 발을 갈고 땅을 골라 두둑을 만들어 둔다. 또한 제초노력을 줄이기 위해선 검은색비닐로 멀칭하는 것이 좋다. 심는 간격은 잎을 따먹는 상추는 20×15cm가 알맞다. 그러나 결구상추는 심는 거리를 이보다 넓혀서 30×30cm으로 하는 것이 좋다.

Information 먹다 남은 상추는 이렇게 보관해요

아직 싱싱한 상추는 청수된 물로 한번 행취 준 다음 채반에 발쳐 물기가 빠지면 비닐봉투에 넣어 묶어두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냉장고에 넣어두면 된다. 말라버려 못 먹는 상추는 바삭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 양치할 때 사용하면 치아 미백에 효과가 있다.

step by step

텃밭에 상추 씨앗 파종법



1 텃밭에 뿌리기 위해 오미 텃밭분으로 20cm의 골을 만들어 준다.



2 상추는 줄뿌림을 통해 하는 것이 나중에 수확작업도 편하다.



3 종자 파종이 끝났다면 거의 안 덮어 준다는 기본으로 얇게 흙을 덮는다.



4 발아를 빠르고, 고르게 하고 싶다면 피복하면 좋다. 발아 후 기온이 올라가면 걷는다.

정원 속의 작은 기쁨 다육식물

베란다 빈 공간 있다면...
“다육식물 키워볼까”



요즘 베란다를 갖고 있는 집에서 다육식물 하나 정도는 키운다. 그만큼 키우기 쉽고, 종류가 다양해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다육식물이다. 초화류는 손이 많이 가고, 관엽류를 키우기에는 맛있다. 다육식물을 키워보자.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 협조, 사나래농장(010-6234-5444), 선인장연구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봄철 다육식물관리

-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로 분갈이를 잘해야 한다.
- 봄철 베란다 다육식물은 1주일에 1번 정도는 물을 흠뻑 준다.
- 화학비료는 긴급 처방으로만 사용하고 보통 퇴비를 사용한다.



일산의 어느 온실, 작고, 다양한 꽃모양과 두터운 잎을 가진 식물들이 트레이와 포트에 즐비하다. 농장 주인이 한 칸에서 삼수를 하고 있는 동안, 온실 안은 자동 센서에 맞춰 온도와 통풍이 이뤄지고 있다. 농장 주인은 “여기서 재배된 다육식물들은 소매 또는 도매를 통해 다양하게 유통된다”며 다육식물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육식물 시장이 뜨고 있다

내부에 물을 저장해 통통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다육질”이라 부르는 다육식물은 건조하고 모래환경인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인장, 알로에 같은 식물이 다육식물에 속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이재홍 연구사는 “다육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 소형이고, 같은 면적에 여러 종류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적은 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 식물체내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 환경 저항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생장점을 칼로 도려내어 심목하듯 심으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다르다

선인장류가 다육식물에 속하지만 선인장 자체가 거대한 식물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인장과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적, 생리적으로 서로 가깝기 때문에 동시에 다루는 일이 많다. 원산지 차이로 보자면 선인장은 주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다. 다육식물은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따뜻한 곳에서 자생하고 있다. 즉 선인장은 건조하고 시원한 곳인데 반해, 다육식물은 건조하고 더운 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선인장은 가시자리가 있다. 가시가 없어도 가시자리가 없는 선인장은 없다는 것이 선인장의 특징이다. 다육식물은 가시가 있어도 가시자리가 없다.

키우기 쉽지만 햇빛은 필요

다육식물은 생리적 특성으로 건조에 강해 쉽게 말라죽지 않는다. 하지만 광선을 좋아해 햇빛과 통풍이 잘되는 베란다, 창가 부근에 키우는 것이 좋다.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최저온도가 영상 5℃ 이상인 곳이 적당하다. 환경이 적당하지 않은 식물은 입장 사이가 벌어져 웃자라는 경우가 있다. 월동 온도는 열대산과 온대산이 다르지만 건조하게 두면 보통 0℃에도 견디는 종류가 많다. 특히 Lithops류는 겨울에도 잘 죽지 않는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만들어야

다양한 모양의 화분에 심어 놓으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

용토는 마사토와 배합토 비율이 6 : 4 또는 7 : 3이 좋다. 이재홍 연구사는 “최소한 마사토는 50% 이상은 섞어 수분공급과 통기성이 양호하다”고 조언했다. 배합토 비중이 커질수록 과한 영양성분이 다육식물을 웃자라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 조개껍데기, 분조각 등을 분 김이의 1/5정도 까는 것도 좋다.

이쁜 화분과 함께 다육식물을 심게 되면 여느 식물보다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 꽃다비 화원 대표는 “이쁜 토분이나 공예 화분 등에 돌과 나무와 함께 모아 심으면 색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에케베리아(Echeveria) 속

에케베리아 원종은 주로 멕시코 고원에 넓게 자생한다. 약 100종이 넘는 원종이 있지만 재배되는 교잡종은 몇 종에 불과하다. 잎에 가는 털이 있는 것, 잎 주변 파도 무늬, 광택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 종은 직립하면서 관목 성질을 갖고 있어, 줄기 성목이 가능하다.

에케베리아 속은 물을 주면 잎 중앙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다. 그냥 놔두면 햇빛이 투과되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지면관수하는 것이 좋다.

홍화장

Echeveria 'Victor'

봄, 가을이 성장기로 잎머리 부분에 붉은 띠가 있는 연녹색의 잎이 환경에 따라 잎 가장자리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띤다.



정아

Echeveria derenbergii

다육식물 중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직경 6~7cm 장미꽃 모양의 백색을 띤 녹색의 도톰한 잎을 형성. 끝단부는 빨간색. 꽃은 붉어 피며 꽃줄기 위에 중 모양의 노란색 또는 주황색 꽃을 피운다.



라일락

Echeveria 'Perle von Nurnberg'

잎 모양이 등굴고 끝이 뾰족하며 끝에 가시가 있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되면 연보라색을 띠게 된다.



골든그로우

Echeveria 'Golden Glow'

연두빛의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으며 가을이 되면 핑크나 붉은 계열로 변하게 된다.



니크사나

Echeveria 'Nicksana'

꽃색은 분홍색으로 잎색이 맑고 짙은 녹색을 하고 있으며, 익으면 노란 황금 빛을 변한다.

Season Item

포도를 닮은 꽃 무스카리

5월이 되니 눈부신 햇살에 화창함이 얼굴에 와 닿아 산이며 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져 가고 있는 게 눈에 선하다. 이러한 시기에 꽃 시장에서는 단연 구근 식물들이 봄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번 달은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컬러와 아기자기한 생김새의 '무스카리(Muscari)'를 소개하려한다. ■글·사진 정지은 기자



구근식물이란 무엇인가?

화단에 심겨져 있는 튤립을 본적이 있는가. 아래 부분이 동그스름한 형태로 생겨 마치 양파와도 같이 생긴 식물을 구근식물이라 부른다. 구근류는 숙근초의 특수한 형태로서 지온, 고온, 건조 등의 불량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식물체의 일부인 잎, 줄기,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하여 지하에 원형의 양분저장 기관, 즉 구근을 형성하는 식물이다. 비대한 기관의 종류와 형태의 차이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한다.



- 인경** 비늘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짧고 잎이 비대해진 것 튤립, 아마릴리스, 히아신스, 백합 등이 있다.
- 괴경** 덩이줄기라고도 하며 피막이 없는 상태에서 줄기가 비대해진 것을 말한다. 아네모네, 갈라, 칼라디움, 시클라멘, 구근베고니아, 글록 시니아, 아네모네 등이 있다.
- 구경** 알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비대해서 알뿌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 크로커스, 콜치쿰, 익시아 등이 있다.
- 근경** 뿌리줄기라고도 하며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 다소 비대해진 것을 말한다. 아이리스, 칸나, 꽃생강 등이 이에 속한다.
- 괴근** 덩이뿌리라고도 하며 뿌리가 덩어리 형태로 비대된 것이다. 달리아, 라넡쿨러스, 글로리오사 등이 있다.

다양한 무스카리 품종



학명 : *Muscari armeniacum* 'Blue Spike'



학명 : *Muscari macrocarpum* 'Golden Fragrance'



학명 : *Muscari botryioides* 'Album'

무스카리의 어원은 그리스 단어의 사향(moschos)으로 꽃의 향기가 진하고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키도 꽃줄기도 작은 꽃이지만 모아서 심었을 때의 청 보랏빛은 다른 식물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4 ~ 5월에 피는 작은 포도송이를 거꾸로 한 것 같은 꽃은 드문 화형이다. 추위에 강하고 재배가 쉽기 때문에 초보자라도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다. 높이는 10 ~ 25cm 정도로 낮고, 꽃 색이 선명해 튤립 등 키가 높은 식물들과 장식하거나 모아 심어 조화시키면 심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키우기 쉬운 구근식물 3대인 글라디올러스, 무스카리, 아마릴리스 중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초보자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구근식물이다.

밀식하는 기분으로 심어야 보기 좋다.

토양은 배수가 잘되는 사질 토양이 좋고, 화분에서는 발 흙과 부엽토, 모래를 섞어서 재배한다. 해가 잘 들고 반그늘인 곳에 10월에 심는다. 무스카리는 대한성이 강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월동이 가능하다. 심는 간격은 5 ~ 10cm, 깊이는 화단이나 정원에 심을 경우 구근 크기의 3배 정도가 적당. 화분에 심을 경우에는 구근이 파묻힐 정도로 심는다. 밀식하는 기분으로 심는 것이 요령.



구근은 건조하게 관리한다.



물은 표면이 말라 갈라진 상태가 되면 즉시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 지상부가 휴면에 들어갔을 때는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비료는 심을 때는 밀거름으로 부엽토나 퇴비를 섞어주면 좋다. 옷거름으로 액비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면 2 ~ 3년 정도는 심어둔 채로 잘 자란다.

소독한 후 심으면 이듬해 다시 감상.

계속해서 건강한 구근을 만들고 싶다면 시들해져 아름다움을 잃은 꽃대를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야 한다. 그래야 뿌리분구와 함께 양분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구근으로 이동될 수 있다. 만약 증식을 해서 이동을 시켜야 한다면 6월 상순 ~ 중순쯤에 구근을 캐라. 캐낸 구근을 물로 씻어 락스와 같은 살균제에 담가 소독한 뒤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가을에 다시 심으면 이듬해 봄 아름다운 꽃을 다시 감상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꽃의 세계로

자재 농장 운영, 신품종 육성	
백합 캔버라 구근 2개	4000원
백합 시베리아 구근 2개	3000원
글로리오사 구근 1개	6000원
글라디올러스 크리스타 구근 5개	4000원
글라디올러스 뉴웨이브 구근 5개	4000원

우리화훼종묘(주)

☎02-503-9168~9
www.wooriseed.co.kr
FAX 02 503 9097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84-1

Season Item

나비를 닮은 그녀, 다채로움을 품은 팔레놉시스

하얀 나비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두리번거린다. 나비는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한다. 날개가 없기 때문이다. 뼈 속까지 정(情)으로 붙어버린 몸통이, 하지만 나비는 절망하지 않는다. 비록 날개가 없지만 마음 속 활짝 핀 날개로, 그리움을 기다림으로 승화한다. 실제 나비와 생김새가 비슷한 꽃이 있다. 종류도 나비만큼 다양하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팔레놉시스.

글·사진·최형호 기자



팔레놉시스는 꽃의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 그 다채로움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팔레놉시스
학명 : *phalaenopsis* spp.
원산지 :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특성 : 열대 및 아열대지방의 산악지대에서 나무에 착생하여 자라는 착생란류의 일종으로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향기는 없으나 꽃이 화려하고, 꽃대가 아래로 늘어지는 성질이 있어 집안용 식물로 적합하다. 꽃의 모양이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호접란'이라고 부른다.

팔레놉시스의 종류



행복이 날아온다

팔레놉시스의 원산지는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 등 열대, 아열대의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다. 팔레놉시스의 꽃은 나비처럼 화려하고 다채로우며 잎은 주걱처럼 넓고 등그름한 것이 특징이다.

꽃은 화려할 뿐 아니라 행복이 날아온다는 꽃말처럼 순수하고 기품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늦겨울과 봄 사이에 하얀색, 분홍색의 꽃이 피고, 실내에서 별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다.

팔레놉시스는 주로 나무에 착생한 꽃이 자라는데, 꽃송이의 끝에서부터 하나씩 피고지면서 여러 날 꽃을 피운다. 보통 1월부터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꽃이 피며 '겨울 나비'라는 별명이 있다. 꽃 색깔은 백색이 주종으로 세계적으로 흰 꽃이 많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색화계가 다양하게 육종되어 더욱 팔레놉시스의 묘미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국내 난(蘭) 생산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쓰인다.

직사광선은 피하자

팔레놉시스는 반드시 햇빛과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한다. 직사광선을 피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 단 완전 개화 후에는 고온과 통풍이 안 되고 건조할 때 꽃의 수명이 급속히 떨어진다.

일정기간 저온처리 필요

이 꽃은 관리만 잘하면 개화가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다. 단 완전개화가 이뤄지면 즉시 시들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또 꽃이 개화가 될 때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면 꽃대가 틀어지니 주의해야 한다. 건조한 환경에 강하며 생육에 적당한 온도는 26~28°C다.

단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저온처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꽃은 피지 않고 생육성정만 한다. 또 보온과 통풍, 유치가 무척 중요하다. 완전개화 후에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그늘에 옮기고 통풍과 습도유지에 신경써야 한다. 꽃이 시들면 꽃대를 잘라주는 것이 좋다. 단 시든 꽃대를 전부 잘라주지 말고 중간 정도만 잘라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 꽃대가 올라와 꽃이 핀다.

가꾸기

수태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 부드럽게 식재한다. 그래야 뿌리가 썩을 확률이 적어진다. 광도는 유료일 경우 5,000lux, 성묘일 경우 20,000lux가 적당하다. 팔레놉시스의 표면은 마르지 않아야 한다. 습도가 높게 유지돼야 생육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단 수태로 식재한 것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잦은 관수는 뿌리를 썩을 수 있다. 팔레놉시스는 수시로 분무기를 이용해 잎과 뿌리에 뿌려주면 좋다. 가을에 7~8°C의 저온처리를 해주면 꽃눈이 생성되며 비료는 5~9월 동안에 월 2회 정도 액비를 준다. 팔레놉시스를 기를 수 있는 최적온도는 20°C, 월동온도 10°C 이상이어야 한다. 새벽이리도 최저 7°C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C 이하가 되면 뿌리가 썩고 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위 온도와 10°C 이상 차이나는 물을 주면 안 된다. 겨울철과 여름철에 주의해야 하고 물주기 전날 저녁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아침에 주는 것이 안전하다. 겨울철에는 기온보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 좋고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약간 시원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 수도물을 바로 주면 수온이 너무 차서 뿌리가 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

분무기를 이용해 공중습도를 높여라.

난은 생태학적으로 지생란과 착생란으로 분류한다. 지생란이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난의 종류로 거의 대부분이 동양란이 이에 속한다. 착생란은 지생란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무, 바위 등에 고착 생활을 하는 종류로 팔레놉시스와 같은 서양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자라며 주변의 습기를 흡수해 생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근이 매우 발달해 있다. 지생란에 비해 공중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놉시스의 생육환경을 분무기를 이용해 다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조금 다른 선물을
받으면 보낸 분이
달라보입니다



도자기랑
나무랑

대신원예(주)
www.callds.co.kr ☎ 02-507-2462

Fax 02-507-2475 / 경기 과천시 주암동 226-6

양재동 꽃시장 상인 추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꽃

山野에 꽃물이 들기 시작했다. 겨우내 온실 문을 꼭꼭 닫아놓았던 꽃집들이 앞다퉁 화분을 내놓고, 화초들에게도 봄벌을 띄게 한다. 봄 햇살 아래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꽃을 키워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힌다. 매번 관리를 못해 화초 하나 사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 무슨 꽃을 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하는 초보가드너들을 위한 가드닝 가이드, 올 봄에는 '나도 가드너'가 되어볼까.

초보 가드너들이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무조건 꽃부터 산다는 것. 그러나 나름 화초 키우기의 고수들은 충고한다.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종종 구매하지 말고, 건강한 화초를 골라 잘 키워라. 지인으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삼목해서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뿌리 하나라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 때 가드너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사기만 하고 방치해서 죽이는 실수는 범하지 마라." 화초는 번식이 잘되고 키우기 쉬운 품종부터 선택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초보자는 파종부터 심는 것보다는 화원에서 모종을 구입해 심는 것이 더 좋다. 키우기가 더 쉽고, 단시간에 꽃을 볼 수 있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5월, 초보 가드너가 되기에 좋은 계절이다.

꽃을 잘 키울 각오가 됐다면 꽃시장을 찾아라. 화초류에 관심이 많다면 서울권에 서는 양재꽃시장이 가장 만만할 터.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꽃을 선택할 수 있어 국내 화훼시장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베고니아

Begonia semperflorens

임이 어긋나게 자라는 데서 '짜사람'이라는 꽃말이 붙은 꽃베고니아는 사철 꽃이 피므로 사철 베고니아라고도 하며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많이 핀다. 브라질에 원산지로 유럽에 소개된 뒤 품종개발이 많이 되었다. 꽃베고니아는 잎을 관상하는 것과 꽃을 관상하는 것이 있으며, 꽃베고니아는 꽃과 잎이 아주 작은 편에 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잎도 착색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쓰인다.

재배 TIP

햇빛과 온도 생육 적온은 10~25℃이며, 여름철 고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햇빛을 많이 받기 하면 꽃이 많이 핀다.

토양 pH 5~6정도의 약산성을 좋아하며,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물주기 물과다로 죽이는 경우가 많다. 베고니아는 줄기와 잎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잎이 처지고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저면관수로 물을 준다. 가격: 3,000원



칼란코에

Kalanchoe blossfeldiana

임이 두꺼운 다육식물로 진녹색 잎에 홀쭉 또는 겹꽃이 무리를 지어 핀다.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이 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칼란코에 단독도 아름답지만 다른 주요 식물을 돋보이게 하는 부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번식이 쉽고, 물이 많이 필요 없다. 칼란코에는 전통적인 약재로도 사용되며, 류마티즘 그리고 염통 치료에 유용하다. 추출물은 면역억제제로 효과가 있다.

재배 TIP

햇빛과 온도 생육 적온은 20~25℃로 여름철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되면 잎이 붉게 변하고 심하면 부분적으로 타기도 한다. 따뜻한 곳에서 서늘한 곳까지 잘 적응하며, 겨울에도 2도까지 잘 견딘다.

토양 통기성이 좋아야 하며, 배수가 용이하며 보수력이 좋아야 한다.

물주기 봄부터 가을까지 흙이 마르면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준다. 그러나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는다. 가격: 3,000원



미니장미

Rosa hybrida

나무높이 약 30~50cm, 꽃의 지름이 2cm 미만으로 꽃이 뭉쳐서 피는 것과 1가지에 1송이가 피는 것이 있다. 번식은 종자로도 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접목번식을 한다. 장미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정(剪定)으로 온실에서서는 여름에 한다. 이때 작고 너절한 가지는 모두 잘라주고, 지면 가까이 총칭한 3~5개의 웃자란 가지만을 40~50cm 길이로 잘라준다.

재배 TIP

햇빛과 온도 양지식물로서 직사광선 또는 밝은 햇빛을 좋아한다. 가능한 하루종일 햇빛에 두는 것이 좋다. 일조량이 풍부해야 새순도 잘 나오고 줄기도 굵어지며, 튼튼하게 자란다.

물주기 겉흙이 말랐을 때 등땀, 꽃이 피었을 때 저면 관수법으로 한다.

병해충 장미는 병해충이 많은 편이다. 흰가루병, 진딧물, 송곳지벌레 등.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격: 4,000원



애니시다

Cytisus scoparius

노랗고 풍성한 꽃이 피는데다 꽃에서 풍기는 레몬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다. 꽃은 5월부터 여름까지 나비 모양으로 나무 가득 핀다. 화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애니시다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양귀달초. 콩과 식물로 노란색 꽃이 유난히 아름다워 노랑콩꽃이라고도 부른다. 애니시다를 말라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통풍 배수 햇빛 관리만 잘해 주면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재배 TIP

빛과 온도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한 여름의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그늘에서 키우면 연중 꽃을 볼 수 있다. 생육 적온은 15~20℃.

통풍 가장 중요하다. 통풍이 잘 들지 않거나 너무 건조하게 관리할 경우 응애가 생기기 쉽다.

물주기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용토의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된다. 물을 줄 때는 흙에만 주어야 한다.

가격: 3,000원



임파첸스

Impatiens walleriana

보통 외국의 집 앞 벽면 장식에 많이 볼 수 있는 임파첸스는 음식이나 공해에도 강하고, 키우기가 쉬워 화단에 유리한 꽃이다. 색깔이 다양하고 모양이 귀여워 과자나 샐러드에도 잘 어울린다. 9월 말경 서양 봉선화 꽃이 지면서 열매가 열릴 때 살짝 만져보면 갑자기 꼬투리가 터져 씨가 다 날아가 버린다. 아이들과 함께 서양 봉선화 열매를 건드려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주 재미있어 한다.

재배 TIP

햇빛과 온도 생육 적온은 20~25℃이고, 중성식물(빛남의 길이와 상관없이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는 식물)로 계절에 관계없이 잘 핀다.

토양 토양은 물 빠짐이 좋고 과습하지 않은 것이 좋다. 화분에 심을 경우 토양은 발효 50%, 모래 20%, 부엽 또는 부숙 왕겨 20%, 퇴비 10%의 비율로 한다.

물주기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한다.

가격: 3,000원

화훼를 살 때 주의할 점

- ❖ 꽃보다 잎을 주의 깊게 본다. 일정한 간격으로 밝은 녹색 잎이 난 식물이 건강하다.
- ❖ 줄기가 굵고 강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 ❖ 꽃잎을 살 때는 현재 핀 것보다 봉오리가 많은 것을 택한다.

사지 말아야 할 꽃은..

- ❖ 잎이 병 들었거나 시든 것은 사지마라.
- ❖ 줄기가 가늘고 약해 보이는 것은 바로 죽는다.
- ❖ 화분과 흙 사이에 틈이 보이는 것은 쉽게 말라버릴 우려가 있다.
- ❖ 꽃이 거의 다 핀 것은 더 이상 꽃을 보기 어렵다.
- ❖ 잎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는 것은 파헤라
- ❖ 진딧물 등의 해충이 보이는 것은 다른 식물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 ❖ 잎의 색깔이 누렇게나 반점 또는 흠집이 있는 것은 병해 우려가 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해요

가든 도구

‘꽃을 처음 가꾸는데 무슨 도구가 필요해,’ 초보 가드너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들의 생각처럼 초보 가드너에게 가든 도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다. 없다고 화초를 가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더 잘 가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집안에 있는 수저, 주걱, 가위, 분무기, 세숫대야 등을 활용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이제 가드너가 되어 보겠다고 마음먹은 만큼, 가드너들이 갖고 있으면 편리한 기본 도구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현대 기술의 발달은 가든 도구도 발달시켰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도구들은 견고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왕이면 예쁜 디자인과 컬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 화초 키우는 재미를 더하면 좋겠다.



상토 사전적 의미로는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흙을 의미한다. 식물의 생육 환경과 성장 조건에 맞는 흙을 경량으로 구입한다.



마사토 거의 돌과 같은 상태의 흙, 다른 배양토와 섞게 되면 배수성과 통기성이 용이해진다. 다육식물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마사토를 꼭 섞는게 좋다.



화분 화초를 기르기 위한 필수 아이템. 기르고자 하는 화체, 채소에 따라 화분의 크기를 정한다.



물뿌리개 말 그대로 꽃과 채소에 물을 뿌리는 데에 쓰인다. 짙은 손으로 만져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림감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게 좋다.



모종삽 화분에 많은 양의 흙을 퍼 담을 때 필요하다. 원예용 모종삽은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 사용하기 편리하다. 주걱이나 펠트병을 이용해 모종삽 대용으로 활용해도 된다.



앞치마와 장갑 분갈이 할 때 흙을 묻히지 않게 해준다. 앞치마는 가위나 꽃삽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가 달린 것이 좋다.



분무기 잎에 물을 뿌리거나 약을 칠 때 필요하다.



전지가위 가지치기를 비롯한 다듬거나, 꽃, 열매 등을 채취할 때 유용하다.



디버(dibber) 종자 심을 흙에 구멍을 내는 도구이다.



재배팩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 채소를 키울 때 유용하다.



캠캠프한 정원 손도구 7종 세트, 가든조아, 가격 1만8천원



크로스백 가든도구 4종세트, 가든조아, 가격 1만5천원

Hot Click

가든 도구, 인터넷 구입 실속 저렴

인터넷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 구매시 인터넷 구매를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지만 대부분은 집안에서 편하게 물건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발품을 파는 수고보다는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수고가 덜하고, 비용이나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교환이나 반품처리도 훨씬 수월해진 서비스 향상도 소비자들이 인터넷 시장을 선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가드닝 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시농부들이 사용하는 가든 도구는 농업인들이 쓰는 전문 농기구가 아닌 인테리어 소품이 주를 이룬다. 물론 양재꽃시장을 비롯한 화훼단지 내에 자재 및 소품 매장이 크게 들어서 있다. 집근처 화원이나 마트, 다이소 등지에 서도 간단한 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소비자들의 눈은 인터넷에 쏠린다. 컴퓨터와 가깝지 않은 시골 어르신들이 아니라 그들은 컴퓨터에 익숙한 도시농부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 눈에는 20인치 네모상자 안에 들어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것을 어찌겠는가. 가드닝 시장과 함께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이다.

가든조아 비롯한 10여개 사이트 인기

본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10여개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의 대표 가든과 이름이 같은 첼시가든을 비롯해 이미 가드너들이에서 유명한 브이가든, 제품에서부터 다양한 재배 정보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가든조아 등이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첼시가든(csgardendeco.co.kr)은 아기자기한 정원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해 눈길을 끌었고, 브이가든(vgarden.co.kr)은 재배세트에서부터 다양한 가드닝 소품들을 판매해서 시선을 모았다.

가든조아(gardenjoa.com)는 조경전문회사 우리꽃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답게 도시농업인을 위한 전문성이 돋보였다. 우리꽃의 보장된 품질의 야생화를 비롯해 채소 종자와 모종, 그리고 다양한 자재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재배방법 및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코너가 유용하다.

인터넷 가드닝 제품 판매 사이트

상호	사이트	판매 제품
가든라이프	http://www.gardenlife.kr	원예자재 및 가드닝소품
가든조아	http://www.gardenjoa.com	모종종자원예용품
미성원예자재	http://misungland.com	원예자재
브이가든	http://www.vgarden.co.kr	재배세트 및 가드닝소품
비에프에이	http://www.btagarden.com	원예용품
식물나라 원예자재	http://www.plantnara.net	원예자재
주다농	http://www.danong.co.kr	원예자재
집과정원	http://www.housengarden.co.kr	정원인테리어소품
청림식물원	http://ci0130.com	플랜트박스
첼시가든	http://www.csgardendeco.co.kr	정원인테리어소품
텃밭세상	http://www.docinongbu.co.kr	텃밭용품
트리안	http://www.treesnshop.kr	실내조경 자재

도시원예전문쇼핑몰
가든조아
www.gardenjoa.com

원예자재팩 10,500원
10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원예자재가 들어있어, 모종부터 원예자재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팩

배란다 채소, 과일 재배팩 원동 10,500원
옥상정원이나 베란다에서 채소 재배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한 팩

플랜트 재배팩 4,500원
이디스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미니정원 세트

미니 플랜트 재배팩 7,500원
김이감 있는 식물용 (무, 양파, 양파 등) 특대형 사이즈

온라인 종합선물세트 사이트

CZMART

봄맞이, 봄에 심을 수 있는 고급종 꽃씨앗 1+1 이벤트!
반드시 상용영역, "1+1" 을 확인하세요!!

예) [1+1] 백일홍 드림랜드 레드, [1+1] 레리굴드 듀랑고 핑크

[1+1 이벤트 품종 리스트]

[포토마토 시리즈]

[레리굴드 시리즈]

[백일홍 시리즈]

[베고니아 시리즈]

[식물 시리즈]

[아일랜드(해발등) 시리즈]

[필라덴스 시리즈]

라투카 세티바(Lactuca sativa)...

무슨 이름일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김춘수의 꽃 중 꽃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적이 있는가. 꽃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면 꽃으로써 존재가 완성된다. 책을 읽다 학명이 나오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 가는 수가 많다. 식물을 다루는 가드너로서 학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식물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것이다.

■ 글·사진_정승환 기자

생물은 종·속·과·목·강·문·계의 7개 분류로 나뉜다. 분류는 간단하게 외관상 즉, 형태적 분류로 시작해서 종피, 수술, 배, 배유 등으로 나누는 발생학적, 화학적 등, 식물 하나로 여러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DNA를 통한 유전자에 따른 분류가 각광을 받고 있다.

식물이름에도 규약이 있다

이런 어려운 분류를 통해 이름을 찾으면 대략 난감이다. 그래서 식물을 발견했을 때 부르는 사람마다 이름이 달랐다. 한두 명 이외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식물을 다르게 부르니 한 식물에 수백 수천 개의 이름을 가졌다. 이런 식물 이름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다. 바로 스웨덴 생물학자 카를로스 린네(1707. 05~1778. 01). 린네는 혼저서 식물과 동물을 간결하게 쓰기 위한 조사항을 만들었다. 린네는 약 8000여종의 식물 이외에 곤충과 포유류 등을 포함한 4,400종을 분류해 명명했다고 한다.

학명 표기는 '이명법'

린네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식물의 이름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법의 시작이다. 린네의 이명법인 속명, 종명 등으로 구성된 것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마치 사람의 성과 이름을 부르는 것에 비유된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이름을 처음 규정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 학명은 반드시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 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속명의 첫 글자

는 무조건 대문자로 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또한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써야 한다. 상추의 학명은 '*Lactuca sativa*'이다. 여기서 *Lactuca*는 속명이고, *sativa*는 종명이 된다.

종명 뒤에 var, sub, form 등을 쓰기도 한다. var는 환경의 영향으로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변종이라는 의미의 'variety'의 준말이다. for는 의도적으로 개량된 품종이라는 의미의 'forma'의 약자이다. 또 cv는 원예품종이라는 cultivar의 약자로 표시한다. spp는 종(species)의 복수로 속내의 여러 종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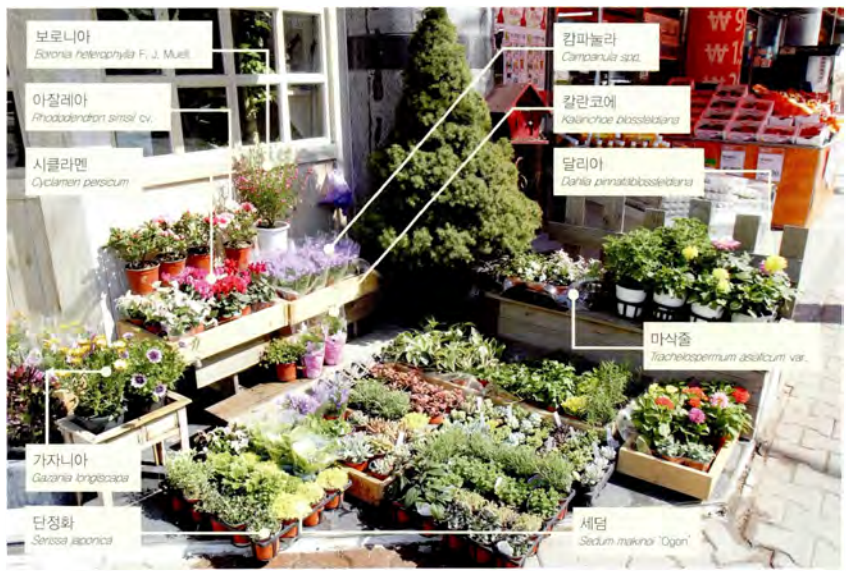
내 주위 식물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정도까지 알면 왠지 주변의 식물들의 이름이 궁금해진다. 특히 내가 매일 먹는 채소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garlic'인 마늘은 *Allium sativum* L.이다. 비타민C가 많은 토마토의 학명은 *Lycopersicon esculentum* Mill.이다. 식물 도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 식물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자. 꽃과 나무의 이름을 불러 존재감을 확인해주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가드너이다.



Allium sativum Linne (또는 L.)

속명 국명 종명 명명자
속명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명법의 시작 기원을 배워 한다.



수원 탑동의 화원 '꽃다비'(031-294-7721). 이 꽃집에서 다양한 식물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온다.

넌 어디서 왔니?

타원형 또는 구형 등의 다양한 종자를 보면 과연 이 씨앗에서 어떤 식물이 태어날지 궁금하다. 종자는 발아하고 수정해 꽃이기는 완성된 작물을 만들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순환과정을 되풀이한다. 많은 다양한 종자에 얽힌 일화가 많다. 종자가 갖고 있는 종자만의 이야기를 전해본다.

자료협조_국립종자원

●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종자는?



옥수수 _ 생산량 측면에서 볼 때 옥수수가 쌀과 밀을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 가장 오래 살아남는 종자는?



밀 _ 저장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분 함량이 5% 이하라면 100년 넘게도 살아남는다.

종자의 생명력이 긴 듯 밀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불로장생을 꿈꾸는 중국이다. 현재 밀은 밀가루의 원료로 쓰여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

● 단 하나의 해바라기 꽃에서 얼마나 많은 종자가 나올까?



해바라기 _ 해바라기는 관상용과 채종용이 있는데 채종용은 러시아에서 많이 심고, 유럽 중부와 동부, 인도, 페루, 중국 북부에서도 많이 심는다. 단 하나의 꽃에서 500~800개의 종자가 나온다.

● 당신은 한 개 이상의 종자로 이루어진 것이 보이나요?



비트 _ 지금껏 종자처럼 율 통불통하게 생긴 비트는 여러 개의 종자가 딱딱한 열매 껍질에 싸여있는 견과로서 여러 개체로 발아된다.

● 피넛(Peanut)은 왜 그라운드넛(Groundnut)이라고도 불릴까?



땅콩 _ 식물체가 성장하는 동안 종자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종자인 땅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한다.

●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 방부제 처리로 사용했던 종자는 무엇일까요?



아마 _ 아마종자(Linseed, flax seed)는 수세기 동안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어져 있다. 곡물조차 알리지 않던 유사이전 주거나 이집트 고분에서 그 씨나 천이 발견돼 약 7000년 전부터 재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종자에는 강력한 항균, 항독 성분 함유되어 있다.

● 이 종자는 발아할 때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



호박 _ 호박종자는 두 개의 자엽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종자가 발아하는 동안 이 양분을 사용한다.

● 2개의 아주 다른 형태의 배유를 동시에 가진 종자는 어떤 종자일까요?



코코넛 _ 코코넛은 하나의 큰 물로 차 있는 종자이다. 배유는 액체인 코코넛 밀크와 고체인 코코넛 과육으로 되어 있다. 배는 딱딱한 내과피 위쪽에 있는 3개의 구멍 중 한 개의 구멍에서 발아한다.

● 살인을 저지를 때 어떤 종자를 사용했을까요?



아주 까리 _ 아주 까리는 매우 독성이 강한 단백질인 'ricin'을 함유하고 있다. 1978년에 불가리아 반체제 인사 조지 마르코프를 런던에서 암살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

● 어떤 종자는 오래 저장할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보카도 _ 아보카도 종자는 '난지장성' 종자로서 만일 수분을 잃게 되면 죽는다. 따라서 수확하자마자 파

종해야 한다.

● 상추 추종자는 언제 발아되지 않을까?



상추 _ 발아시 빛을 필요로 하여 휴면기간이 지난 종자라도 30℃에서 15~30시간 노출되면 2차 휴면을 깨는다.

● 보리종자는 주로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보리 _ 보리는 로마시대 검투사들의 일반식품으로 체력을 키우는데 소비를 했다고 한다. 요즘은 빵의 재료로도 많이 쓰이지만 옥수수 밀과 더불어 보리는 주로 동물의 사료로 이용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생선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위스키 제조에 이용한다.



황환주 교수의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정미원의 아지

아름다운, 美의 정점을 찍다 Butchart Gardens

꽃을 좋아하면서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방문하고 싶은 정원 중의 하나가 부차트 가든이다. 캐나다 동부 밴쿠버(Vancouver)섬에 있는 부차트 가든은 연중 세계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정원이다.



1904년에 부유한 부차트(Robert Pim Butchart)씨가 시멘트 공장을 세우면서 황폐해진 시멘트 공장 주변의 채석장(현재의 sunken garden 위치)에 그의 부인(Jennie Butchart)이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면서부터 부차트 가든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세계 각처에서 수집된 아름다운 관상 조류와 더불어 1908년에 일본정원이 조성되고 이어서 이태리 정원과 장미 정원 등이 계속적으로 조성되어 이미 1920년대에 연중 5만 명이 이 정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한다. 매년 700여 종류, 100만본 이상의 초화류를 이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식물원 전체를 끊임없이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다. 겨울에는 전등과 조명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현재에는 침상가든(sunken garden)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높은 굴뚝 하나만이 이곳이 예전에 시멘트, 타일, 도자기 등을 생산하던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2004년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부차트 가든의 상징인 침상정원

침상정원, 이탈리아정원 등 4개 테마 정원

약 67,000여 평의 면적에 정미원, 침상원, 일본정원, 이탈리아 정원 등 4개의 주 정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관람로가 연중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고 있다. 식물원 입구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수많은 꽃바구니(hanging basket) 장식된 정자가 하나 보이는데, 1939년까지 부차트씨가 관상 조류를 수집하여 기르던 곳이다. 조금 더 가면 왼쪽에 침상정원(sunken garden)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다. 전망대에서 약 15m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침상정원의 아름다운 경관은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침상정원의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지나가면, 1964년에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차트씨의 손자인 이안 로스(Ian Ross)씨가 조성한 로스 분수(The Ross Fountain)가 눈에 들어온다. 분수의 높이는 최대 21m이고 야간 조명장치가 되어 있어 밤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로스 분수 관람 후 약간 경사진 콘크리트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침상가든을 다시 보면서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으로 길을 택하여 조금 가면 인디언들의 조각품인 토템 폴을 볼 수 있고, 여름철 토요일 밤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 연못이 보인다.

분수와 조명이 어우러진 연못



Butchart Gardens monthly check list !

- | | |
|-----|---|
| 3월 | 개나리, 작스민, 조생 벚꽃, 크로커스, 히아신스, 수선화 등 |
| 4월 | 25만 구 이상의 튤립과 수선화가 개화하여 연출하는 경관, 벚나무, 꽃사과, 산딸나무, 조생 철쭉류 등 |
| 5월 | 튤립, 철쭉류, 시베리아 제란폴(wallflowers), 물망초, 시네라리아, 시잔시스 등 |
| 6월 | 만생 철쭉류, 메발류류, 델피늄, 히말라야 청색 양귀비, 구근 베고니아, 등나무, 말발도리, 장미 등 |
| 7월 | 다양한 일년초와 숙근초로 장식된 화단, 장미원, 매 토요일 저녁의 화려한 불꽃놀이, 아름다운 야간 조명 등 |
| 8월 | 구근 베고니아, 달리아, 동자꽃류, 미역취류, 가을 아스터, 수국, 후크시아, 다양한 결이화분류 |
| 9월 | 단풍나무, 월굴나무류, 너도밤나무류 등의 화려한 단풍, 다알리아, 국화 등 |
| 10월 | 12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야간 전등 쇼를 감상할 수 있으며, 1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실(Blue Poppy Conservatory)에서 수선화, 튤립, 벚나무, 가막살나무류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 11월 | |
| 12월 | |



이탈리아 정원의 연못와단



일본 정원의 가을 단풍



겨울정원을 안내하는 인형



수련으로 가득찬 습지원

비전통식 일본 정원

정미정원으로 발길을 돌려 여러 종류의 화려한 정미 품종들을 감상하고 정미터널을 지나면 세 마리의 철갑상어 분수대(Three Sturgeons Fountain)를 볼 수 있다. 이 상어조각들은 동물 조각가로 유명한 시리오 토파나리(Sirio Tolinari)씨가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주조한 것이다. 다음에는 1906년부터 일본인 정원사의 도움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비전통식 일본정원을 볼 수 있다. 작은 시내와 함께 사면에 조성된 이곳은 특히 늦봄에 아름답게 개화하는 히말라야 청양귀비(Meconopsis속 식물)로 유명하다.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하면 부차트만(Butchart Cove)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다다르게 된다. 일본정원을 거쳐서 위로 올라오면 부차트씨가 관상용 오리를 키우기 위해 만든 별연못(Star Pond)과 옛 테니스 코트자리에 조성된 이탈리아 정원을 감상하면서 출구인 기념품 판매소에 이르게 된다.

겨울, 상록 식물과 야간 조명쇼 압권

가족층심으로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는 부차트 가든은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식물원과 다른 달리 다양한 화훼식물을 연중 아름답게 조성하고 관리하여 눈으로 보아주는 정원이라는 면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타 식물원처럼 학명을 표기한 식물표찰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음에는 1906년부터 그림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식물식별센터'를 통하여 식물에 대한 식별 및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관람객을 위한 여러 이벤트와 정기적인 행사를 연중 체계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전후를 하여 개최되는 야간 조명 쇼를 보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도 한다. 부차트 가든은 연중 어느 때 방문하여도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 방문하더라도 다양한 상록식물들과 화려한 불빛 전등쇼가 펼쳐지는 야경을 볼 수 있다. ■



농업사회 발전연구원
부위원장
이원주 농학박사

식물의 영양관리

화초 기르기 달인이 되고 싶다면

창가에 시크라멘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따스한 조명 아래에서 단란한 저녁식사를 나누고 있다. 가난한 유학생은 고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를 그리워하며 거리에 서서 하염없이 이 광경을 훑어보고 있다. 집에 돌아가면 창가에 화초를 기르며 따스한 식탁을 연출해 보리라 다짐한다. 필자가 70년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의 기억이다. 더치(Dutch) 사람들은 창가에 화초, 그 중에서도 시크라멘을 유난히 즐겨 기른다. 돌아와서 시도를 해보았지만 번번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비살비살, 꽃이 많이 아니었다. 한 번은 화초를 길러 파는 화훼전문가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화분을 사다 기르면 왜 죽는 거지? 다시 꽃을 볼 수는 없나?”

“뭐 이런 인사가 다 있어. 몇 판짜리 화분을 몇 년씩 즐기면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이야?” 핀잔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들었던 것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는 이렇게 가르쳐 준다.

“몇 년 기르면 화초가 화분의 양분을 다 먹어서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비료를 자주 줘야해.” 이 점에 대해 우리 어머니의 주장은 다르다. “아파트 화초는 땅 냄새를 못 맡아 죽는 거란다.”

친구의 처방은 비료를 주라는 것이고, 어머니의 처방은 땅 냄새를 맡게 하라는 것이다. 두 방법으로 해 보았지만 화초는 결국 황천길로 가버렸다. 왜 일까?

친구의 처방을 따른 것은 비료를 너무 진하게 타 준 때문이고, 어머니의 처방을 따른 것은 화초가 직사광선에 닿았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화분에 비료를 줄 때는 잿물을 꼭 섞인 물을 얹

게 타서 한 달에 두세 번 준다. 화단에 내려다 놓을 때는 반그늘이 드는 나무 밑에 놓아두면 정말로 화초가 땅 냄새를 맡을 때문인지 화초가 싱싱하게 되살아난다. 정말일까? 어쨌거나 우리 베란다의 화초는 방문객이 놀랄 만큼 늘 싱싱하게 자라면서 화사한 꽃을 피워낸다. 잘 먹여 화초들도 잘 자라고 꽃을 잘 피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따른 것뿐이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화분의 화초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따져보자. 화단에 내려다 놓은 화분은 비를 맞는다. 빗물 속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질소성분이 들어 있다. 공기 중에 80%나 있는 질소가스가 비락이 칠 때 칠

나는 집안에서 고양이와 개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딱 질색한다. 역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거실과 베란다에서 기르는 화초는 꽃향기를 선사할 뿐, 배설물 냄새는 없다. 식물의 배설물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먹는 것이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동물은 사료나 밥 같은 유기물(분자)을 먹지만, 식물은 무기성분을 먹는다. 퇴비를 주면 모두 분해되어 무기성분인 이온으로 변한 다음에야 먹는다. 동물은 유기물을 먹고 유기물의 동을 배설하는데 비해, 식물은 무기성분을 먹고 무기성분인 수소(H+)를 배설한다. 무기성분인 수소는 전혀 냄새가 없다. 뿌리가 배설한 수소는 흙을 산성으로 만든다.



우리 베란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싱싱하게 자라며 꽃을 피우는 화초들. 화초에게는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 비료다.

소비료로 인해 빗방울 속에 녹아 들어간 것이다. 그 보다는 훨씬 적지만 황 성분도 녹아 있다. 이 두 성분은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다. 그러니까 빗물은 아주 얇은 비료물인 셈이다. 빗물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빗물이 흠뻑 젖어 들어지면서 뿌리와 미생물이 만든 이산화탄소와 나쁜 가스를 모두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채워준다. 한겨울 공공 단아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시켜주는 꼴이다. 게다가 빗물은 화초가 흙에 싸놓은 동요증을 말끔히 청소해 준다.

“화초가 동요증을 쓴다?” 귀하는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물은 줄 때 흠뻑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비료를 준다. 그렇다고 꼭 잿물 섞인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꽃집에 가면 좋은 화초비료들이 많다. 화초들에게는 사람보다도 비료가 더 필요하다. 그래도 3~4년에 한 번은 원예용 심토로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 흙이 강한 산성으로 가기 때문이다. ■

화초를 분갈이를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놓아두면 흙은 아주 강한 산성으로 인해 뿌리를 해친다. 제 배설물에 제가 당하는 꼴이다. 분홍빛 꽃이 피는 수국이 좋아 사다 몇 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보랏빛 꽃이 핀다. 흙이 산성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흙의 산도(pH)에 따라 꽃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수국이 유일하다. 수국은 산성에서는 보랏빛 꽃이, 알칼리에서는 분홍 꽃이 핀다. 꼭 분홍 꽃이 보고 싶다면 석회비료를 톤스스로 두어 술 뿌려주면 다음번에는 분홍 꽃이 핀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화초를 잘 기르고 싶다면 물을 줄 때 흠뻑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비료를 준다. 그렇다고 꼭 잿물 섞인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꽃집에 가면 좋은 화초비료들이 많다. 화초들에게는 사람보다도 비료가 더 필요하다. 그래도 3~4년에 한 번은 원예용 심토로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 흙이 강한 산성으로 가기 때문이다. ■

Flower & Music Festival

남해 원예예술촌

출.사진 김지태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로 되어 있는 독일마을을 끝까지 올라가 보면 남해원예예술촌이라는 곳이 보인다. 독일마을을 둘러보느라 지친 사람들은 그냥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원예예술촌에 들어가 보면 독일마을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라넡쿨러스



아네모네



삼색조팝

봄이 완전히 무르익는 5월 즈음에는 갖가지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날 예정이다. 벚꽃길에 무리지어 라넡쿨러스가 무리지어 피어있다. 라넡쿨러스의 꽃말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낍니다'이다. 그래서인지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봄 축제를 맞아 많이 심어 놓았다. 원래종은 선명한 노란색으로 5장의 꽃잎을 피우는데 원예종은 접꽃종이 대부분이다. 그 옆에는 사랑의 아픔을 의미하는 아네모네가 화려하게 피어있다. 삼색조팝은 한 나무에서 세가지 색의 잎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삼색조팝이라고 한다. 6~7월에 개화하고 줄기와 잎은 약용으로 쓰인다.



▲ 델란트 맹오름씨 원예인 김보옥씨 부부가 조성한 프렌치 가든



▲ 그리스풍 정원 린궁

남해원예예술촌은 공공정원과 조합원들 개인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정원은 레이디스 가든, 레인보우가든, 보트가든, 글라스가든 등 테마별로 이루어진 가든들과 장미터널을 비롯해 벚꽃길, 매화길 등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꽃 군락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원은 핀란드풍 스파정원, 뉴질랜드풍 토피어리 정원, 스페인풍 조각정원, 네덜란드풍 풍차정원, 프랑스풍 풀꽃지붕 정원, 스위스풍 채소정원 등 다양한 컨셉으로 조성된 21개의 주택과 그에 딸린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공간이란 점이 원예예술촌의 가장 큰 특징이다.

▼ 네덜란드식 풍차정원





석부작정원

원예예술촌이 유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탈린트 박원숙 씨가 운영하는 카페정원이지만 가장 먼저 이 곳에 정착한 터주대감은 <제빵왕 김탁구> 등으로 유명한 탈린트 명호림 씨다. 명호림 씨와 부인 김보옥 씨는 귀촌을 꿈꾸며 여행을 하던 중 남해 바로 이 곳에 필이 꽃혀서 원예마을촌을 구상했다고 한다. 부인인 김보옥 씨가 손바닥정원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원예인이어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이 집단촌을 구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돌을 이용해 폭포와 연못을 조성한 석부작정원, 독일 동화 브레멘 음악대가 살고 있는 듯한 브레멘 정원 등 갖가지 테마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보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

원예예술촌 Rare plants



할미꽃

고개 속인 할미꽃 봉우리 위로 아얀 백발이 나와서 민들레를 핏자람 피지나간다.



디오르포세카

아프리카가 원산으로 4~6월 경에 흰색, 연한 홍색, 자주색 빛깔의 꽃을 피운다.



벌개미취

제주도와 경기 이남의 산간계곡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한국 특산식물이다. 조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끊임없이 피고 진다.

FLOWER & MUSIC FESTIVAL

원예예술촌에서는 꽃과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5월에 꽃밭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의 테마는 '꽃이 전하는 사랑. 꽃이 들려주는 선물'이다. 김자경 오페라단, 유병덕 재즈트리오, 희망새 중창단, 삼동초등 챔프로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각기 개성있는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꽃 중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가 만발할 시기라서 더욱 낭만적인 축제가 될 듯싶다. 원예예술촌에서는 지난해 장미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이 높았던 점에 착안해 올해 장미테일을 더욱 확장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COME AND VISIT

남해 원예 예술촌 5월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오후 6시 30분에 폐장한다.
매달 개장과 폐장시간이 다르니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http://www.housengarden.net>
☎ 055-867-4702

원예예술촌 이용안내

입장료

개 인		5,000원		2,000원		2,000원		4,000원
단 체	일반	4,000원	청소년 군인	2,500원	어린이	1,500원	경로	3,000원
군 민		1,500원		1,000원		500원		

* 단체 20인 이상

가는길

▶ 남해대교방면

남해고속도로 진교IC, 하동IC → 남해대교 → 남해읍 → 창선, 삼천포 연륙교 방면 → 이동교차로 → 난령초등학교 → 물건방조 어부림방면 → 삼동초등학교 → 미조방면 → 원예예술촌

▶ 창선, 삼천포대교방면

남해고속도로 사천IC → 창선, 삼천포 연륙교 → 창선교 → 미조방면 → 원예예술촌



Interview

가드닝(Gardening)… 인간과 식물이 공존하는 채널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드닝”

■글, 사진, 정승환 기자

정음의 한 자생화교실, ‘자생화의 이해와 꽃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송정섭 박사 강의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베풀어와 바쁘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연구와 강의 등의 업무로 가장 분주한 사람이 송 박사이다. 농진청 도시농업연구팀의 수장이고 국내 자생식물연구에 매진해 오는 송 박사의 수원 연구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관엽류와 꽃들이 먼저 반겼다.

자생화 교실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러한 인기 비결이 무엇입니까.

“참석자들의 수업분위기가 너무나 진지해요. 특히 오랜 세월 도시생활을 한 나이가 있으신 분일수록 열심히 참여해요. 나이 70세가 넘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귀농 교육을 신청하거나, 며느리와 함께 수업 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 열정에 놀라울 뿐이죠. 도시생활에 지친 이유도 있었지만 자연을 향한 귀소본능도 한 몫한 것이라 봐요.”

연구와 강의 등을 포함해 하루 일상이 꽃과 함께 하시는데, 가정에서도 정원을 가꾸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파트에 살다 화성에 정남 저수지 근처로 이사 왔어요. 막내가 대학 입학할 때 들어왔으니 벌써 9년이나 됐네요. 산속의 전원마을이라 생각하면 되요. 야생화 정원으로 테마를 잡았지만 이런 정원을 나만 좋아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2011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정원문화대상에 접수를 해봤죠. 우수상이라는



강의, 학회, 연구업무로 바쁘게 움직여 지칠 법도 하지만 ‘식물과 함께라는 생각에 머릿속은 쉼다’라고 말하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송정섭 박사.

송 박사가 말하는 ‘꽃(식물)과 함께 살아야 할 5가지 이유’

1. 사람은 꽃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물
2. 꽃향기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3. 꽃은 새집중후균을 없애준다.
4. 가족 간 화합과 음식물 파쇄를 막아준다.
5. 선진국의 행복 척도는 ‘꽃의 사용량’이다.

구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인 업무로 상은 많이 받아왔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보진 처음이라 기분이 묘했어요.”

혼자 다 관리하시나요.

“나는 회사 출근하느라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집 야생화 테마 정원의 실제 원장님은 아내죠. 시상에 아내와 같이 올라 수상했어요. 이날 아내한테 점수 좀 따죠. 사실 저희 집 정원은 동네 자연학습장이고, 자연과 교감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요. 인간은 여름에 냉방을 위한 많은 에너지를 쓰며 환경을 훼손하지만, 자연은 묵묵히 순응하며 견뎌내죠. 이래저래 식물은 우리의 참소식이예요.”

야생화 가든이라...야생화만으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롭습니다.

“물론이죠. 봄에는 산수유,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구절초, 겨울에는 맥문동 등 우리 산야에 나는 야생화만으로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개인 주택에 정원

이 없다면 아파트 정원이나 학교정원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가꾸는 것도 좋아요. 초본류들은 종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그늘이나 벌의 정도를 판단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별유가 있다면 작은 연못을 만들어 수생식물도 키워보면 곤충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이 되요.”

자연과의 교감, 이러한 매력에 도시민들이 가드닝에 빠져드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미꽃을 보면서 ‘너는 4월에는 아름답지만 6월에는 참 별 볼일 없구나’하면서 이야기를 건네봐요. 강의를 하면서 보통 200종의 식물의 이름들을 일주일애 한 번씩 불러주게 되요. 이때 교감을 하는 거죠. ‘꽃과 벌 중 누가 누구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벌이 꽃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내면을 들여보면 꽃이 벌에게 선택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이 호모사피에스(Homo sapiens)이고, 할미꽃은 풀사틸라속 코레나종(Pulsatilla coreana)이죠. 자연선택 단계 구성 총으로 보자면 할미꽃과 사람은 1/n 확률밖에 안 되요. 사람입장에서 꽃을 보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식물과 사람이 같은 계급 상태임을 인식하는 눈을 가지게 되는 순간, 가드닝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이게 가드닝의 핵심이라 봐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드닝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연과 교감한다는 것을 뜻해요. 씨앗 뿌리고 물 주고, 정원에서 펼쳐질 꽃과 곤충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른 봄에 복수초가 꽃눈을 만들고, 내년에 꽃을 제대로 피기 위해 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산수국이 가짜꽃을 만드는 이유, 상사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내리사랑 하는지, 개암나무는 왜 잎꽃이 수꽃 위에 달려 피는지... 가드닝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며 자연의 일부를 이해하며 산다는 것은 축복 받는 일이에요.”

최근 가드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가드닝 열풍’이라고까지 표현 하고 있는데...

“가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죠. 단지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 크게 번지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택단, 공동정원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나무를 그냥 심는게 아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꾸미고 있어요. 동

별로 콘테스트도 하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말마다 식물을 볼 수 있는 산과 들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에 대한 동경과 내 집 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이 되기 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죠. 2만불 넘어선지 10년이 되니 생활형태가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중의 하나가 가드닝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경각본능, 재배본능이 들어 있어요. 보통 달력을 보고 입춘을 알지만 나는 산수유 꽃이 피어야 우리 마음에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등학교 수업에 자연학습장에서 수세미꽃과 호박꽃 등을 관찰하며 공부하는 학생과 딱딱한 교실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교해볼까요. 보통 사람의 심성은 4~7세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두 부류는 서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결국 가든의 핵심은 교육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드닝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연과 교감한다는 것을 뜻해요. 씨앗 뿌리고 물 주고, 정원에서 펼쳐질 꽃과 곤충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른 봄에 복수초가 꽃눈을 만들고, 내년에 꽃을 제대로 피기 위해 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산수국이 가짜꽃을 만드는 이유, 상사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내리사랑 하는지, 개암나무는 왜 잎꽃이 수꽃 위에 달려 피는지... 가드닝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며 자연의 일부를 이해하며 산다는 것은 축복 받는 일이에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은 어떤 곳?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체계를 다지며, 미래지향 기술 개발을 위해 원예·채소 전문 박사급 연구원 10명이, 3개의 전문연구실을 운영하며 연구하는 곳이다.

● 환경개선연구실

식물을 이용한 환경 개선을 연구하는 곳으로 공기정화, 음이온, 보습화 등 식물의 기능성 및 실내 이용 효율 증진을 연구한다.



▲절화의 꽃 색깔, 천연향, 품질이 오래 유지되는 보존화 기술

▼식물가공산업에 이용될 식용꽃의 온도별 변화(왼쪽부터 팬지, 삼색 제비꽃, 금잔화(2종))



● 사회원예연구실

가족 농원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위한 사회원예를 연구하는 곳으로 한국형 텃밭모델, 커뮤니티 가든 모델, 원예치료 등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빛이 부족한 가정에서 쉽게 채소재배가 가능한 심지관수형 LED채소재배기

● 도시녹화연구실

도시공간의 녹화를 연구하는 곳으로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등의 그린웨이 조성기술을 연구한다.



▲실내 유해물질(VOC)을 제거하는 공기정화식물로 만든 BioWall



▲초등학생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메뉴얼



▲옥상정원용 초본식물을 통한 모델 제시



▲간편 시공 옥상녹화용 식물매트



'약이 되는 잡초 음식, 숲과
물을 접시에 담다'
저자 변현단

Interview

들녘의 잡초 밥상에 오르다

■글_소순복 /사진_정승환 기자

“자연에서 버릴 것은 없다.
잡초도 음식과 약재로
쓸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잡초'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1970년대 나훈아의 노래 '잡초' 이후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국민 관심 속 화두가 된 것만도 화제인데, 신문 상층까지 해 더욱 이채롭다. 40년 전의 잡초는 이랬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렇듯 향기도 없는 무심한 존재. 그러나 지금의 잡초는 달라졌다. 약초로 귀하신 몸이 되었고, 찬이 되어 밥상에도 올라가고 있다. 잡초 밥상, 잡초 농장, 이제는 잡초 식당까지 등장하면서 가정에서는 물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부상했다. 바야흐로 잡초 시대를 열고 있다.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건강한 잡초 밥상

누가 알았을까. 잡초가 작물이 되어 이렇게 귀하신 몸이 될 줄을. 그 잡초의 신묘 상성을 주조한 인물이 바로 변현단 작가이다. 2010년 '약이 되는 잡초 음식, 숲과 물을 접시에 담다'(들녘출판사)'를 출판하면서 전국에 잡초 바람을 몰고 온 장본인이다. 그에 따르면 쇠비름, 질경이, 엉겅퀴, 개망초, 원추리, 어성

초, 씩부쟁이, 강아지풀 등. 심지어는 토끼풀까지 먹을 수 있다. "인간 가까이에서 자라는 잡초들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잡초가 작물을 옆에서 생존하려면 독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사는 생물일수록 독이 많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일단 허풍으로 맛을 보자. 독하다 싶으면 인 먹으면 그만이다. 독은 과하게 먹을 때 생긴다." 그는 특히 봄에 나오는 잡초는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름과 가을 잡초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독을 품게 되지만 데치거나 삶아서 혹은 물에 담가 독을 빼면 먹을 수 있다고, 이제 삼추와 배추 등 재배식물에서 눈을 돌려 숲과 들에서 자라는 잡초를 보자. 지천에 널린 것들을 채취해서 찜 팔라 즐기면 된다.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잡초는 건강한 제철 밥상을 책임지는 일등공신이라며 변 작가는 잡초 예찬론을 펴는데 거침이 없다.

토종 전통 농사법으로 잡초의 신비도 캐냈다

변 작가, 그는 왜 잡초 예찬론자가 되었을까. 그는 현재 귀농하여 전남 곡성 산골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와 삶의 철학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 촌민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는 곡성으로 오기 이전, 인터넷 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경기도 시흥에서 연두농장을 운영한 바 있다. 그 연두농장 멤버 8가구가 함께 내려와 이곳에 터를 잡았다. '최소한의 화폐로 행복하게 살기.' 바로 그들 삶의 철학이고, 연두농장의 모토이기도 하다. 지금은 연두농장 7가구가 그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립적 삶을 추구하고 있다.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며 자연적 삶을 살고 있는 그는 농사에서조차 '4無 농법', 바로 토종 전통 농사법을 고집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쓰지 않고, 이와 함께 비닐을 치지 않는다. 굳이 멀칭을 하지 않아도 작물에 방해가 되지 않아, 그대로 두고 게으름을 피웠더니 오히려 작물을 재배하는 데 더 이롭게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해 태풍이 발생했다. 그런데 잡초가 자란 곳에 있는 작물은 무너지지 않았다. 토양이 유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뭄에도 견뎌냈다. 잡초가 뿌리를 먹고 있어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지시대 역할을 해 주었고,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옆에 있는 작물에게도 수분 공급을 해주더라. 자연의 원리, 식물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잡초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공부를 했다. 결국 책까지 펴내게 된 것이다. '숲과 들...' 이 책이 벌써 4권째. '연두, 도시를 경작하다' 사람을 경작하다'부터 소박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현재 잡초 관련으로는 두 번째 책을 출판 준비 중이다. '숲과 들...'은 이미 베스트셀러. 9쇄가 되어 웰빙 필독서가 되었다.

귀농, 자기 자신을 알고 떠나라

귀농 10년차, 그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충고한다. "자기 자신을 알고 떠나라. 도시민의 소비적 습성을 버리고 귀농 귀촌하라." 귀농 귀촌에 대한 환상이나 도피만을 가지고 떠난다면 실패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철저한 사전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귀농 결코 쉽지 않다. 도시적 힘든 삶을 피해 귀농을 생각하지만 농사일을 하는 농업인의 삶 역시 고되고 힘들다. 다른 모습이지만 생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귀촌은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되돌아갈 곳이 없기에 오히려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하는 데에는 진화위복(?)이 되고 있는 셈. 정부의 적극적인 귀농정책 역시 촉매 활성제가 되어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삶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런 삶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궁극적 지향점은 '자립'이다. 그는 현대 기계화된 문명을 거부하고, 식의주를 손수 해결하는 생활 방식으로의 변혁을 꿈꾸고 있다. 21세기의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행복하다. 더불어 세상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농사를 짓고, 책과 글을 쓰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현대 문명이 지향하는 삶의 목적지도 그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지 않을 텐데, 사고와 살아가는 방식은 참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다. 인터뷰 후에도 그에게서 전해지는 자연의 냄새가 여운처럼 남는다. 신선하다. ■

변현단 작가의 '잡초, 밥상에 오르다'는 다음 루부터 연재, 잡초 음식 먹는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변현단 작가가 전하는 귀농 준비는 이렇게...

- 귀농 이유를 분명히 해라.
도피인지, 도시적 삶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충전하기 위한인지 귀농 이유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살고 싶은 곳을 정해라.
산과 물, 어느 곳에 인접할 것인지 정해라. 선호 지역에 맞는 행정구역은 도, 군, 읍 단위로 좁혀가며 선택해라.
- 자신의 조건과 자본능력을 파악해라.
예를 들어 자동차의 유무에 따라 정착지도 달라진다. 산골 또는 대중교통이 닿는 곳, 농사를 지을 거라면 비옥한 토지 인근에 정착해라.
-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정해라.
주택유형도 선택해라. 집을 지을 것인지, 기존 시골집을 개조할 것인지, 컨테이너 박스 등을 이용할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잡초 별미 개망초.

살짝 데쳐 소금만
넣어도 이색 풍미



도심에서 버려진 나대지나 공터에 가만 어김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망초. 그러나 개작로 시작되는 말은 어디든 어감이 좋지 않다. 개망초 역시 1910년대 일제치하에 들어가면서 유독 여기저기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서 망할 망자를 넣어 망할 놈의 개망초가 되었다고도 한다.

개망초는 손으로 잎가지를 뜯다 살짝 데쳐 소금만 넣어서 먹어도 색다른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생리활성에 무조건 도움이 되므로 생즙으로 내어 먹어도 좋다. 자체의 풍미를 즐기려면 소금만 넣어서 먹고, 보다 부드럽게 먹고 싶으면 찹기름에 깨를 살짝 무쳐 먹으면 된다. 초고추장에 무쳐서 먹으면 초고추장의 맛이 더해져 또 다른 맛을 낸다. 잎을 따서 나물로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잎이 약간 세다고 생각하면 된장국으로 끓여 먹는다. 고깃국에 넣어 먹기도 한다.

잎을 뜯겨 먹기도 하지만 나중에 꽃이 피면 꽃과 함께 뜯겨 먹는 게 진짜 별미다. 좀 쉼 있는 말려서 겨울이차로 마셔도 좋다. 6~7월에 이르러 꽃이 피면 꽃을 따서 채반에 놓아 그늘에 말린다. 그늘에 말린꽃으로 꽃차를 내어 마시면 '들꽃 향기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대림원예종묘(주)
김광준 대표

Interview

국내 묘목시장의 트렌드 리더 대림원예종묘(주)

■ 글, 사진, 최형호 기자



블랙초크베리(아로니아)는 대림의 주력 상품 중 하나다.

꽃이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기뻐했나, 적어도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이 대림원예종묘이다. 양재동 꽃시장이 화해 중심 시장이라면 과천화훼단지 내 대림원예종묘(주)는 묘목 중심 도매상이다. 지난 17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종묘회사로 군림했고, 국내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드너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꽃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8000여평의 국내 최대 전시 매장은 굳이 꽃을 사지 않더라도 아이와 함께 봄나들이에 나선 심춘객들에게도 최고의 자연 학습장으로 안성맞춤이고, 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훌륭한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처가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 지금이 농사철로 말하면 '농번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문 전화가 쇄도했고, 소비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바쁜 와중에서도 가까이 인터넷을 마다하지 않은 김대표. 단순한 그의 일면이었지만 그의 첫인상은 더 넉넉함으로 다가왔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식물의 자연향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에게서는 자연의 냄새, 사람 냄새가 났다. 도시인들이 그리워하는 향이다. 매장 곳곳에서도 오너의 마인드가 묻어나는 듯했다. 바로 이것이 소비자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일 터. 김광준 대표와의 만남은 그렇게 유쾌하게 시작됐다.

대림종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준다면...

대림원예종묘는 조경수, 묘목 등 각종 종자를 납품하고 있다. 상록수, 활엽수, 산림수 등 산림청 산림과학원 연구진과 정보교환을 통해 한국 향토

고유수종 및 신품종 개발을 하고 있다. 또 이 분야 선진국인 중국, 일본, 유럽 등 외국 업체들과도 교류해 새로운 수종을 도입하기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 현재 8000여평의 전국 최대 전시판매장을 마련해 다양한 상품을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림종묘는 또 전국의 농가와 협력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고품질의 종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려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 기후, 토양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수종을 선택하고 있으며, 재배관리와 판매까지도 알선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수종을 개발, 생산, 수출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업체가 되고자 한다.

주요 고객층은 어떤 사람들인가...

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림종묘는 특정 제품을 주력해서 판매하기 보단 상록수, 활엽수, 울타리 덩굴식물, 산림수, 잔디 등 각종 수목 및 야생화 종자를 취급하는 전문 업체다.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원 만들기엔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식물들을 판매하다보니 어린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층이다.

한국의 정원은 현재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기다. 정원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원 발전사를 설명해 준다면...

60년대 초반 부유한 집에 하나 둘 정원이 들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식물이 다양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분재 소재로 된 난초 등 관상용 식물이 전

부였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베란다 정원을 활용하려는 가정이 늘면서 베란대에 난초뿐만 아니라 각종 야채를 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식물이 상추다. 지금은 상추, 치커리 뿐 아니라 다양한 식물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일부 부유층만이 정원을 가꿀 수 있다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국내 사회에 '웰빙 열풍'이 불면서 각 가정의 베란다 정원에서 '일명 '월령 과수'라 불리는 분재소재 식물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묘목이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다. 이들 식물은 관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직접 따서 먹을 수 있어, 식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010년 영국의 시장 규모는 8조 원을 넘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정원 산업 발전은 아직 미비하다. 그 원인에 대해...

정원 산업의 관건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 정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만큼 정원 구성요건 제품소비가 높아야 국내 정원 산업이 발전하리라 본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2010년 기준 일본 화훼 원예 규모는 약 9400억 엔, 경지면적 3600헥타르에 달할 만큼 그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일본인들은 꽃 소비가 높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정원과 정원역사를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향작용을 거쳐 지금의 정원 시장을 구축했다.

단지 식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정원 문화'를 판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됐다. 문화가 산업화 될 때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록 유럽 경기 침체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진 않지만 정원 산업시장 만큼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는 영국 정원문화가 산업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산업화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영국 특유의 '풍경식 정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꽃에 대한 시각이 회의적이다. 일각에서는 꽃을 단지 시치미용으로 보기로 한다. 행사 때마다 보내는 화환을 과소비로 여기는 이들도 많다. 또 일부는 식물을 오래오래 키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 새로운 품종을 소비하는 데는 인색하다. 중요한 것은 정원을 구성하는 제품 등이 정원을 구성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국의 정원 산업이 발전하리라 본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정원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한다. ■

유실수 Hot 아이템

1 개량개암나무(헤이즐넛)

(Corylus heterophylla var. thunbergii)

야생종을 교배하여 새롭게 개발된 평균 품종으로 기존 종보다 열매가 2~4배 크며 많이 달렸다. 토지 적응력, 내한성, 병해충에 강하며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재배 가능하다. 아직 국내에는 개량개암 재배농가가 전무한 실정으로 지금 시작한다면 다른 과수보다 소득 높은 유망종이다.

가격 1년생 - 8000원,
2년생 - 1만5000원



2 블랙초크베리

(Aronia melanocarpa)

4~5월 흰색 꽃이 피고 8~9월 열매가 열린다. 병해충이 없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관리가 용이하다. 지구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어 앞으로 경제 작목으로 유망하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당뇨 노화방지 시력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

가격 실생 1년 - 800원, 실생 2년 - 1500원,
삼목 1년(개량종) - 2000원,
실생 3년 결실수 - 6000원



3 블루베리

(Vaccinium spp.)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블루베리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노화방지 및 암예방 효과에 도움을 준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일반 과수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분이 들어 있어 시력에 큰 도움을 준다. 개량된 품종이며 다과성으로 나무 전체에 과일 덩어리로 달릴 정도로 많이 열린다.

가격 엘리자베스 2년 포트 5000원, 엘리자베스 7차 포트 1만2000원,
스파르탄 7차 포트 1만2000원, 캔들라 2년 포트 6000원

EVENT

대림원예종묘는 2013년 **춘기 기념행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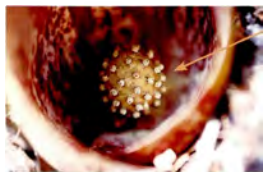
7만원 이상 묘목을 구입할 경우 **택배비 무료**
(단 피트모스, 상토, 퇴비, 펠라이트, 잔디는 금액에 상관없이 착불)이며,
30만원 이상 구입시 전정가위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대림원예종묘 www.dailimseed.co.kr / 전화 : 02-575-5933



대림 종묘사 내부.

불점포의 강한 호흡열로 눈을 녹이는 얇은부채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긴 얇은부채의 꽃

대부분의 꽃들은 화려한 꽃잎과 꽃받침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얇은부채의 꽃은 육수화서라고 하는 둥근 모양의 꽃차례에 암술과 수술만 다닥다닥 붙어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른 봄에 피는 얇은부채의 꽃은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겼는데, 이 꽃 주변을 포(苞)가 싸서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 얇은부채의 포는 둥글고 넓적해서 부채 모양을 닮았고, 또 어떻게 보면 끝이 뾰족하고 둥근 모습으로 떠오르는 불꽃 모양을 닮기도 해서 불염포(佛焰苞)라고도 불린다.

얇은부채의 탐사

얇은부채와 예기얇은부채는 꽃과 잎이 서로 엇갈려 피기 때문에, 이른 봄과 초가을에 이들을 각각 찾으러 가면 만날 수 있다. 얇은부채는 이른 봄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었다가, 꽃이 집 무렵 4월쯤에 잎이 돋는다.

예기얇은부채는 봄부터 잎이 먼저 돋아서 자라다가, 8~9월쯤 가서 잎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갑자기 꽃이 불쑥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다. 예기얇은부채의 크기는 얇은부채의 1/3쯤 되고 아주 작으며, 표면이 반들거리고 광택이 있는 점이 다르다.

예기얇은부채는 대관령 이북의 강원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얇은부채는 산의 고도가 낮은 곳에서도 자라지만, 얇은부채와 예기얇은부채의 꽃이 황색인 노랑얇은부채와 노랑예기얇은부채도 야생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문 희귀종이다.

예기
얇은
부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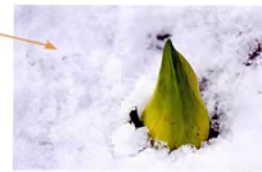
얇은
부
채



글 · 사진_이명호
들꽃사랑연구회 회장
두산백과사전 식물부문 집필위원
1980년부터 32년째 야생화사진 촬영 및 연구
이명호의 야생화(<http://www.skyspace.pe.kr>)

강한 호흡열로 눈을 녹이는 얇은부채

이른 봄 꽃이 필 때 얇은부채를 관찰해 보면, 꽃이 필 때 발생하는 강한 호흡열로 주변에 쌓인 두꺼운 눈을 녹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른 봄 험하게 꽃대를 피워 올리기 위해 지난해 뿌리에 저장했던 양분을 한꺼번에 소비하는 것이다. 대략 15cm나 되는 두꺼운 눈을 15cm의 폭으로 녹이는 모습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꽃이 필 때 일시적으로 방출하는 호흡열이 얼마나 강력 한가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다. 4월쯤 꽃이 지면서 돋는 얇은 식서히 광합성을 하게 되고, 양분을 만들면서 뿌리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꽃이 필 때 또 그 양분을 한꺼번에 소비 하면서 강력한 호흡열을 내뿜는다.



◀ ◻ 노랑예기얇은부채



▼ 얇은부채(열매)



▲ 얇은부채(잎)

▼ 노랑얇은부채(잎)



◀ ▲ 노랑얇은부채



얇은부채의 특성

불염포로 둘러싸인 둥근 꽃차례에 작은 꽃이 대략 100여 개씩 모여 달리는데, 각각의 꽃에는 수술과 암술이 모두 있지만 수꽃과 암꽃이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같은 꽃 속에서 가루받이를 하면 유전적으로 불리한 자손을 남기게 되는 자원의 섬리를 피하려는 식물의 특성이 있다. 열매는 둥글게 모여 달리는데 마른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골이 깊게 파이면서 여름에 김붉은 색으로 익는다. 결실률이 약 10% 정도로 매우 낮아서 열매를 보기는 좀처럼 힘들다.

얇은부채의 무리들

얇은부채의 포는 대개 자갈색(紫褐色)이지만, 노랑얇은부채의 포는 연한 녹색을 띠는 노랑색이다. 노랑얇은부채는 일제시대 때 일본학자의 조사 기록이 있을 후 근래에 경기도의 어느 산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는데, 촬영된 사진이 제대로 도감에 올라보지도 못한 채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근래 2년 동안에 걸쳐 노랑얇은부채를 사람이 산으로 파서 옮긴 흔적이 역력한데, 이 식물은 자생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가끔 멧돼지나 설치류가 뿌리를 파먹는다고도 하지만, 사람의 의해 남겨진 훼손 흔적과는 역력히 구별이 된다. 예쁘게 기르기 위해 파갔다고 하겠지만, 야생식물은 자리를 옮기면 죽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훼손시킨 사람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할 일이다.

귀한 식물의 자생지를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모두 잃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깝다. 도감 기록에도 없는 노랑예기얇은부채는 예기얇은부채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필자도 딱 한 송이만 확인을 하였다. 심마니가 몇 년씩 찾던 산삼을 만났을 때보다 더 진한 감동을 물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귀한 꽃 한 송이를 찾아서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는 몇 년 아니 몇 십 년 동안을 카메라를 메고 산속을 찾아 헤매고 다니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생지 보호

야생화는 역시 태어난 그 자리에서 피고 지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인공적인 재배지는 자생지의 독특한 환경, 즉 기후, 토양, 강수량, 일교차, 습도, 햇빛의 양 등을 모방할 수는 없다. 야생의 꽃은 자생지에서 자라야 하고, 원예종 식물은 사람이 공을 들여 재배지에서 예쁘게 길러야 한다. 야생의 식물이 자생지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돕도록 하자! ■

도시와 시골의
이중생활

박선영 김양수 부부

조물주는 자연을 화선지 삼아 큰 붓으로 일화를 그었다. 흥천 9경중 하나인 금학산 아래로 구불 구불 흘러가는 흥천강의 모습은 조물주의 선물 같다. 신년 연화장에서나 본 듯한 수목화의 절경이 실재가 되어, 시인묵객의 마음도 사로잡을 법한 비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갈길 바쁜 하루의 해까지 발갈게 달아오른 채 산턱에 걸쳐 있는 모습은 천하제일이다.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만한 힘이 되는데, 그 자연 풍경을 앞마당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오죽할까. 주중에는 도시인으로, 주말에는 이곳 흥천에서 농부가 되어 살아가는 부부 박선영(55) 김양수(58)씨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행복해 한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은퇴인데 이 부부는 웰빙인지 은퇴 설제로 신바람이 나온다. 테마 동산을 만들어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자연과 함께 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 글 소순복 기자 / 사진 정승환 기자

400평 땅에서 키워가는 도시농부의 꿈

박선영 김양수씨 부부는 2011년 가을부터 이곳으로 옮겨와 도시와 시골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시간만 있으면 지리산을 비롯해 횡성 단양 남원 등 전국을 한 가번테 없이 돌아다녔지만 인연이란 것은 묘했다. 단지 어디선가 날아오는 풀 베는 비릿한 냄새가 좋아 이곳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 부부는 흥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 땅 400평을 매입했다. 먼저 컨테이너 박스 집을 지었다. 15톤 덤프트럭 50대 분의 황토흙을 실어다 밭을 조성했고, 20대 분의 바위로 암석가든을 조성했다. 그렇게 1년 만에 산비탈 공터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변해갔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재배 발아한 밭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년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 농사꾼 흉내는 내지 않겠는가." 부인 박선영씨는 그렇게 좌충우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자연인이 되어 갈 것을 믿고 있다. 올해는 그곳에 약용 식물과 지인들이 오면 고기라도 구워먹을 수 있도록 썬채소, 그리고 야생화를 심었다. 도라지 더덕 산마늘 당귀 방풍 잔데 등을 이미 심었고 야콘 눈개승마(울릉도 특산물) 등은 주변에 놓은 상태,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옥

수수 고구마 등도 넉넉하게 심어 나뉘먹을 계획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그는 "농사는 발품을 팔고 귀동냥도 많이 해야 한다. 농사라는 것은 특히 혼자 할 수 없어서 마을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낮아지면 그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신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주민들의 도움으로 씨감자를 얻어와 감자도 심을 수 있었다"는 그는 또 옷차림에서부터 도시인이나 이방인의 티를 내지 말라고 충고했다.

땅은 내 수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수년간 공을 들여도 벼단 정원에서는 피지 않던 꽃단풍이 돌 틈에서 꽃을 피었다. 환호성이 절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6월 돌 틈에 야생화를 심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자라고 있다. "자연의 신비는 대단하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 부부는 이곳에 암석 가든 동산도 조성할 계획

이다. 나무나 식물을 선택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곳의 기후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추운지방에서 잘 자라는 자작나무(100주)를 심고, 화살나무와 진달래 할미꽃 등을 심을 것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의 향수가 묻어나는 채송화 봉숭아 접시꽃 등도 추가 식재할 계획이라고.

아내가 꽃을 가꾸는 데에 정성을 쏟고 있는 동안 남편 김양수씨 역시 아내의 도우미 역할은 물론 발원까지 도맡아 한다. 푸근한 인상으로 어느 새 농부아버지의 그림이 그려지는 남편이다. 그러나 평양 감자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법, 그 역시 식물마니아였기에 귀촌이 가능했다. 길으로 보기에는 부인을 위해 흥천까지 내려왔지만 더 열심히이다. 아내에게 인심도 쓰고 본인이 꿈꾸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도 이루고 있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팽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말 한 전에는 식탁에 오를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다른 한 전에는 야생화 테마 동산을 가꾸고, 그 사이로 연못과 오솔길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부부가 사는 모습은 이렇게 한 편의 소설 같다. ■

박선영씨 제안

‘자연석을 이용한 야생화 연출법’

자연을 집안으로 모셔보자. 도심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화분이 될 만한 자연석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산책이라도 갔다 우연히 오목한 돌을 만나게 되면 주위와 화분으로 재탄생시켜보자. 박선영씨가 자신하는 자연석 화분 만들기. 오늘은 돌단풍과 꿩이눈이 그 주인공이다.



돌은 수분이나 흙을 담아낼 수 있도록 움이 있는 자연석을 사용한다. 시중에 파는 것도 있지만 길가에서 주워온 것을 활용해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그러나 길에서 주운 돌은 바로 쓰면 식물에 해로워질 수 있다. 물로 깨끗이 씻거나 염소액 등으로 소독해준 후 사용해야 한다.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물을 심을 때는 정갈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식물은 예민하기 때문. 퇴비도 농사용(작물) 퇴비는 너무 독에 흙(마사+분갈이용 흙)과 반반씩 섞어 사용하기로 했다. 시중 판매 하원용(화초) 퇴비는 이미 발효된 것이어서 바로 사용해도 된다.



돌의 크기에 맞는 식물을 선택했다면 편셋으로 식물 주변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 어떤 식물에 상지름 넘기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불순물 제거는 식물이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예방에 주는 요격도 있다.



식물을 선택할 때는 성질이 비슷한 식물을 선택한다. 돌단풍은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두 식물을 가까이 심는 것은 좋지 않다. 돌을 놓고 흙을 안정시키기 위한 물을 준다. 물은 식물을 부식시키는 정도로 뿌려준다.



이끼는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수분을 공급해 준다. 마시토도 살짝 얹어주면 흙이 유실되는 것도 막고, 무거움을 준다. 물은 인데라오 요격도 살짝 수 있다.



스프레이로 물을 충분히 준다. 물 조르는 물을 무너뜨릴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흙을 사용해 주변을 정리해 주면 OK. 다가오는 여름쯤이면 자연석 화분이 진정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연출 원형

자연석 화분 완성 후 관리 수칙

▲완성된 자연석 화분은 안착기간 동안 그늘에서 적응기를 보내는 것이 좋다. 낮 동안에는 특히 그늘이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둔다. 날이 더워지면 실외에 내놓아도 된다.

▲한낮에 물을 주면 안 된다. 돌이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식물 뿌리가 상하게 된다.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식물 잎에 반점이 생긴다.

▲물의 양은 부착될 때까지는 스프레이를 해주는 정도. 안착된 후에는 흠뻑 물을 줘도 된다. 장기간 물을 줄 수 없을 때는 식물 스스로 물을 찾아가 흡수할 수 있도록 큰 그릇에 담가놓는다.

▲식물을 키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기 태양 바람 관찰. 부착될 때까지는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 포트에서 옮겨온 식물은 잘 생육하는 편이어서 1년 동안은 영양을 주지 않아도 된다. 1년 후에는 액비를 타서 분무해주면 된다.



완성된지 1년 후

작은 생명의 숲
미미의 정원

싱싱하던 식물도 어느 집에 가면 죽어버린다.
반면 죽어가던 식물도 살려내는 집이 있다. 일명
‘미미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윤희숙씨(58)의 베란다
정원은 식물도 소생시키는 불사(不死)의 기운이
흐른다. 소생 식물에서 나오는 건강한 기운이 인간
의 살까지 풍요롭게 이끌고 있는 치유의 정원이 바
로 미미의 정원이다. ■ 글·소운별 기자 / 사진·정음환 기자



계란껍질로 천연 퇴비 만들기



- ① 계란 껍질을 바삭 잘라 땅방아로 잘게 부순다.
잘게 부순 계란 껍질은 몇몇 아래서 다시 1년 이상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쳐야 냄새와
발래가 생기지 않는다.
- ② 따로 준비한 커피 찌꺼기 역시 완전히 바삭 말린다.
젖은 찌꺼기를 사용하면 곰팡이와 발래의 원인이 된다.
- ③ 잘 말린 계란 껍질과 커피 찌꺼기, 뽕을 3대 3대 4의 비율로 잘 섞는다.
500배 희석된 목초액을 섞어에도 방충 효과가 있다. 숙성시킨 안락사 찌꺼기를 섞어도
좋다.
- ④ 버무린 퇴비를 아파트 외 화단에 1년 이상 저장하여 이듬해 분갈이에도 잘 사용한다.
뽕 가루 영양 보충제도 만수무박 봄이후에도 만든다.



경기도 용인 광고산업이 바라다 보이는 문화속시
아파트. 넓은 배관다에 다양한 지사물과 영
굴식물 등 높은 안의 식물들이 그들의 삶의 터
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의 한 공간이 바나나는
숲속 자연 풍경을 연상케 하는 그곳은 식물들이
살아온 세월이 고르한 전해칠 만큼 울창하다.
그 건강한 풍경을 이뤄낸 주인장의 정성과 사랑도
드뭇 전해지는 자연 공간이다.

작은 식물만 같은 미미의 정된 역사는 지난 2007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인 윤씨는 지금의 이마에매어 맞추려다 정원을 꾸민 거주 시작했다. 일주 때부터 갖춰진 50cm 높이의 베란다 화단을 누누가 되되 않도록 바닥에 비닐을 깔고 플라스틱 배수망과 부직포를 수차례 놓은 다음 부목틀 등을 섞어 화단을 조성했다. 먼저 지퍼식물인 아일랜드 세련을 심고, 히마리산에 풍란 오잠화 품종도 틀림 수업을 심고, 히마리산 등을 보다 좋게 배치했다. 이후 매해 봄을아사무 등 보양을 받거나 심곤했다. 옮겨 심은 것 그리고 주변에서 버리고 간 것을 주워다 심었다는 지금의 이 풍성한 화단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5개의 테마존으로 구성

배반다 하oin이 1년 내내 뿌리를 보여주는 지미 식물과 고목나무 등 우리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 앞뜰에서는 벌레집이 제비꽃, 아프리카 바이올렛, 다육식물 화분이 온기종기 모여 사는 아랑화초에 있다. 시중에서 못 더 버려온 야생화들이 이 중독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항가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허브존에서는 제라늄이 돋보인다. 향기가 강해 벌레도 쫓고, 봄부터 가을까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제라늄 매력에 뭇 빠져서는 운씨이다.

안방 창문 쪽으로는 일반 화분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일명 화본초, 사시사철 탐스런 꽃을 보여주는 베고니아와 물의 대식 마 우스카리아, 비비추, 달맞이꽃, 풍나초, 조팝나무, 수국 등이 건강한 빛깔로 세물을 어여내고 있다.

창밖 에어컨 거치대에는 약초종이 있다. 은방울꽃이 다다옴개에 핀 블루베리에 열려 있는 조만간 열매를 맺어 가을 건강의 지미가 될 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장원의 백미라면 이아비

이다. 그 흔한 아이비가 이곳에서는 화려한 변신을 했다. 하얀 목책을 타고 천정에까지 기개를 뽐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미미의 정원은 지난 2011년 경기도와 경기도농림진흥재단이 추진한 경기도정원문화대상에서 네트 존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그 네트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곱종목 역시 바로 이 아이비의 화려함 덕분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후타타의 공경찰이 역시 포인팅이 되어 주산성의 세련된 인테리어 감각을 가늠하게 한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토당을 감싸고 얹혀 있는 넓은 끈 같은 것이 자세히 보니 뿌리다. 각각 각색으로 살아가는 식물들의 신비에 감탄사가 절로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환경 조성

죽어가는 식물도 소생시키는 미미의 정원. 그 비결은 바로 식물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환기이다. 집안에 벌레가 생기고 곰

평기가 생기는 것도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 윤씨는 햇빛이 좋은 시간에 맞춰 하루에 서너시간여를 기온조절·공 환기를 시켜준다.

주인의 사랑과 정성 역시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비결. 눈치가 빠른 식물은 주인의 관심만 금 자랑한다 한다. 누군가가 화분에 잎이 떨어지면 퇴비가 된다하여 그대로 둔다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깨끗하게 치워주고 다른 맑은 물주어야 다른 잎으로 영양분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단지 문을 열어서와 관심을 쏟았을 뿐인데, 식물은 더 많은 것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준다. 여름에는 시원함을 겨울에는 가슴호흡을 안겨준다. 에어컨이 없어도 되고, 가슴기가 없어도 기분 좋게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미 조성된 화원과 같은 생육환경 덕분에 식물이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이 더 많이 치유된다는 생각이 든다. 생물학적으로도 식물이 없지 않고도 따라 살면온도가 1~2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자연 친화적인 퇴비로 벌레 無

미미의 정원에는 인공적인 환경은 없다. 운씨는 자연 친화적인 천연 화분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는 식물의 영양 보충에도 도움을 하지만 병원충과도 가져온다. 그는 계란껍질과 커피 찌꺼기, 악재를 섞어 1년 이상 숙성시킨 후 발효시켜 비료로 사용한다.

햇빛에 잘 말린 재료를 흙에 섞어 다시 숙성과정을 거친 후, 간에 따라 분말화한 뒤 사육하기 위한 식물의 영양 상태에 따라 물이 되기 전 밀가루를 주 준다. 열매가 맺고 나서 식물이 약해질 수 있는 가을에도 웃거름을 더 얹었다.

비료는 식물 주변이 아닌 멀리 주어야 흡수가 좋다는 것이 그와 전해주는 팁. 물이 화분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계란껍질이나 우유팩, 커피 찌꺼기 등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진균에 벌레가 생기고 유황 냄새가 난다고 바삭 말릴 것을 강조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벌레 생기는 것을 감추며 목욕을 쓰기도 하는데 그는 목욕액을 자주 사용하

않는다. 목초액을 사용할 경우 물과 목초액의 비율을 500대 1로 희석해 비료와 함께 바꾸리라고 한다. 방충효과를 위해서는 1000배 희석해 식물에 뿌려준다.

식물을 가꾸는 방법 어렵지 않다

“오래 관리하고 사랑해주시니 꽃으로 보답한다”는 이른바 식물 키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씨의 정성을 들여다보면 어렵지는 않아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는 잘 키울 수 있는 사물을 묻거나 식물을 나눠 준다. 주고 난후에도 아무를 묻지 않는다. 그만큼 각별하다. 식물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식물을 키울 것을 권한다. 그 역시 힘든 시간 이곳에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의 정원을 꾸미는 정원이야 대다수는 이유는 그가 키우던 감자지 이름 ‘미미’를 붙여 명명했다고. 그 감자지들이 정원을 꽤나 좋아했다고 한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낙낙한 자연의 힘이 좋은 이유이다.



미미의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

후마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자생하는 고사리류 식물로 넉줄고사리라 불린다. 넉줄고사리는 푸른 잎도 아름답지만 뽀뽀 나가는 줄기가 일품. 화분 밖으로 빠져나온 뿌리를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새로운 잎이 나온다. 뽀뽀뽀뽀한 그 뿌리때문에 ‘흰토끼발’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재배 TIP

온도 : 공중 습도가 높은 습한 곳을 좋아하며 빛이 적게 드는 실내에서 키우기 좋다.
토양 : 분갈이 할 때는 용토 배수성 및 보수성이 양호한 배합토를 사용한다.
비료 : 봄부터 가을까지 액비를 정기적으로 주거나 완효성 복합비료를 줘야 한다.
발생 질병 : 건조한 환경에서는 응애나 개각충이 생기고, 진딧물도 생긴다.



허브 존

제라늄

잎을 만지면 톡 쏘는 향이 나는 제라늄은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인기이다. 다양하고 화려한 꽃 색으로 유입 창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약광, 건조 등 불량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재배 TIP

온도 : 생육 적온은 주간 21~25℃, 야간은 16℃가 좋다. 야간 온도가 10℃ 이하이면 생육 개화가 지연되며 12시간 지속되면 어린잎이 누렇게 변한다.
토양 : 배양토와 부엽, 모래, 훈탄을 5:2:2:1의 비율로 혼합하여 소독 후 사용한다.
발생 질병 : 회색 곰팡이병 발생. 저온이나 장마철에 잎, 꽃, 봉오리 등이 갈색으로 변해 썩으며 점차 확대된다. 병에 걸린 잎이나 꽃은 제거하고 적용 약제를 살포한다.

다육식물 & 야생화 존



개발선인장

줄기의 모양이 계의 발과 닮았다고 하여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른다. 쉽게 키울 수 있고, 꽃을 많이 볼 수 없는 겨울철에도 풍성하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들쭉날쭉하다. 맨 끝 양쪽 돌기도 날카롭고 크다.



재배 TIP

온도 : 빈양지나 반음지에서 키우며 생육에 적절한 온도는 17~22℃. 온도에 민감하며 습도가 높은 편이 좋다. 지나치게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줄기가 누렇게 된다.
효과 : 포름알데히드와 전자파 제거가 뛰어나며 아간에 산소발생량이 많아 실내공기정화식물로 유용하다.



벌레잡이 제비꽃

클레오파트라가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침대 곁에 두고 잤다는 꽃. 식충식물이며 특이하게 생겼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가냘프고 예쁜 꽃이 핀다. 작은 연보라 빛깔이 사랑스럽다. 잎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송털이 나있고, 점액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손으로 만져보면 끈끈한 느낌이 드는데, 벌레가 여기에 달라붙으면 꼼짝할 수 없다.

재배 TIP

온도 : 추위에 비교적 강한 편. 물과 햇빛만으로도 아주 잘 자란다.
물주기 : 큰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안에 화분을 담가놓는 저면관수법이 좋다.
토양 : 피트모스에 심는 게 좋다.

사용한 흙을 재활용하는 방법

식물을 키워낸 화분의 흙은 버리면 안 된다. 식물들이 이미 영양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토양.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앞 화단에 흙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흙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미 사용한 흙을 재활용하려면 시중에서 구입한 부엽토와 천연 퇴비를 넣고 어느 정도 묵혔다가 재사용할 수 있다. 천연 퇴비는 역시 계란껍질과 커피 찌꺼기, 한약재, 목초액, 김장용 봉투에 흙과 부엽토, 천연 퇴비를 넣고 봉지를 굴러 골고루 섞는다. 밀봉 상태 그대로 6개월 정도 베란다에 방치해 두면, 숙성과 발효과정을 거쳐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 된다.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 농부' _감자심기 편

■ 글 · 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_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광주시 자원봉사 센터

흙 만지고
감자 심고...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하변천리. 차도 옆 다소 큰 평수인 땅에 아이와 어른들이 비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 "선생님, 저 호미 주세요.", "저 쪽이 먼저 하고 있어.", "흙은 이렇게 뿌리는 거야." 텃밭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땅을 고르는 어른과 아이들이 보인다. 호미로 큰 돌을 고르는 솜씨를 보니 감자심기 전 30분의 이론수업 효과가 큰가 보다.

감자심기에 앞서 땅 고르는 작업은 필수. 한 사람은 땅을 고르며 전진한다. 그러면 이랑 끝에서 돌돌 말린 검은색 비닐을 가운데서 잡은 사람이 이랑을 써우며 이동하면 양쪽에 심을 들고 준비한 학생들이 흙을 퍼 비닐을 고정시킨다. "애들아 비닐 꼭 잡으렴. 양쪽에서 삼으로 흙을 퍼 비닐이 움직이지 않게 해." 어른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실은 표정 없이 연신 삼으로 비닐 끝에 흙을 뿌리고 있다. 감자가 준비됐다. 미리 왕겨를 발효시킨 후 이랑을 만든 터라 비닐을 써우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니 이제 감자를 심기만 하면 된다. "구멍 깊이를 15cm로, 간격은 25cm로 구멍을 내고, 다른 사람은 감자를 심고, 흙을 덮어 봐요." 도시농부 회원의 지시에 학생들은 일을 거침없이 해냈다.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다 지난 2월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고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해 청소년기에 농업을 체험하면서 흙을 통해 거칠어진 마음을 다독이자는 취지로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보통 여러 기관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일이 드문데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 두 기관을 합심하게 했다.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는 접수 시작 이틀 만에 마감됐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가 놀란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김영미 담당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사체험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다 자원봉사를 하며 봉사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 듯 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를 하며 봉사점수를 얻고 농사체험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참여율을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대이 친한 경농업팀장은 사업을 기획하며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해줄 것인가 기대도 되고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열기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하



1조 '녹색농부' 팀의 멋쟁이 한병규(17) 군. 광주중학교 2학년생인 한 군은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도심속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은 "도시농업연구회원들이 순수 자원봉사자로 나서 청소년들과 함께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뿌듯함과 자심감을 준다. 도시 농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람 냄새를 불어넣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보지만 가르치는 어른도 배우는 아이도 행복하다

두 곳 기관을 제외하고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도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는 지난 2011년 기술센터에서 운영한 '도시농부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심은숙 도시농업연구회 회장은 "도시농업연구회원들이 순수 자원봉사자로 나서 청소년들과 함께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뿌듯함과 자심감을 준다. 도시 농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람 냄새를 불어넣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른들은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도시농부학교'를 수료한 고원이 씨는 "아이들이 첫 오리엔테이션 때는 시큰둥했지만 직접 텃밭에서 감자를 심으면서 표정이 매우 밝은 것에 나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농부프로젝트 대상자를 광주시로 지역 제한을 두었지만 서울과 부천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봉사점수와 관계없이 참여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그 만큼 학생들이 이런 기회에 목말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매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과 어른들과 서로 느낀 점을 교환한다. 이번 감자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 조사결과 '삼질을 처음 해봤는데 내가 몸으로 일한다는 것이 참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흙과 식물을 접하니 마음의 힐링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청소년 농부의 감자심기



■ 감자자는 5일전에 깨끗하게 소독된 칼로 감자를 50g 정도를 잘라준다. 심기 5일전쯤 미리 잘라 그늘에 말리면 더 좋다.



■ 왕겨, 티비를 밭에 뿌린 후 갈아준다. 2주 후 75~80cm 간격으로 이랑을 만든다.



■ 토양온도를 높이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 비닐로 멀칭한다.



■ 멀칭한 비닐 위에 도구를 이용해 구멍을 낸다. 감자자 사이 거리는 25~30cm로 하는 것이 적당



■ 감자는 썩어 나온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한 구멍이에 하나씩 심는다.



■ 감자를 심고 나서 약 10~15cm 두께로 덮으면 완성

도시원에 전문쇼핑몰

가든조아

www.gardenjoa.com
031)712-7001

- ✓ 아직도 부담스럽게 200m 대용량 멀칭으로 구입하시니까?
- ✓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텃밭에 필요한 규격만큼(10m, 20m, 50m)
- ✓ 잡초와의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용 후 비닐을 회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흙과 함께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시트!!! -적극 추천드립니다.



생분해성멀칭시트 - 8,000원



Garden Tour

도심 속 동화 같은 자연 세상

Shingu Botanic Garden

계절의 여왕 5월처럼 푸른 아이들의 웃음을 담아내는 곳, 신구대학교 식물원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 식물원이다. 신구대는 설립 당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자연 학습장 실현에 그 모토를 뒀고, 지금도 학교 식물원으로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멸종위기식물 관리 보전에도 앞장서면서 화려함보다는 내실있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이다. 때문에 화려한 초화류보다는 순수 토종 야생화를 찾는 이들에게 더 사랑받는 곳이고, 식물 전문가나 사진작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또한 자연의 품에 아이를 맡기고 싶은 주부들을 위한 곳. 그런 마니아층의 시크릿 가든이다.

국내 유일 어린이 식물원

신구대학교 식물원은 서울 가까이에 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에 들어서 있는 다른 식물원과 달리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계인 인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특별한 휴일 작정해 떠나지 않아도 가볍게 찾아가 산책하고 자연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곳이다.

첫 방문객들은 대부분 '서울 가까이에 이런 식물원이다'라는 감탄사를 늘어놓기 마련인데, 봄에 찾는 식물원은 더욱 압권이다. 정문 입구에서부터 꽃 중의 꽃 작약이 화려한 자태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가로채는가 싶더니 언덕을 따라 철쭉, 벚꽃 등 봄의 화신들이 줄줄이 장관을 이룬다.



정문 왼쪽으로는 숲전시관이 오픈 예정으로 조만간 더한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터, 아쉽게만 방문은 뒤로 미루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 줄줄 흐르는 살개천이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추억, 늘 그리움 대상이 아니던가, 추억 따라 나무 데크가 이끄는 데로 오르면 본격적인 동화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어린이 눈높이 자연 교육 실현

좌측으로 전통정원과 계절 초화원, 그 뒤로 곤충생태관이 있다. 전면에는 이슬모양의 온실이 펼쳐지는데 에코센터이다. 중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등 남부수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는 곤충생태관, 곤충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나비를 방사해 놓아 다양한 종류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신비의 공간이다. 계절초화원에서는 계절 꽃의 자태와 향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고, 한켠에 설치된 마당분수는 어린이들의 좋은 놀이터, 시원한 물줄기는 어른들에게도 단연 인기다.

곤충모양으로 조성된 어린이 정원 역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측백나무로 조성된 미로원과 달팽이정원, 잠자리정원 등은 재미있게 놀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물원의 설립 취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신구대 식물원에는 이외에도 향기나라 허브원, 습지식물과 용평이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습지생태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배추 무 콩 옥수수 등 70여종을 볼 수 있는 교재식물원 등 다양한 테마존이 있다.

작약, 튕립 축제 연중 볼거리 풍성

봄을 맞는 신구대 식물원은 튕립 잔치가 한창이다. 사계절 1500여종의 야생화가 연출하는 꽃잔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 봄에는 튕립, 복수초, 돌단풍, 산수유, 수선화, 빛꽃 복숭아꽃 생강나무 깽깽이풀이 피어나 춘심을 사로잡는다. 5월에는 은방울 작약 금낭화가, 6, 7월에는 옥잠화 노루오줌이, 가을에는 산수국 꽃무릇 별개미취 평의 비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야생화는 초화류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민초들의 삶처럼 수수해 더 애정이 간다. 우리가 신구대식물원을 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5월 숲 전시관 OPEN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신한다. 5월 말 '숲 전시관(가명)'을 오픈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한다. 전시관 오픈으로 신구대 식물원은 22개의 테마존으로 확대 운영,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지고 연중 휴관 없이 운영될 계획이다. 1000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온실, 전시실(3실), 판매장, 카페가 들어설 예정. 온실에서는 다양한 열대 수종을 감상할 수 있고, 카페에서는 식물원 풍경을 배경삼아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옥상공원도 조성된다. 지하 주차장 물탱크는 식물원 안에 필요한 우수를 받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학교식물원으로서 연구 교육 실습 강화

신구대 식물원의 진정한 가치의 배경은 대학식물원이라는 것에 있다. 대학 식물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춘 운영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실습장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조경가트대학교 산림청의 수목원 전문가 양성과정도 그 대표적인 사례. 특히 2006년 이후 조경가트대학 졸업생은 7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부터 이들 '시민 정원사'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삶의 정원—가든인

안보면 후회!

신구대식물원

멸종위기 식물 관리 보전 및 연구 증식에 일조

멸종위기 식물을 누군가는 앞장서 지켜야 한다. 신구대학교 식물원은 멸종위기 식물 서식지보전기관이다. 환경부로부터 지정되어 현재 11종을 관리 보전 및 연구 증식시키고 있다. 덕분에 신구대를 찾는 관람객들은 타 식물원보다 더 볼거리가 풍성하다. 우포늪에서 가져온 가시연, 어주에서 모근을 가져와 키운 단양쑥부쟁이 등 희귀종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멸종위기 관람시 에티켓은 필수. 식물을 캐거나 상채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 에티켓이 아니라 상식이다.



2 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높이나 연못에서 자라는 다년생 수초. 수심이 낮고 물이 빠르면 빠르게 자라는 습지 식물로, 봄에 노란색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노랗게 변한다. 국내에서는 제주·전남 등지에 분포한다. 개화시기 3~4월.



3 나도송마 *Kirengeshoma koreana*
범의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백운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백운송마라고도 한다. 최근 지리산 1,000m 고지에서도 넓은 자생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화시기 8~9월



5 대정부채 *Iris dichotoma*
대정부채는 꽃이 아름답고 원예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 꽤나 정박하여 생물이 피고 지는 시간이 길다. 옛 문헌에 대정부채 꽃을 보고 시간을 기쁨에 보았다는 기록도 있다. 개화시기 7~8월.



6 독미나리 *Cicut virosa*
독근, 독근재라고도 한다. 물가 습지에서 자란다. 맹독이 있고 높이 1m 정도로 말은 없다. 줄기는 속이 비고 가지를 많이 진다. 흰색으로 피고 강원(대관령) 이북에서 난다. 개화시기 6~8월.



8 백부자 *Aconitum koreanum* R. RAYMOND
부리가 백색을 띠고 꽃도 흰색이어서 백부자 또는 관백부(關白附)라 부르며, 노랑돌파귀라 부르기도 한다. 연한 흰색 또는 흰색 바탕에 자주빛이 도는 꽃이 핀다. 개화시기 7~8월.



9 단양쑥부쟁이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넋가의 모래땅에서 자란다. 두해살이풀로 첫해의 줄기는 높이가 15cm이고 잎은 좁은 타원상. 경기도 어주군, 충청북도 단양군과 제천시에 분포한다. 자주색 꽃이 피고 개화시기 8~9월.



1 증중돌굴래 *Polygonatum stenophyllum*
산나리 조형에서 자란다. 높이 30~90cm로 굵은 뿌리줄기가 옆으로 자라면서 번식한다. 꽃은 연한 흰색이며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짧은 꽃줄기에 2개씩 밀을 양아 핀다. 개화시기 6월.



4 날개하늘나리 *Lilium dauricum*
중부 이북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 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길이가 7~8cm이고, 황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우산 모양으로 위를 향해 핀다. 개화시기 7~8월.



7 개병풍 *Rodgersia tabularis*
골병풍이라고도 한다. 깊은 산골짜기의 나무 밑에서 자란다. 높이는 약 1m. 줄기는 크고 겹쳐서 나뉘고, 짧은 가시털이 난다. 흰색의 꽃이 피고, 어린잎은 식용한다. 개화시기 6~7월.



10 가시연꽃 *Euryale ferox* SALISB
수련과에 속하는 일년생 수생식물. 개월: 절남성이라고도 한다. 가시연꽃이라는 이름은 과실과 잎에 가시가 있는 연꽃이라는 뜻에서 온 것이다. 개화시기 7~8월.

건강하고 싶다면... ‘텃밭농사 시작하라’

글. 정지은 기자

텃밭 가꾸기가 건강증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텃밭 가꾸기는 현대인들에게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골다공증, 체중조절, 고혈압 등의 예방은 물론 안락한 수면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 긴장감 완화, 우울증 완화, 인지기능 향상, 소외감 감소 등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선 현대인들은 잠 못 토크, 땅 파기, 땅 고르기 등의 일을 하면서 부족한 운동을 채우고 원예활동을 통해 내손으로 키워서 키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어 알츠하이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 오십건 예방할 수 있다.

건국대 박신애 교수는 텃밭활동 통한 신체의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다양한 텃밭활동을 중간·고강도의 신체활동으로 나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과 아동의 경우는 ▲밭심, 잡초 뽑기, 종자파종과 같이 상체를 사용하는 활동은 중간강도, ▲땅파기, 땅고르기 같은 상, 하체 모두 사용하는 활동은 고강도의 신체활동으로 구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원예활동 시 사용되는 근육을 조사했다. 영농활동을 하면서 많이 쓰는 근육으로 승모근과 엄지두덩, 새끼두덩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부터 어깨까지 걸친 근육이 승모근, 승모근 운동이 부족하면 어깨통증으로 이어져 오십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땅파기 등 승모근을 운동시켜주는 원예활동이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크다. 또 손을 많이 쓰는 원예활동은 엄지두덩과 새끼두덩근을 단련시켜 자칫 굳어지기 쉬운 노인들의 손자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텃밭 가꾸기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통해 걷기와 달리기 중간 정도의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스포츠 의학 학회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중간강도의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운동의 기술 즉 모터스킬이다. 텃밭을 일구는 활동이 운동의 기술을 향상시켜줌으로써 힘을 내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된다.

Garden Tip

“개인 농지 있다면 ‘농막’ 설치하세요”

이전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한 농막에 전기 및 수도, 가스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간이건축물로 분류해 왔다. 농식품부는 최근 주말농장과 귀농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1일자로 농막설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막 규정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등의 이유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단,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여야 한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막신청법

1. 인터넷 검색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치고, 접속
2. 가설건축물건축신고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후 신청
3. 토지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예로 등가부등문)
4. 참고(농막)사용 계획서 기재 및 제출
5. 신청완료 통보 받은 후 면허 및 등록세 납부 후 사용

고강도

중강도

텃밭 가꾸기 이런 점도 좋아요.

- ★ 배와 치아 건강 유지, 세포분열 촉진에 효과가 좋은 비타민D의 흡수.
- ★ 식용안전에 관심 있는 현대인들에게 손으로 직접 기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 ★ 바깥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야외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 ★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함께 하는 가꾸는 문화를 익혀 사회성을 유도한다.
- ★ 직접 기른 농작물을 자기 손으로 수확함으로써 성취감을 높인다.
- ★ 텃밭 가꾸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 ★ 아이들과 함께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관찰 학습을 할 수 있다.

Garden

우리 삶의 정원-가든人



민트를 이용한 어린이날 간식 파티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보았다. 요즘 미제 민트초콜렛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냥 사서 주는 것 보다 집에서 기른 민트를 이용하면 훨씬 향도 진하고 의미있는 간식이 된다. 요리법이 꽤 손이 많이 가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들다보면 힘도 안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글 · 사진_윤지영 요리연구가



허브들을 사기 위해 방이동에 있는 허브다섯매를 찾았다. 허브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화귀종이나 상태가 좋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게 좋다. 잎사귀가 싱싱하고 향이 좋은 허브를 고른다. 집에서 겨울을 나며 어느덧 북북 자란 민트를 잘라서 창가에 바짝 말린 후 병에 담아 두었다. 이 마른 민트를 요리에 이용할 것이다.

필요한 재료



민트가루, 밀가루, 컴파운드 초콜렛, 계란, 우유, 버터,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슈거, 이스트, 향팬

민트 초코파이 & 민트쿠키 만들기



1 밀가루 500g에 계란 1개와 버터를 넣는다. 취향에 따라 설탕과 소금, 베이킹파우더를 조금씩 넣어준다. 바닐라슈거와 이스트도 조금씩 넣는다.



2 밀가루 500g에 계란 1개와 버터를 넣는다. 취향에 따라 설탕과 소금, 베이킹파우더를 조금씩 넣어준다. 바닐라슈거와 이스트도 조금씩 넣는다.



3 반죽위에 포크로 구멍을 내고 냉장고에 넣어 휴지시킨다. 반죽[2]를 만드는 동안 숙성시킨다.



4 밀가루 80g에 계란을 두 개 넣는다. 취향에 따라 바닐라슈거와 설탕을 조금 넣는다. 민트 말린 것을 갈아 넣고 우유를 조금 넣은 후 천천히 젓다가 빠른 속도로 저어준다.



5 냉장고에 휴지시켜 놓았던 반죽[1]을 꺼내서 곱게 잘 저어진 반죽[2]을 얹는다. 완성된 파이 반죽을 예열된 오븐에 넣고 24분 정도 굽는다.



6 오븐에서 파이를 꺼낸다. 속까지 잘 익었으면 녹은 초콜릿을 붓는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을 할 수도 있다.



7 오븐에서 파이를 꺼낸다. 속까지 잘 익었으면 녹은 초콜릿을 붓는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을 할 수도 있다.



8 민트가루가 듬뿍 들어간 반죽이 남았다면 민트 쿠키를 만들자. 적당한 쿠키용 틀로 반죽에 모양을 낸다.



9 모양을 낸 반죽을 오븐에 넣고 적당한 시간 구워내면 맛있는 민트쿠키 완성. 달달한 맛을 내고 심으면 초콜렛이나 향팬으로 향을 가미하면 된다.

병충해, 예방이 답이다!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말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말일게다. 그리고 여러 모로 볼 때 그 말은 곧 그에게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점미젓빛곰팡이병

식물도 마찬가지다. 식물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그 식물이 살던 자연환경이다. 사람들이 캐어 옮겨서 좋은 배양토에 심고 물도 적절히 공급하고 온도도 잘 맞춰주고, 그러면 그들은 무려무려 잘 자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해준다고 하여 과연 그들은 좋아할까.

사람들의 과잉보호는 병해충을 부른다. 시라소니의 당노병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최근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의 당노병 소식을 듣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의 고혈압도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리는 아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종족의 고향을 떠나 사람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다.

“식물이 원래 살던 환경대로 조건을 맞춰주면 병해충 발생도 준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그가 살던 곳이면 그에게는 가장 맞는 곳이다. 대대로 거기

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식물도 원래 살던 곳, 즉 원래 살던 환경대로 맞춰주면 가장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이는 곧 병해충의 발생도 줄어든다는 말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과잉보호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교란할 뿐이다. 항상 볼 같은 곳에서 자라는 난은 꽃을 잘 피우지 않는다. 물을 듬뿍 머금은 화분에서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과잉보호, 식물을 병해충 먹잇감으로 만든다

농촌진흥청의 정의에 따르면 가정원예란 ‘원예작물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좁게는 방 안에서 키우는 꽃 화분으로 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마당이나 집 앞 텃밭에서 키우는 푸성귀까지가 모두 가정원예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예작물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불현듯 자신의 소홀함을 깨닫고 길게는 한 며칠간 지나친 진절을 베푼다. 그러는 동안 원예작물들은 언제나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병해충들의 먹이가 되기 쉽다.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성질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식물은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있다. 꽃샘추위가 물러설 때쯤이면 이제는 병원균과 해충들이 기지개를 펴며 달려들 것이다. 이제 서서히 병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식물들은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타고 난다. 웬만한 병해충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저항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특정

병해충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할 일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래도 부족할 때는 식물에 달려드는 병해충을 식물 대신 물리쳐 주는 일이다.

원예식물 병해충 많아 사람 관리 필요

원예식물은 위낙 종류가 많고 특징들이 뚜렷하여 각각의 식물에 나타나는 병해충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식물에 공통적으로 볼충부터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는 젓빛곰팡이병과 각종 뿌리썩음병이 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함에 따라 역병, 흰가루병, 녹병 등과 각종 잎점무늬병 등이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해충으로는 깍지벌레, 진딧물, 가루이, 응애, 달팽이 등의 피해가 심한 편이다. 일반적인 원예작물들은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저항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다. ■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차병진 교수



점박이응애



응선응떡병



넉가루깍지벌레



말기 젓빛곰팡이병



진딧물



온실가루이



민달팽이



시암배벌 무가루병



역병

병해충으로부터 식물 보호를 위한 세 가지 방법

원예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둘째 튼튼하게 키우는 것, 그리고 셋째는 달려드는 병해충을 물리치기 위하여 살균제나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1. 햇빛, 토양, 물 중 물 관리가 가장 중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식물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토양습도가 유지되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다. 특히 물관리가 중요한데, 물을 너무 주지 않아도 식물의 뿌리가 말라 죽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잔뿌리가 죽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토양의 과습은 흙 속에 사는 해로운 곰팡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뿌리썩음병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햇빛이 잘 들어 따뜻하다면 진딧물이나 가루이 등의 활동에도 대비해야 한다.

2. 질소비료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두 번째로는 식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료,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질소 질 비료는 식물의 영양생장을 촉진하여 식물이 부쩍부쩍 잘 자라게는 하지만, 세로력을 얇게 만들어 해충들이 많이 꼬이고 병원균이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3. 병해충 창궐, 안전한 농약 사용 불가피

마지막으로는 살균제나 살충제 등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더군다나 가정원예인 경우에는 식물이 집안에 있는 경우도 많아 설명하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병해충의 창궐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로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향상된 농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지금은 예전과 같이 사람과 동물에 큰 피해를 주는 농약들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흰가루병, 탄저병 등 주요 병과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등 주요 해충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은 농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인근 농약상에서 적절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바실러스 등 미생물을 이용한 농약과 식물정유 등 천연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합성농약의 사용이 점점 꺼려진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살충제 벌레비커

사람과 자연 식물에 무해한 친환경
경 밭밭용 종합 살충제!

악충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추출
액과 살충성 미생물이 들어 있습
니다.

해충 기피효과가 탁월하고 식물
생장에 필요한 미생물을 공급합
니다.

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적합한
재료로 **국제 유기농 코덱스 규정**
에 맞는 해충방제용 허용자재입
니다.

도시원예전문쇼핑몰
가든조아
www.gardenjoa.com
031)712-7001

소비자가격 :
3000원(100ml)

감자 심은 후...

감자병(病) 주의



국립식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김철순 연구사

“감자는 병해충이 없는 보증된 씨감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감자를 심었다. 이제 덩이줄기가 영그는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할 것이다. 하지만 심었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감자가 제대로만 들어질 때까지 병이 안나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감자에 잘 생기는 병(病) 5가지를 소개한다.

녹색의 덩이줄기가 땅 위 줄기에 달리고 감자를 캐 보면 표면에 검고 작은 부스럼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감자 검은무늬 썩음병

감자를 심은 후 이 병에 감염된 식물체들은 대부분 썩어 죽어 출현이 늦어진다. 어린 줄기는 주위에 검은색 띠가 형성된 채 자라고, 병든 식물은 줄기 끝 작은 잎이 자색이 되거나 잎이 말리는 증상이 보인다. 덩이줄기 표면에 납작하거나 부정형의 흑갈색의 부스럼(균핵)이 생겨 잘 안 떨어진다.

★이렇게 방제하자_ 다른 채소나 풀 등과 돌려짓기하거나 저항성 품종 또는 무병한 씨감자를 파종한다. 씨감자를 절단 후 살균제를 묻혀 심으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밭의 군데군데 식물체가 1주 혹은 2~3주씩 푸른 상태로 서둘러 있고 뽑으려 하면 잘 뽑히지 않는데 무슨 병인가?



감자 풋마름병

잎이 푸른 상태로 서둘러, 식물체가 작아진다. 병든 식물체는 서둘러 회복되는 증상을 반복하다 말라 죽는다. 줄기를 잘라보면 물관부가 갈색이고, 절단면을 물속에 넣으면 세균 분비물이 스며 나온다. 병든 감자를 잘라보면 속에 회갈색 무늬가 나타나고 회백색 세균이 나온다.

★이렇게 방제하자_ 무병 씨감자를 사용하고 절단시 칼을 잘 소독, 고추, 가지, 토마토 외의 작물로 돌려짓기 하고,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물 빠짐이 좋게 해 준다

감자 잎에 물에 데친 것 같은 검은 반점이 있고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있는데 무슨병인가?



감자역병

곰팡이병으로 잎, 줄기, 덩이줄기를 침입. 잎과 줄기에 갈색 또는 검은색의 반점이 형성된다. 흰색의 곰팡이가 잎 뒷면에 보인다.

★이렇게 방제하자_ 병이 없는 씨감자를 파종한다. 잎이 무성해지고 비가 자주 오면 감자 잎을 살피고 병이 없으면 예방용 약을 뿌리고, 잎에 병이 발생했다면 2가지의 다른 치료용 약제를 5일 간격으로 교대로 뿌린다. 덩이줄기가 굵어지면 노출되지 않도록 복을 충분히 주고 물빠짐이 좋게 한다.

감자를 캐 보니 표면에 울퉁불퉁한 부스럼 같은 것이 생겼는데 무슨 병인가?



감자터메링이병

덩이줄기 표면에 원형 또는 부정형의 갈색 부스럼 증상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은 1~2mm 높이로 튀어나오거나 15mm정도 덩이줄기 내부로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표면에만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방제하자_ 병이 발생하지 않은 밭에 병이 없는 씨감자 파종. 산성비로나 유황 등으로 토양 pH를 5.0 부근으로 낮춘다. 병이 심한 밭은 3~4년간 무, 당근, 비트 외의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를 한다.

식물체의 잎이 시들어 있고 땅과 접한 부분의 줄기색이 어두운 녹색으로 변하며 물러있는데 무슨 병인가?



감자 무름병

토양과 접한 부분의 줄기에 물에 데친 듯한 어두운 녹색의 부패가 일어난다. 줄기 표면에도 같은 색깔의 물렁한 증상이 일어난다. 덩이줄기 표면에 어두운 갈색의 무른 병반이 생기고 내부는 크림같이 무빠하고 악취가 난다.

★이렇게 방제하자_ 상처 치유가 잘된 씨감자를 파종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 재배한다. 수확·선별·저장 작업 중 감자에 상처가 안 나게 하고, 밭에서는 병이 난 식물체와 덩이줄기를 제거한다.



ISOFAR 회장
단국대
손상득 교수

Organic Life

유기농 소비 행태 변화가 선진화로 가는 길

제1회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오는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에는 ISOFAR(세계유기농업학회)의 4대 회장 손상득 단국대 교수의 공헌이 있다. 손 교를 만나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및 유기농업에 대한 진박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생태적 삶 Organic Life -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30일 동안 개최된다. 10개 주제전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 및 판매, 학술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한국 개최를 주도한 손상득 교수는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 교수는 “세계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어떠한 점이 좋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 손 교수가 세계엑스포를 한국에서 개최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 교수는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소비행태 변화를 통해 유기농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세계 유기농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을 지킨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은 손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세계유기농엑스포는...

A ISOFAR의 주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1회 대회이다. 2015년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서 개최되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전 세계 128개국 4750여명의 유기농업에 관련된 박사 이상의

교수, 연구자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유기농학술단체이다.

Q 유기농업이란

A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합성농약, 환경호르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장호르몬을 배제하며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국내 유기농 재배면적은 현재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사육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유기농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친환경마크의 상품들도 있지만 채소코너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Q 유기농을 선호해야 하는 이유

A 유기농은 농약 잔류가 없다.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인 아토피는 농약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환경호르몬의 2/3는 농약에 원인이 있다. 가드너 대부분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다. 지구 환경과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큰 뜻도 내포하고 있다.

Q 세계 유기농산업에서 한국 위치

A 유기농업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농사기법이다. 한국은 아직 유

기농업에 있어서 아직 5군에 위치하고 있다. 1군은 당연히 종주국인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2군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이, 3군은 유럽외의 선진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포진해 있다. 4군은 아시아의 인도와 중국, 5군은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6군은 기타 다른 나라인데, 먹거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것에 놀라지 않은가. 국제규격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가장 잘 값에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Q 엑스포 개최를 통한 기대효과 및 전망

A 유기농이란 비단 먹거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먹거리부터 차근차근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환경호르몬의 2/3는 농약에 원인이 있다. 가드너 대부분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다. 지구 환경과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큰 뜻도 내포하고 있다.

★알쏭달쏭 유기농과 친환경 차이

마트에 가게 되면 마트 내에 직거래나 친환경 코너를 마주하게 된다. 마크를 잘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뉜다. 유기재배, 무농약, 저농약이라는 글씨를 볼 수 있다. 많이들 헷갈려하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저농약 - 국내 친환경농산물 품목 하나로서 다음 방법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 사용, 농약 뿌리기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 제조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여야 한다.



■무농약 - 국내 친환경농산물 품목 중 하나. 유기합성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 등을 사용해 재배·수확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유기물쓰레기를 따로 만든 정장소에 넣어 보관하면, 그 퇴비더미 속에서 수심 1m의 미생물이 유기물쓰레기를 식물에 잘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 형태로 분해한다. 완성된 퇴비는 토양에 지양분을 주고 공기와 수분 보유능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토양 속의 미생물 수를 늘려 땅을 기름지게 한다.

이태리풍 고딕양식의 가든 레스토랑

Promessa



임재순 대표

“정원을 가꾸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ভাল 일, 행복한 일, 내 삶을 유일한 일이다. 내 정원, 그리고 자식 같은 꽃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도심 속에 우뚝 들어선 삭막한 회색 건물 사이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 바로 정원을 가꾸는 일이다.”

■ 글_최형호 기자 / 사진_정승흔 기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이탈리아 정통 레스토랑 ‘프로메싸(Promessa)’, 이곳은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식당이다. 자연과 늘 함께하는 프로메싸 임재순 대표의 철학이 식당의 정원을 한 층 돋보이게 했다. 5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소녀 같은 감성을 잃지 않고 꽃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 임재순 대표를 만났다.

◇ 꽃이 있어 행복한 여자

임 대표는 인터뷰 내내 꽃과 함께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년시절부터 꽃에 관심이 많았다. 농업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는 “당시 학교 사택에 살았다. 텃밭에 많은 꽃들을 집합 수 있었다. 이런 영향으로 회색의 삭막한 느낌을 주는 아파트단지 정원을 선호

한다”고 말했다. 주백에 살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터, 임 대표는 “정원을 가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꽃에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식물도 생명이 있다. 사랑을 받는 꽃이 그렇지 않은 꽃보다 훨씬 더 성장한다.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을 차리기 위해 야탑에 왔고 꽃들이 ‘나를 좀

살려줘’ 할 정도로 심었다(웃음)”고 말했다. 임 대표가 직접 가꾼 프로메싸는 ‘정원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전통 이탈리아 풍 고딕양식의 인테리어와 음악들이 마치 로마에 온 듯 착각을 준다. 간간히 배치된 꽃들과 어두컴컴한 조명이 만나 또 다른 빛을 생성한 느낌이다. 이 식당의 대표 음식인 피자과 파스타를 장식하는 재료는 임 대표가 직접 가꾼 식물들



사용한다. 그는 비료를 쓰지 않는다. 비료를 줬 짜지 일반 무성할 뿐 채소가 싱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임대표는 정원을 직접 가꾼 자신만의 노하우로 식물들 유기농 재배해 이곳을 찾는 손님에게 대접하고 있다.



화덕에 구운 피자 위에 얹은 ‘무콜라’.

◇ 꽃들의 천국

레스토랑 테라스 정원은 말 그대로 ‘꽃들의 천국’이었다. 테라스 정원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독특함을 강조한다. 모두 임 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임구는 미니 평면화단에 튜립 구근을 심었다. 5월이 되면 튜립만의 화려함이 자태를 뽐낼 예정이다. 임구 왼쪽은 장미 등 화분으로 장식된 꽃들을 수 놓았고, 오른쪽은 수선화 등 각양각색의 꽃들을 배치했다. 또 팬지 등을 심어 놓은 화분을 길에 뒀고, 속새와 구근 등 식물들을 둘러쌌다. 그 가운데는 금붕어들이 노닐 수 있게 조성했다. 임 대표는 “월계수, 바질, 로즈마리, 상추 오이 등 식재료들은 모두 재배한 것으로 쓰



프로메싸 임구. 임구에서부터 주인의 식물 사랑이 느껴진다.



장독대에 담긴 금붕어가 정원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고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파스타와 피자에 곁들인 샐러드는 유기농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단골 고객은 끊이지 않고 프로메싸를 다녀가고 있다. 심지어 프로메싸에서 맛šen을 보고 결혼한 이들도 꽤 있다. 임 대표는 “저축은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는 것이다. 이들이 훗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다시 이곳에 와 돌잔치를 한다”며 싱글벙글해 했다.

◇시행착오 끝에 맺은 결실

프로메싸 건물 3층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온실보관소가 있다.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식물들을 따뜻하게 보관해놓기 위해서다. 옥상은 텃밭으로 꾸몄다. 이곳은 상추, 수선화, 매실, 대추나무, 독립 은행을 등 100여 종의 식물들을 심어 뒀다. 임 대표는 “묘목을 구입하는데 적게는 5000원, 많게는 만원 정도 들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며 “식물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 대표는 초야를 해마다 새것이 아닌 구근을 심는다. 양파망에 넣어뒀다가 말려



옥상은 임 대표의 또 다른 텃밭 공간이다.

서 심는 것이 이색적이다. 임 대표는 “구근을 말렸다 심으면 새것을 심는 것보다 고풍스러워 보여 프로메싸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3~4월에 피는 팬지에 애착이 있다. 정원의 콘셉트에 맞을 뿐더러 적응이 잘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품종을 선택해 심을 때 팬지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며 “팬지는 4~5월에 잠깐 꽃이 핀다. 그 두 달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텃밭에 키우는 상추는 언제든지 뜯어 먹을 수 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1~2년 정도의 단기간에 완성 할 수 없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어느 정도 완성된 정원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임대표의 생각. 그는 “양분, 토양, 기후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레스토랑에 맞는 수많은 식물들 교체한 결과 지금의 테라스 정원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



화분에 심은 매발톱이 금새 나와 존재를 알리고 있다.

우리 실속의 정원—가든人

오만과 편견 Pride & Prejudice



영국식 랜드스케이프 정원의 진수 스토어헤드에서의 프로포즈

글_ 김지태

〈오만과 편견〉은 여러 번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개인적으로 1995년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 시리즈를 가장 좋아한다. 콜린 퍼스가 미스터 다시를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코너는 대중문화에 나타난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2005년 제작된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를 선택했다. 이 영화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정원들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은 돈 많고 잘 생기고 싸가지 없는 남자가 별 예쁘지도 않고 신분도 보잘 것 없는 여자에게 이상하게 빠져들어 결혼한다는 한국 연애드라마의 원형적인 작품이다. 그런데 설정은 비슷해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오만과 편견〉에는 미스터 다시가 있다는 것이다. 돈 많고 잘 생기고 싸가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그 싸가지 없음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리를 풍기는 확고한 자기 자존감에 바탕을 둔 싸가지 없음이란 사실이다. 차갑고 시니컬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지만 그는 늘 교양과 품격을 잃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 절대 무례한 까칠함이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는 싸가지 없음은 더더욱 아니다.

인물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지만 자세한 줄거리는 생략한다. 어쨌거나 보잘 것 없는 엘리자베스가 까칠한 다시와 결혼에 성공하는 해피엔드란 점만 밝힌다. 그럼 등장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영화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엘리자베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 있고 땅 좀 있는 시골 양반집의 둘째 딸이다. 영화 오프닝이 끝나면 카메라는 방문객의 시선으로 엘리자베스의 집을 구석구석 훑으며 보여준다. 집 안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너른 마당 한 칸에는 텃밭이 있고, 벽

돌 담에는 넝쿨이 쳐져 있는 18세기 영국의 전형적인 시골 농가 정원을 볼 수 있다. 이 집이 촬영된 곳은 영국 남부 텃밭릿지웰스에 위치한 그룸브릿지라는 공원이다.

실제로 가 보면 영화에서처럼 온갖 가축과 텃밭이 있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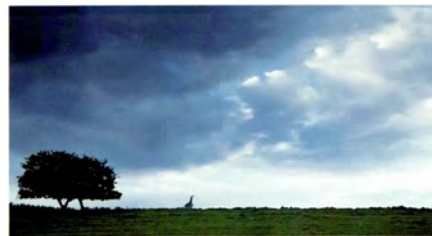
말부잣집인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다섯 명 딸을 모두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보내는 게 인생 최대의 관건이다. '돈 많은' 남자라는 게 중요하다. 당시엔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딸들은 물론 어머니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은

남자인 사촌에게 상속이 되고 여자들은 길바닥에 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딸들은 그 전에 꼭 결혼을 해야 하고, 중요하게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마을 무도회장에 지체높은 젊은 귀족들이 나타난다. 바로 다시와 그의 친구인 빙리.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다시는 그들을 무심하게 쳐다본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딸들을 데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문안인사를 드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박 사릿감을 낚아야 하는 것이다. 수염까지 하얗게 센 아버지까지 젊은 청년들에게 싫어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 아버지 연봉이 2천 쉼 된다면 저들은 연봉 1억 이상이 넘고 가문도 빼방한 부자들니까.

다행히 어머니의 바람대로 빙리는 큰 딸 제인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빙리의 친구인 다시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일관해 엘리자베스의 속을 긁어 놓는다.

빙리가 제인에게 마음이 있는지 정식으로 집으로 초청장을 보냈다. 어머니는 비가 오는데도 마차 대신 말을 타고 가라고 한다. 비를 흠뻑 맞고 감기가 걸려서 빙리의 집에 한참을 놀라있게 할 속셈이었다. 제인은 어머니의 계략대로 감기가 걸려 앓아 누웠고,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혼자 걸어서 빙리의 집으로 향한다. 정원 배경도 아름답지만 이런 영국 특유의 발판 배경도 매우 근사하다.



이야기를 좀 건너 뛰어서 오만하던 미스터 다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비오는 날 청혼하는 장면으로 가 보자. 이 청혼의 배경이 된 장소가 영국식 랜드스케이프 정원의 진수라고 일컬어지는 '스토어헤드'이기 때문이다. 다시를 오해한 엘리자베스가 빗속을 마구 뛰어가는 저 곳이 스토어헤드의 상징인 호수를 가르며 다리이다. 스토어헤드를 보면 온 관광객들은 누구나 저 다리를 한 번 쏘곤 건너본다고 한다.



그녀를 쫓아 온 다시가 프로포즈를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 매물처가 거절당하고 쓸쓸히 물러나는 장면이 이어진다.



스토어헤드에는 판테온과 아폴론 사원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이 장면이 찍힌 곳은 아폴론 사원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꼽히는 스토어헤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원 전문가가 아니라 헨리 호어 1세와 2세라는 은행가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영화의 설정상 비오는 장면을 선택했겠지만, 보다 짙은 날에 스토어헤드의 전경과 판테온까지 담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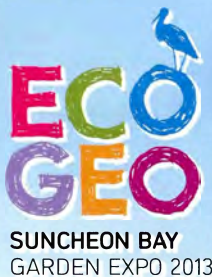
엘리자베스가 다시의 오만함을 편견만으로 바라봤던 자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 영국 특유의 황량한 언덕. 이상하게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이 타라의 황혼을 맞는 장면의 오리지널 씬같은 느낌이 든다.



다시의 청혼을 거절한 엘리자베스가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잠깐 아름다운 정원이 등장한다. 마치 동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이 야생정원은 더비셔 지방에 있는 피크 디스트릭트라는 공원이다. 이 곳에서 이모부는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적절한 대사를 날린다.



마지막으로 이 곳은 미스터 다시가 살고 있는 대저택. 너른 호수와 영국식 자연스러운 정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이 곳은 더비셔 영주의 저택이었다는 체트워스 하우스다. 저택 바로 앞에 분수가 있는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아쉽게도 볼 수 없다. 내부에는 영화에서처럼 랩보란트 그림 등 온갖 진귀한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의 정원을 순천에 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눈이 부시다. 이런 정원이 있다는 게 놀랍다.”

지난 4월 20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됐다. 세계의 정원들이 한 곳에 모인 테마를 본 관람객들은 연신 탄성을 질렀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수목원, 습지센터, 세계정원, 습지구역 등 4개의 테마에 42만 4,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숲의 박람회라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23개국 83개의 정원을 재현한 세계정원은 이번 박람회 중 가장 큰 볼거리다. 또 세계 유명 정원디자이너들이 정원의 역사와 특색을 담은 설계와 전문 자문을 바탕으로 조성한 참여 정원도 접할 수 있다.

■ 글 · 사진 최형호 기자 / 사진협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팀

순천만의 꿈, 호수정원

입구에 폭 올라와 갯길로 들어서면 16피트에 달하는 크고 작은 봉화언덕 등 6개의 언덕과 호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박람회의 자랑인 호수정원인 것. 순천만이 지구의 정원으로 성장할 꿈을 디자인한 테마정원이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정원가인 영국의 찰스창스가 디자인했다. 특히 언덕과 언덕을 잇는 'S'자 형태의 다리는 찰스창스가 표방한 '우주적 사색의 정원'을 표현하는데 한층 돋보이게 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상처, 프랑스 정원

호수정원을 지나 쪽 올라오면 보이는 곳이 프랑스 정원이다. 면적 4529㎡의 이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바로크 시대 건축양식을 도입해 정원을 표현했다.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 프랑스를 유럽문화의 중심

으로 키우고자 했던 루이 14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 뿐만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을 만큼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다.

장엄한 역사와 애절한 사랑, 중국 정원

프랑스 정원을 지나면 붉은색 가옥의 정염함을 표현한 중국정원이 보인다. 이 정원은 방문객이 서있는 위치에 따라 정원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등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안에 들어서면 중국 전통의상을 입은 남·여 둘이 서로 껴안고 날개를 단 듯 상(傷)이 있다.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 얘기를 애절하게 표현한 것. 중국 영파시가 디자인한 중국정원은 구름과 물, 다리, 돌, 나무 등을 이용해 전통 조경기법을 활용했다.

자연 순응적·여백의 미 강조한 한국 정원

한국정원도 이번 박람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늘 우리의 자원이었던 고풍스런 멋이 한껏 묻어났다. 창덕궁 후원에 만들어진 부용정을 본뜬 궁궐정원과 전남 담양에 있는 소쇄원을 옮겨 놓은 선비정원도 소나무와 초목빛 대나무숲, 배롱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운치를 더했다. 특히 한국정원은 숲은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자연순응적인 정원양식이 사용돼 그림 같은 풍경을 펼쳐냈다. 한국정원이 있는 박람회장 서쪽지역은 정원나무도감원과 편백휴양숲, 온실 등 자연 속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조성돼 관람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주제관인 국제습지센터에는 순천만 연안습지를 비롯해 세계의 다양한 습지를 기후대별로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4계절 아름다움 표현, 갯지렁이 다니는 길

중국정원을 지나 담을 따라 길을 돌아가면 높은 탑이 솟은 성이 서 있을 것 같은 정원이 보인다. 이 정원은 마치 갯지렁이가 지나 간 것처럼 폭 내려앉은 곳에 자리를 틀어 이름도 '갯지렁이 다니는 길'이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4계절 내내 동화 속 주인공과 동물들, 현실의 우리가 만나는 공간인 것이다.

상상하는 모든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것 같은 정원에서 각자 상상하는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소재가 될 만한 자연물을 배치했다. 디자이너 황지해씨의 작품으로 정원에 어울릴만한 동화를 상상해 보고 동화 속 이야기를 만들며 걷다보면 어느새 스스로 동화 속 주인공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

순천만의 꿈과 희망, 꿈의 다리

동천을 중심으로 분리된 두 박람회장 '지구 동문'과 '꿈의 남문'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다. 바로 '꿈의 다리'다. 강익중 설치작가가 디자인한 다리로 생태도시의 완성을 꿈꾸는 순천만의 꿈과 희망을 형상화했다.

이 다리는 꿈을 상징하기 위해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 등 총 16만점의 작품과 재활용 컨테이너를 활용해 만들었다. 내부에는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을 전시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다리 미술관'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다리의 역할 외에도 볼거리가 있는 세계 최초의 다리 미술관이란 평을 듣는 '꿈의 다리'는 또 컨테이너의 구조적 특성을 살려 비와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유럽의 정원이자 꽃밭, 네덜란드 정원

에너지식물원을 지나면 저 멀리 풍차가 보인다. 바로 유럽의 정원이자 꽃밭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정원이다. 네덜란드 정원은 순천만 지구의 정원을 찾는 이들에게 생애 수도의 봄을 알리는 마음으로 조성됐다. 특히 네덜란드 정원에는 '히딩크의 희망나무'가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던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호두나무를 네덜란드 정원에 심었다.

이밖에 '독일 정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를 피르스터가 개발한 선린가든을 재현한 독일 정원, 가 지린하트 식재된 교목과 수경사실이 특징인 스페인 정원, 사기현과 고치현이 참가해 2개의 각기 다른 정원 형식을 보여줄 일본 정원이 들어섰다. 또 찰스 창스의 자문을 얻어 빅토리아시대 폴리 팜 가든을 재현한 영국정원, 태국의 전통 건축물인 살라타이와 대나무 구조물 등이 눈길을 끄는 태국의 아열대 전통 정원도 관람객들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 놀이정원, 기업·작가들이 만드는 정원, 바위정원, 참미정원, 미로정원 등 순천만 정원박람회만의 특별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어 한방약초동산과 한방체험관, 친환경 무인택시, 한국정원이 있는 수목원, 살아있는 습지생태 학습장인 국제습지센터 등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편리함,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코스별 선택으로 효율적인 관람 가능

박람회 입장료는 성인 16,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8,000원이다. 또 박람회 기간 중 어느 때나 관람 가능하도록 시민권도 판매한다. 시민권 가격은 어른 60,000원, 청소년 50,000원, 어린이 40,000원이다. 입장시간은 평일 및 주말과 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다. 폐장은 오후 7시까지이지만 한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은 야간개장을 시작한다. 폐장시간이 오후 9시까지이니 충분한 관람이 가능하다. 111만여㎡ 규모인 이번 박람회는 하루에 모두 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www.2013expo.or.kr)에 테마별, 시간별 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테마별 코스는 최소 5시간에서 최대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빠르게 관람을 원하면 시간대별 코스도 추천한다. 또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의 명소와 맛집도 빼놓을 수 없다.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순천의 10경(景)과 10미(味)를 선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린다. ■



풍요와 생애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 '축배'



풍자와 풍림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 정원'



'지구 동문'과 '꿈의 남문'을 연결해 주는 꿈의 다리.



1789년 절대왕정에 맞선 미래의 꿈을 담은 '프랑스 정원'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인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중국정원'



한방체험관은 아성 한방재료와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렇게 구경해 보세요.

기능·테마별 추천 코스

★습지의 희망코스

빛의 서문(입구)→순천만국제습지센터→순천만WWT습지→PRT광장→에코지오 온실→순천만PRT→순천만자연생태공원→꿈의 다리→중국정원→프랑스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순천호수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야수의 장미정원→지구 동문(출구)

★초록의 숨결코스

빛의 서문(입구)→나무도감원→한국정원→남도숲길→편백숲→수목원 전망지→철쭉정원→순천만 WWT습지→PRT광장→에코지오 온실→선택코스 : 순천만PRT→순천만자연생태공원→꿈의 다리→중국정원→프랑스정원→한방체험관→독일정원→바위정원→태국정원→일본정원→악 용식물원→실내정원→지구동문(출구)

★세상의 품격 코스

지구 동문(입구)→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프랑스 정원→중국 정원→(선택코스 : 꿈의 다리→순천만PRT→순천만자연생태공원→꿈의 다리→한방체험관→독일정원→참여정원→네덜란드 정원→미국정원→스페인정원→이탈리아정원→영국정원→일본정원→태국정원→바위정원→실내정원→조경산업관→지구동문(출구)

★자연과 동화 코스

지구 동문(입구)→실내정원→어린이 놀이정원→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순천호수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프랑스 정원→중국 정원→한방체험관→꿈의 다리→PRT광장→에코지오 온실→(선택코스 : 순천만PRT→순천만자연생태공원→순천만국제습지센터→빛의 서문(출구))

■ 시설별 구분

- 건물 및 주요시설물
- 조경 및 정원
- 호수 및 습지
- 보행 및 도로

■ 구역별 구분

- 수목원구역
- 습지센터구역
- 세계정원구역
- 습지구역

시간대별 추천코스

★2시간 코스

빛의 서문→순천만국제습지센터→꿈의다리→에코지오 온실→나무도감원→한국정원→빛의서문

★3시간 코스

오전택지 주차장→빛의 서문→한국정원→꿈의 다리→중국정원→프랑스 정원→순천호수정원→야수의 장미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꿈의 다리→순천만국제습지센터→빛의 서문→오전택지주차장

★5시간 코스

오전택지 주차장→빛의 서문→나무도감원→한국정원→에코지오 온실→꿈의 다리→한방체험관→독일 정원→네덜란드 정원→메타세이어 길→스페인 정원→이탈리아 정원→영국 정원→일본 정원→태국 정원→실내/조경산업관→지구 동문→야수의 장미정원→흑두루미 미로정원→순천호수정원→갯지렁이 다니는 길→중국 정원→프랑스 정원→꿈의 다리→순천만국제습지센터→빛의 서문→오전택지 주차장

★세계정원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태국, 스페인, 영국, 한국 등 11개국 세계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탈리아정원



미국정원



한국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영국 정지물리연구소에서 2년 연속 최고점을 받은 황지에 정원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한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

★수목원

수목원은 기암송림, 남도송림, 단풍나무길, 사색의 길, 철쭉 정원, 한국정원 등이 있다.



수목원



어린이 놀이공원

Mini Interview

조충훈 순천시장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지켜내는 완충 역할 할 것

정원박람회는 기존의 산업박람회와는 성질이 다르다.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세월이 흐를수록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푸른 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 정원의 다양한 가치와 정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미래형 박람회인 것이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도 효과적인 박람회다. 새로운 세상과 지구환경 보호, 인간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자연과 생태환경을 존중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조충훈 순천시장을 인터뷰했다.

▶이번이 처음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인데 소감은?

여수세계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가 성공한 것처럼 정원박람회도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길 기원한다. 현대 사회는 양적인 팽창 추구,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하는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인류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려한다.

▶어떤 콘셉트로 진행하고 있나?

정원박람회는 기존의 산업박람회와는 성질이 다르다. '미래형 박람회'로서 후세에 명품공원이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또 화해, 조정, 환경, 토목, 치수 등 시대의 모든 기술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인간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순천시가 하고 있는 것은?

박람회의 성공여부는 관광객 수보다 박람회의 서비스 수준과 관광의 품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후방산업 연계 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관광객들의 많은 유치에만 치중하지 않을 생각이다. 국내 전체와 세계인이 찾는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이번 축제에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주제는 '생태 놀이터'다. 정원박람회장 전체를 생태놀이터로 만든 것이다. 박람회가 더욱 특별한 것은 단순히 정원을 보고 즐기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즐기면 된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수목의 활착분제가 우려됐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상수리, 단풍, 벚나무, 버드나무 등 활착이 쉬운 향토 수종을 선정해 무사히 활착시킬 수 있었다. 또 작년에 1급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직원들이 참도 못자고 밤새 지주를 설치하고 로프를 묶는 등 많은 수고를 한 결과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모두 쓰러질까봐 참 못 자면서 염려해 준 시민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정원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려면?

정원박람회는 국내에서 처음이지만 유럽에서는 역사도 깊고, 인기도 많다. 영국은 정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정원이 삶의 일부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각각의 정원마다 정원해설사가 배치됐다. 해설자들이 들려주는 정원의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관람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을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는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3
한국 꽃 축제



5월山野는 지금 꽃 축제 中

■글_정지은 기자

봄의 유혹이 시작됐다. 남도에서 유행처럼 번진 꽃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질이더니 콧바람으로 변했다. 통창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또한 눈이 부서 앉은 자리가 들쭉들쭉한다.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산야 역시 붓질을 채기라고 손짓한다. 가만히 앉아 불구경하듯 꽃구경할 수 없는 계절이다. 꽃들이 만발한 5월, 전국 각지에서 꽃 축제가 한창이다.

역사와 꽃, 호수공원이 어우러진 축제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

꽃의 도시 고양에서는 '고양 600년,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국내 대표적인 꽃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 역시 다양한 전시 및 공연 이벤트, 꽃 문화 행사 등으로 상춘 관람객들을 맞는다. 특히 해외로 수출하는 화훼류와 함께 희귀식물, 그리고 우리기술로 육종 개발한 신품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메인 테마 전시는 실내와 두 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실내 전시실에서는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국내 최고 플로리스트의 환상적인 플라워 아트가 펼쳐지고, 실외 전시관에서는 고양의 찬란한 역사를 아름다운 꽃으로 재현한 '고양 600년 미래비전 정원'이 시선을 끈다. 전 세계 6대륙의 대표 문화 유산 및 자연을 꽃으로 재탄생시킨 '월드 플라워 가든'과 허브향으로 치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고양 힐링 가든' 등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벤트 행사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실력을 겨루는 분야별 콘테스트, 플라워 디자인 기능경기 대회 등이 펼쳐진다.

다양한 전시에서부터 화훼 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매년 가족단위의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돌아오는 주말, 전시장 바로 앞 호수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일시 : 2013.4.27 ~ 2013.5.12

장소 : 일산 호수공원

문의 : 031-908-7750

홈페이지 : www.flower.or.kr



꽃을 이용한 이색 볼거리 풍성 2013 대구꽃박람회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꽃 박람회는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펼쳐진다. 주제관에서는 꽃비 내리는 대구·경북의 상상으로 악을 볼 수 있고, 꽃을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 플라워디자인, 토피어리 등 다양한 전시회 구성과 함께 꽃과 하는 작은 음악회, 플로리스트 데몬스트레이션 등의 부대행사, 원예 강좌 및 체험 행사, 꽃시 나눠주기 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일시 : 2013.06.05 ~ 2013.06.09

문의 : 053-601-5064 / 홈페이지 www.flowerdaegu.kr

계절별 테마 꽃들의 대향연 2013 태안꽃축제

봄날의 화창함을 더해주는 톨립, 여름엔 진한 향기로움을 뿜어내는 백합, 가을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달리아, 겨울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으로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태안 꽃축제. 작년 한해 27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을 유치한 태안꽃축제가 4월 25일부터 튜립축제를 시작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화려한 꽃들과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태안에서 가족 또는 연인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이다.

일시 : 튜립축제 2013.4.25 ~ 2013.5.9

백합축제 2013.6.22 ~ 2013.7.5

빛축제 2013.7.20 ~ 2013.8.18

가을꽃축제 2013.9.14 ~ 2013.10.20

문의 : 041-675-7881 / 홈페이지 : www.festival.co.kr



진분홍 풍경 '仙井인가' 비슬산 참꽃문화제

먹을 것이 여의치 않아 배를 굶던 시절, 화려하게 봄을 표현했던 꽃이 있다. 마음에 위안을 주고, 먹을 수 있어 이른 봄 간식거리로 허기짐까지 해결해 주던 꽃. 진달래는 '참꽃'이라 하여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비슬산 정상에 있는 참꽃 군락지는 봄이 오면, 그 시절 추억과 향수를 가득 담고 피어난다. 30만평의 광활한 평원에 펼쳐지는 진분홍의 천상 화원을 연상케 하는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상을 벗어나 신선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일괄적으로 참꽃 군락지와 비슬산 자연휴양림 근처에서 개최된다.

일시 : 2013.5.1 ~ 2013.5.8

문의 : 053-715-1283 / 홈페이지 : www.biseul.kr



남도 제일의 자생 철쭉 군락지 제암 철쭉제

제암산은 호남 정맥의 한 줄기로 서남해를 품어 안은 산이다. 소나무와 철쭉 그리고 다양한 산야초가 자생하여 산을 즐기며 아끼는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제암산의 볼거리는 산악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남도 제일의 자생 철쭉, 남해의 훈풍 속에 화려하게 피어난 진분홍빛 철쭉길 20만㎡의 너른 땅에 소나무 몇 그루를 빼고는 잡목 하나 없는 철쭉밭은 말 그대로 '천상의 화원'이다. 매년 5월 철쭉이 만개할 때면 눈이 부실정도로 꽃송이의 물결이 펼쳐지고 등산객들의 탄성과 함께 하산길을 잊게 한다.

일시 : 2013.5.5

문의 : 장흥 문화관광과 061-860-0380

홈페이지 : www.travel.jangheung.go.kr



국내 축제 일정

■ 고창 청보리밭 축제

넓고 아름다운 보리밭이 사진작가들과 여행 동호인들에 의해 알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축제로 연결되었다. 고창의 시원한 보리밭 사잇길로 생쾌한 봄나들이를 가보자.

기간 2013.4.20 ~ 2013.5.12

장소 전북 고창군 학원관광농원 일원

사이트 www.chungbori.gochang.go.kr

■ 평택꽃나들이 행사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봄나들이 및 어린이날 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평택에서 봄맞이 꽃 나들이를 가보자.

기간 2013.4.30 ~ 2013.5.5

장소 경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및 오성면 등

사이트 www.cypap.net

■ 고창 청보리밭 축제

구리한강시민공원은 한강 최대의 꽃단지로 물결치는 유채꽃이 장관을 이룬다. 축제 기간동안 유채꽃 단지 내에서 가족,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기간 2013.5.10 ~ 2013.5.12

장소 구리 한강 시민공원

사이트 www.guri.go.kr 문의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065

■ 1박2일 가파도청보리축제

푸른바다와 아름다운 돌담길, 바람에 너울거리는 청보리밭으로 초대. 봄의 추억을 가파도 청보리축제에서 느낄 수 있다.

기간 2013.4.13 ~ 2013.5.5

장소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일원

사이트 www.70ni.seogwipo.go.kr

■ 아침고요 한반도 야생화전

실외 정원에서 만나는 소박한 볼거리를, 실내 전시실에서는 야생화 300여종을 만날 수 있다. 한반도 야생화들과 희귀 특산식물, 세계 고산 식물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식물들이 한눈에 펼쳐진다.

기간 2013.2.28 ~ 2013.5.31

장소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사이트 www.morningcalm.co.kr

■ 제15회 담양 대나무 축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한 기운, 죽죽원을 비롯한 메타세콰이어길, 창명 솔로시티, 소쇄원은 담양의 자랑이다. 대나무 숲에서 힐링체험을 경험 할 수 있다.

기간 2013.5.3 ~ 2013.5.8

장소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재림 일원

사이트 www.bamboofestival.co.kr

■ 제15회 함평나비대축제

꽃, 나비, 곤충을 소재로 한 전시 문화, 체험 행사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축제를 만나보자.

기간 2013.4.26 ~ 2013.5.8

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 공원 등

사이트 www.hampyeong.go.kr

■ 예래생태마을축제

국내 제1호 반딧불이 보호지역인 예래 마을,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삶과 자연을 알리고 계승하기위해 매년 체험축제가 열린다.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산교육의 장인 축제이다.

기간 2013.8.3 ~ 2013.8.4 장소 제주 서귀포시 논짓물, 군산, 대왕수천 일대

사이트 www.70ni.seogwipo.go.kr



2013 May

세계의 플라워쇼 & 가든 페스티벌

세계는 지금 꽃 잔치

신진국일수록 생활과 꽃은 밀접한 관계 속에 성장해 나간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아도 가드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화훼시장 또한 크고 다양하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과 함께 발맞춰감에 따라 워해 가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꽃 축제 또한 즐길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페스티벌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좀 더 성숙한 플라워, 가든문화를 위해 이미 수차례 축제를 열어 이제는 나라의 주요산업이 된 플라워쇼 & 가든 페스티벌을 엿보자.



Rose festival 불가리아

장미의 나라 불가리아. 세계 생산량의 80%에 육박할 만큼 많은 장미가 생산되고, 장미 향수도 70% 이상이 불가리아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카잔루크(kazanluk)의 장미계곡에서는 장미유 추출을 위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이슬 맺힌 장미를 수확하는데, 이 시기에 대대적인 장미 축제가 열린다. 전통 복장을 입은 주민들이 장미를 채취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장미오일 추출과정도 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장미꽃이 만발한 곳에서 불가리아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기간 : 2013. 5. 26 ~ 2013. 6. 2 - 장미채취, 장미오일 체험, 퀴로즈 선발대회
홈페이지 : <http://www.rose-festival.com>



Keukenhof holland 네덜란드

'큐켄호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유럽에 봄이 찾아 온다'라는 말이 있다.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꽃 축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근 화훼류 꽃 축제로, 28m(약 8만 5000평)에 달하는 큐켄호프 공원에서 열린다. 색색의 튤립과 백합을 비롯한 수많은 꽃과 각각각색의 나무가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어 화사한 봄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매년 한 나라를 선정해 그곳과 관련하여 장식을 하는데 올해 주제는 영국이다. 장원의 나라 영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준비됐다.

기간 : 2013. 3. 21 ~ 2013. 5. 20 - 플라워쇼, 브로멜리아 페스티벌, 서머 구근 주간
홈페이지 : <http://www.keukenhof.nl>



Narcissus festival 스위스

그림 같은 레만 호를 끼고 있는 스위스 몽트뢰(Montreux) 근교 레 자방(Les Avants) 언덕일대는 나르시스를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마다 5월이면 새하얀 나르시스가 만발하는데, 언덕 가득 꽃이 펼쳐져 마치 설원처럼 아름답다. 나르시스 자체가 재배하기 어려운 야생화이기 때문에 소나 인간이 밟아 망칠 경우 다음 해부터는 다시 피지 않는다고, 이런 이유로 스위스 환경 단체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청초한 백색의 들판을 즐기는 최상의 방법은 하이킹. 몽트뢰에서 끝난 패스 기차를 타고 레 자방(Les Avants)에서 내려 종루(Sonloup)까지 걸으며 만나는 나르시스 만발한 풍경은 그림이 따로 없다.

기간 : 2013. 5. 4 ~ 2013. 6. 9 -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www.narcissus.ch>



Chelsea Flower Show 영국

1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첼시 플라워쇼'는 영국과 유럽 최대의 정원 및 원예 박람회이다. 1913년부터는 첼시에 있는 왕립 병원 정원으로 장소가 고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원 꾸미기(Show Garden)' 전시장을 비롯해 현대풍 정원(Chik Garden) 전시장, 도심 정원(City Garden) 전시장, 선플라워 거리 정원(Sunflower Street Garden) 전시장 등 여러 정원으로 구성된다. 세계 각국의 원예 산업의 동향과 다양한 품종의 꽃, 나무를 접할 수 있어 전문가는 물론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특히 그랜드 플로럴 파빌리온(Grand Floral Pavilion)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꽃들을 비롯한 수천 종의 진귀한 꽃을 선보인다.

기간 : 2013. 5. 21 ~ 2013. 5. 25 - 프로 플로리스트 경연대회, 가든 꾸미기 강의
홈페이지 : <http://www.rhs.org.uk/Shows-Events/RHS-Chelsea-Flower-Show/2013>



Canadian Tulip Festival 캐나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 매년 5월 튤립으로 가득하다. 오타와가 '북미의 튤립 수도'로 불리게 된 것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와 연관이 깊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되자 왕족이 캐나다로 몸을 피했다. 이후 독일이 되고나서 캐나다로 매년 1만 송이 튤립을 보낸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이후 캐나다에서 튤립은 우애와 화합을 상징하는 꽃이 됐다. 캐나다인 튤립 페스티벌은 튤립에 담긴 과거를 기억하고 나누려는 취지에서 1953년 시작된 축제다. 해를 거듭할수록 꽃이 늘어나면서 튤립 본고장 네덜란드까지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튤립 축제가 됐는데, 지금은 300만 송이 이상의 튤립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25개 국가의 음악과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인터내셔널 파빌리온, 튤립으로 치장한 마차와 다양한 꽃 작품을 볼 수 있는 퍼레이드, 축제의 흥을 돋우는 거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기간 : 2013. 5. 3 ~ 2013. 5. 20 - 플라워쇼, 튤립 퍼레이드, 거리공연, 빈티지 비행기 에어쇼 / 홈페이지 : <http://www.tulipfestival.ca>



전세계 축제 주요일정



영국

- RHS Malvern Spring Gardening Show 2013.05.09 ~ 2013.05.12
 - RHS Chelsea Flower Show 2013.05.21 ~ 2013.05.25
 - RHS Chelsea Centenary Concert 2013.05.24
 - BBC Gardeners' World Live 2013.06.12 ~ 2013.06.16
 - RHS Hampton Court Palace Flower Show - Preview Evening 2013.07.08
 - RHS Hampton Court Palace Flower Show 2013.07.09 ~ 2013.07.14
 - RHS Flower Show Tatton Park 2013.07.25 ~ 2013.07.28
 - Malvern Autumn Show 2013.09.28 ~ 2013.09.29
 - RHS Harvest Festival Show 2013.10.08 ~ 2013.10.09
 - RHS Shades of Autumn Show 2013.10.22 ~ 2013.10.23
- www.theticketfactory.com/rhs/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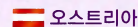
프랑스

- 쇼몽성(Domaine de Chaumont-sur-Loire) 국제 정원 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 www.domaine-chaumont.fr 2013.04.24 ~ 2013.10.20
- 파리 퐁레리 정원의 정원들(Jardins Jardin aux Tuileries) www.jardinsjardin.com 2013.05.30 ~ 2013.06.02



독일

- Shloss Ippenbunrg Gartenlust & Landvergnugen www.ippenburg.de 2013.6.20 ~ 2013.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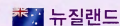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 Tulin의 국제가든 박람회(Internationale Gartenbaumesse). www.gartenbaumesse.at 2013.08.29 ~ 2013.09.02



미국

- 2013 Home and Garden Shows. www.festivals-and-shows.com (미국 전 지역)
- 2013 Flower & Garden Show 리스트. www.gardening.about.com (미국 전 지역)



뉴질랜드

- 2013 Home and Garden Shows 전 지역 일정.
- New Zealand garden festivals 2013 www.newzealand.com (전 지역 일정)



일본

- 2012 GARDEX(동경 가든 엑스포) www.gardex.jp/en 2013.10.9 ~ 2013.10.11

도시민들에게 산소같은 휴식을 주는 옥상정원

■글·사진_최형호 기자

환경정화, 건축물 보호, 에너지 절감 등
효과 누릴 수 있어...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산소 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옥상정원이다. 옥상정원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옥상정원의 실효성이 부각된 이후, 국내 기업은 옥상에 콘크리트 바닥 대신 흙과 잔디를 깔고 나무와 꽃을 심었다. 그동안 기업의 옥상은 관리·방호의 어려움을 내세워 24시간 자율설로 정가 높은 출입통제지역으로만 여겨 왔다. 설령 개방한 곳이라도 콘크리트 바닥에 물탱크나 에어컨 공조설비 등이 흉하게 들어서 접근이 꺼려지던 곳이다. 하지만 기업 측은 청사 옥상이 달라지고 있다. 종로구청은 지난해 4월 옥상정원의 일종인 옥상텃밭을 조성했다. 청사 지붕에서 상자텃밭 내 작물 식재를 하고 페 아 이스 컵을 활용해 '컵 텃밭'을 만들었다. 또 서울 자투리땅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천여 톤을 처리하고 그 자리에 이화마루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텃밭을 조성했다. 또 세종청사 옥상은 전체가 휴식을 겸한 공원으로 조성됐다. 1~6동 옥상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사무실 어디서나 올라갈 수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 또 옥상정원 사방이 흰색 트러 원수산과 호수공원이 보이고, 청사 4~7층에는 구름과 오솔길, 조경석, 화장실을 만들어 바쁜 업무를 하는 시민들의 휴식처를 완벽히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복잡한 업무를 잠시 뒤로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고, 옥상정원에 들어갈 때마다 구두 대신 운동화로 걸아 신고 걷는 회사원들도 생겨났다. 또 현안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기도 한다.■



종로구청 옥상에서 기르고 있는 딸기.

효과

옥상정원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 공간 제공은 물론, 환경정화, 도시기후 조절 등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옥상정원은 건축 구조물의 단열 효과도 높다.

건물 옥상에 잔디나 화초류, 인공 연못 등을 만들면 여름철 옥상 표면과 최상층 실내의 평균 기온차를 섭씨 3도 이상 줄일 수 있다. 특히 옥상정원 운운을 위해 생활폐수를 처리해 중급수로 만들거나 빗물을 받아쓰는 등 허드렛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녹화시설의 환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홍수방지 효과도 생긴다. 즉, 옥상정원은 단열과 수자원 절약, 건축물 보호, 에너지 절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흐름의 발맞춰, 옥상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생업의 의미를 벗어나 사람들과 함께 문화와 맛을 나누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도시 옥상이 텃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옥상에서 친환경 농사 모임을 시작한 이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유기농 음식점에 납품까지 한다. 서울 시내에서만 지난 2011년 29만㎡ 불과했던 도시 텃밭이 지난해 약 3배 오른 83㎡ 늘면서 도심 속 농사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완점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옥상정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열악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재유형의 선택은 물론 연간유지 관리계획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망은 밝다. 정부가 옥상정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 현재 서울시는 옥상정원을 만드는 민간 건물에는 50%, 공공건물엔 7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 옥상텃밭, 겨우내 잠자던 봄을 깨우다

우리 민족에게 흙이란 농토·농민생활·경제·재산, 그리고 소유를 의미한다. 그만큼 흙은 우리민족에게 있어 의미부여가 상당하다. 흙을 일구고 식물을 키워 양식을 장만하고, 흙을 이겨 지은 집에서 삶을 살아간다. 달리말해 그들에게는 흙과 땅이 가장 크고 유일한 은혜적 존재이고 안식처인 것이다. 흙과 땅은 태어난 곳이자 되돌아가야 할 숙명적인 근원지임은 분명해 보인다.

도시농원의 대표적 테마인 옥상정원, 이제 신규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옥상정원은 필수 소재로 쓰인다. 이미 대도시의 공공건물과 학교 등에서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이제는 조경을 넘어 어린이들에게 산 체험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도심 속 하나의 문화로 인식돼가고 있는 것이다. 옥상정원을 가꾸려면 땅을 일굴 수 있어야 하고 유기물이 투입돼야 한다. 그리고 토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옥상정원 조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옥상정원 조성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청 본관의 옥상 텃밭을 만들고 종로구 직원과 주민 80여 명, 어린이 집 원아 20여명의 참여를 유도했다.

달리말해 옥상텃밭은 어른들에게는 식물을 이용한 자연적 교감을,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체험 학습장이 된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종로구청은 상추, 고추 등 식재하는 시농 행사를 개최했다. 종로구 직원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실천수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이날 아이들은 상추, 치커리 등을 심으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언젠가 자신이 직접 심은 채소를 먹을 생각하니 신이 난 모양이다. 아이들과 함께 신이 난 어른이 있었다. 바



아이들이 청사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청사옥상이 아이들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로 김영중 종로구청장이다. 그 역시 채소들을 심으며 마치 유년 시절로 돌아간 듯 어린이들과 동화돼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김 청장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종로구의 전통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상 텃밭, 아이들에게 산 교육 장으로 거듭나...”

김 청장은 전통을 유독 강조한다. 전통이 있었기에 현재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게 김 청장의 생각. 특히 그 중심에는 흙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김 청장은 “한류문화도 사실 옛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각광받게 된 것”이라며 “인사동 거리, 한옥 등 흙을 소재로 한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종로구의 텃밭 가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종로구는 2011년을 ‘도시 농업 활성화 원년의 해’, 2012년을 ‘도시 농업 활성화 도약의 해’로 정하고 자투리 땅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1060여 톤을 처리, 이화마루 등 39개소 7223㎡에 도시 텃밭을 조성했다. 인사동과 탑골공원 등 도시텃밭 250㎡에 향토작물 모종을 심어 재배할 계획이다.

또 올해를 ‘도시 농업 활성화와 정착의 해’로 정하고 도시 농업이 지닌 도시 생태계의 회복과 도시디자인의 개선, 에너지 절감, 열섬현상 완화,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로구의 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한국 흙의 상징적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즉, 흙은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생명이 달려 있는 곳이란 얘기다.■



청사옥상에서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는 김영중 종로구청장

(주) 조아 이앤디
JoA E&D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 디자인

- ◆ 공원·옥상정원·주택정원·벽면녹화 등 일체 조정 설계 취급.
- ◆ 관공서·민간 조정 설계 전문 업체.

조아이앤디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설계하고 계절별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자연·인간·환경**이 하나되는 공간으로 책임지고 바뀌어드리겠습니다.

TEL. 031-726-0610
Fax. 031-726-0620

(주)조아 이앤디 JoA E&D co., Ltd

나무상자, 화초를 품다

■글·사진 최형호 기자



나무상자로 미니 정원 만들기

특히 요즘 간단한 나무 상자만으로 정원을 만들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땅이 없어도 나무 상자만 있으면 나무나 꽃을 심을 수 있는 것이다. 수경재배로 나무 상자 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볼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굳이 비싸고 값나가는 화분이 아니어도 소박하게나마 나만의 '미니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꽃의 효능을 알면 더욱 효과적인 상자 정원을 꾸밀 수 있다.

놓는 장소에 맞는 꽃 선택

우선 어떤 꽃을 심을지 고민한 후, 꽃 시장에서 계절에 심기 좋은 모종들을 선택한다. 꽃의 효능을 알고 어떤 자리에 배치해 놓을지 생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면적이

많이 들어오게 마련인 현관에는 벤자민이나 고무나무가 안성맞춤. 거실에는 빛이 적어도 잘 자라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제거 능력이 좋은 아레카야자 등이 알맞다. 주방에는 요리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음식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스킨답서스 등이 적당하다. 화장실에는 암모니아 제거 기능이 탁월하고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는 관음죽이 제격이다.

완성후 관리가 더 중요

나무상자 정원을 만든 후 1~2주가 지나면 잎과 꽃이 풍성해져 아주 볼 만하다. 말 그대로 나무 상자 정원이 되는 것이다. 꼭 나무상자를 이용해 만들 필요는 없다. 표면이 거친 사과계곡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나무는 김 그대로도 좋고, 거친 느낌으로 페인팅해 분위기를 바꿔 주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만든 나무 상자 정원은 식물의 생장을 위해 햇빛이 충분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창가에 놓아둬야 한다. 결함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줘야 한다. 오후보다는 햇빛 투과량이 많은 오전에 흠뻑 주는 편이 좋다. 낮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식물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단 나무 상자 정원은 저녁 무렵이 되면 실내 거실 테이블에 보기 좋게 올려둔다. 화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철 꽃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 크고 작은 화분들을 어우러지게 놓아두어도 예쁜 그림이 될 수 있다.

나무상자 만드는 TIP

- 튼튼한 나무 상자나 재활용품들은 훌륭한 정원이 될 수 있다. 예쁘게 손질한다면 손쉬운 방법으로 식물을 한층 돋보이기 때문이다. 준비물은 재활용 나무상자는 물론 톱, 자투리 마루, 비닐 (방수포), 꽃삽, 못, 심어줄 식물(데이지 선택), 배양토 등이다.
- 우선 재활용 나무상자를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크기는 36*19*14 정도면 적당하다.
- 잘라낸 부분을 사포로 분질러 부드럽게 한다. 이후 자투리 나무를 잘라내고 목공본드와 못을 박아 트인 부분을 막아준다.
-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사포질 한 뒤 나무 상자 안쪽에 비닐을 깔아준다. 방수포가 있다면, 비닐 아래 깔아주어도 좋다.
- 이후 물이 잘 빠지도록 맨 아래 부분에 자갈이나 굵은 미사토를 얹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배양토를 깔아준다.
- 원하는 식물들 비닐포트에서 빼내고 상자 안에 넣은 후 식물과 식물 사이에 비는 공간에 흙을 채워 넣어가며 다듬어 완성한다. 단 식물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눌러가며 흙을 매워 줘야 한다.



식물도 호르몬이 있다?

인간에게 호르몬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 확산된다. 식사할 때나, 피곤할 때 여지없이 호르몬은 방출된다. 호르몬이 없다면 온전하게 살아 있지 못할 것이다. 식물도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식물의 다양한 호르몬 비율이 성장과 노화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좋은 가드너가 될 것이라 믿는다.

줄기를 구부리게 하는 범인, 옥신

식물의 생장은 '빛을 향해서'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줄기가 햇빛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런 식물의 광에 의한 반응을 '굴광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옥신이라는 물질이 작용한다. 옥신은 줄기 끝 정단부에서 만들어져 아래로 향하는데 빛을 받으면 빛을 받는 줄기 반대편에 옥신이 분포해 세포들을 빠르게 신장시킨다. 여기서 옥신은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오스 등의 작은 섬유들을 서로 떨어뜨리려 한다. 옥신의 농도가 매우 높으면 과잉생장저해를 통해 식물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 제초제인 2,4-D가 개발했다.



옥신과 애증의 관계, 시토키닌

시토키닌은 연구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세포를 분열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녀석은 옥신을 좋아하는 탓에 함께 있어야만 자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식물이 줄기가 자라면서 서로 세력싸움을 하게 된다.

줄기의 끝에서 나오는 옥신은 결노의 생장을 억제해 줄기가 위로만 자라게 하려 한다. 반면 시토키닌은 결노를 생장하려 한다. 이 두 호르몬의 비율로 결노의 생장을 조절하게 된다. 봄이 오기 전 과수원에 가면 농부가 전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물의 호르몬을 이용해 전정을 하면 비료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녀석은 줄기에 붙어 있는 잎의 노화 속도를 줄이기도 한다.



제크와 콩나무가 하늘로 올라간 까닭, 지베렐린

지난 달 영화 '잭 더 자이언트 킬러'가 개봉했다. 잭이 우연히 얻은 콩이 하늘로 뻗어, 하늘의 거인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주인공과 싸우는 이야기이다. 식물의 줄기를 신장시키는 요인이 바로 지베렐린이라는 물질이다. 주로 뿌



리와 어린 잎에서 합성되어 줄기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꽃대가 길게 위로 뻗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때론 이런 것은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것을 추대(bolling)라고 하는데 바로 지베렐린이 작용했다는 의미이다. 지베렐린은 포도, 배 등의 과수농사에 많이 쓰이기도 한다. 과실의 크기를 크게 하고, 과일의 육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베렐린이 하는 일이다. 또는 씨 없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맛있는 과일 만들기, 에틸렌

과일이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빨리 익는 것이다. 빨리 익어 동물들을 유인해 씨를 다른 곳으로 퍼뜨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종을 유지한다. 과일이 잘 익게 만드는 물질이 바로 '에틸렌'이다. 이 녀석은 과일을 먹음직스럽게 빨갛게 익게 하는 재주가 있다. 덜 익은 과일을 산 후 밖에 며칠 놔두면 후 먹으면 맛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후숙 과정은 에틸렌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일을 천천히 익게 할 수도 있다.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과일의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저장고에 보관하기도 한다. 가 에틸렌이 쌓이는 것을 막아 과일이 천천히 익게 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딴 과일을 다음 해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 및 시공, 유지관리

아름다운
녹색 공간 연출

(주)우정원

02-545-7445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84-1번지 / 팩스: 02-3461-3196



화분은 정원사? 화분이 화초를 키워줘요

— 자생화분 키우기 —

클릭 & 자라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자.

주변에 푸른 잎 한자락 하나 보이지 않는 이라면 이제라도 메마른 감성에 물 한 줄기 적서 보는 것은 어떨까?

영양제 챙기라 다이어트하라 내 몸
에 영양분 하나 제대로 주기도 바
쁜 실정이다. 그러나 내 몸도 아닌 화
분에 물 주기란 머니언 이웃나라 이
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우리는 99.720km의 면
적을 5,000만명이 나눠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庭
園)'이란 단어와 태생부터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상가
상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에 있어 기
본 요소인 공간, 시간, 에너지는 공교
롭게도 우리의 3대 취약이기도 하다.

공간이 전혀 없거나 협소하고 매일을
시간에 쫓달리며 만성피로에 시달리
는 우리들에게 정원가꾸기란 여대 남
의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이 질 수 밖
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정원이라
는 사전적 고정관념에 갇혀있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마당을 꼽는다.
그 마당 위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으
며, 또 석물을 늘어놓게 됨으로써 정
원 구성의 바탕이 된다고 정의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마당이라는 단어
또한 아파트 단지에 다닥다닥 모여사
는 우리들에게 매우 비현실적으로 다
가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정원은 더 이상 야외마
당을 소유한 사람들, 시간과 자
본이 넉넉한 사람들만의 전유
물이 아니었으면 한다.

정원을 가꾸는 일의 시작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프로 가드너에 모
두 입문 하자는 이야기는 추후도 아
니다. 내 방에서 식물 하나라도 키
우는 여유를 갖자는 이야기다. 'ONE

PERSON ONE PLANT 캠페인' 정도
로 생각하고 올 봄 식물화분 하나 키
워보자고 던지지 던져보는 말이다. 게
다가 일주일에 물 한번만 주면 알아
서 스스로 자란다는 이른바 '자생화
분'과 같은 기특한 상품들이 나와 좋
은 기회이기도 하다. 복잡한 가드닝
매뉴얼은 던져버리고 이창에 가드닝
초보 대열에 합류 해 보자. 행동만 어
두 침착했던 집 안에 초록을 들여 푸
르른 3월을 맞이 해보는 것은 어떨
까 하며 몇 가지 자생화분을 소개한
다.■

다람쥐가 관리해 드립니다

- LOG & SQUIRREL Self Watering Plant Pot (물주는 화분)

제조사 Qualy 가격 59,000원
사이즈 150x152x126mm

종류 외부 - 갈색, 흰색, 검정색 / 내부 - 초록색, 노랑색, 분홍색.

식물 자체에 물을 주다보면 물을 골고루 주지 못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기 골고루 열심히 물을 주다보면 사방으로 튀는 물
덕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 마음을 알아챈 Qualy
의 물주는 화분은 오른쪽에 튀어나온 부분에만 물
을 주입하면 알맞은 물의 양이 골고루 배수되어 식

물이 자라난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화분보다
는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더 신경쓴다면 주목해야겠
다. 중앙에 있는 구멍에 숨어있는 다람쥐가 수위계
의 역할을 한다. 충분한 양의 물이 찼을 때에는 고
개를 쏘~ 내밀다가 숨어있을 때에는 물이 부족하
다는 신호다.



정원사 수 명을 고용하는 효과 - Click & Grow(클릭앤그로우)

제조사 Click & Grow 가격 \$59.99 - \$ 69.99+

원산지 미국 종류 미니토마토, 칠리 페퍼, 맨드라미, 바질 (스타터키트 포함)

가드닝도 이제 '스마트' 시대가 오고있다. 요즘
말로 2013년 자생화분의 '슈퍼 갑'을 고르다면
아마도 클릭앤그로우를 뽑을 것이다. 클릭앤그
로우는 AAбат테리 4개와 1L의 물 만 있다면 비
료없이 스마트 기술로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전자화분이다. 모두를 가든 고수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제품이다. 자동급수 시스템 기능만을
자랑하는 유사제품들이 즐비해 있다면 클릭앤
그로우는 타 제품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 제품
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릭앤그로우는 매개 변수

와 물, 비료, 공기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소
프트웨어가 식물 카트리지에 장착되어있다. 정
말 놀라울 따름이다. 식물 카트리지는 프린터
의 토너처럼 갈아ჭ아야 한다. 식물의 자연 수명
주기가 끝난 경우, 기존 카트리지를 교체 해 주
어야 한다. 현재는 13가지 식물만 기를 수 있지
만 계속해서 smart pot에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식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하니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까지 준다.



나는, 자랍니다 - i grow(아이그루)

디자인 Psychic factory 가격 19,000원 원산지 대한민국
색상 White, White+Blue, White+Pink, Blue, and Pink
제조사 igrow inc

물만 주면 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물이 새어나와 손이 더 갈까 주저한다면
걱정말고 아이그루를 이용해야겠다. 자동 급수 시스템으로 일주일에 한번 주
기로 정해진 양으로만 충분히 물을 준다면 밑으로 물이 세는 불면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기만하 뇌뒤편도 알아서 물의 양을 조절 한다니 귀차니스트 혹은
견망충 초기 증상이 있다고 '자가진단'하는 이들에게 안심맞춤인 화분이다.
'자동' 급수 시스템이고 광고는 하지만 말이 주는 느낌만큼 제품이 디지털 스
럼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다. 하지만 나름 아날로그 기술에 충실한
급수 방법 덕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아이그루의 특징

1. 꽃, 식물 등을 심어 예쁘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그루의 전용 화분이 있다.
2. 하부용기에 있는 특수 전달 섬유는 수분 및 양액을 원활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3. 하부용기는 양액과 수분을 일주일이상 저장하여 식물이 원하는 만큼 물과 양분을 공급한다.

아이그루 사용법

STEP BY STEP	아이그루와 모종을 준비한다. (모종은 마트나 꽃집에서 구입.)	모종을 아이그루에 담는다.	물받이에 물을 채우고 등불된 일광이 비료를 넣어준다.	스스로 자라는 식물을 보며 기뻐한다.	일주일에 한번 물을 준다.
--------------------	---------------------------------------	-------------------	----------------------------------	-------------------------	-------------------





창문, 채소밭이 되다

■ 글_최영호 기자

농사는 농촌에서만 지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요즘 도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도시 농부' 열풍이 불고 있는 것.

빠른 변화에 지친 도시인들이 건강과 여유를 찾고 싶어 하며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내 손으로 가꾼 농산물을 우리 가족에게 공급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베란다, 옥상 등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베란다 채소, 실내정원 등 인간 중심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인 도시농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흙 없이 물과 햇빛만으로 채소를 기르는 일명 '창문 농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도시의 아파트, 혹은 주택 창문에서 흙 없이 일회용 컵과 물, 햇빛만으로 채소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 농약 없이 재배 가능

지난 2009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된 이후 사람들은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물을 식재하고 창문에 걸었다. 이것이 '창문 농장'의 시초다.

미국 맨해튼에서 시작돼 2년 만에 한국에 상륙한 창문 농장은 아파트 창문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흙을 사용하지 않아 병충해가 없다 보니 무(無)농약 재배가 가능하다.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특성상 창문농장은 도시 생활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녹색의 향기를 가까이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발산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에서 창문농장을 재배하는 사람은 약 50만 명에 달한다. 어린이, 대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나이와 성별을 불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맨해튼에서는 창문농장에 페트병을 활용했지만 한국은 일회용 커피 잔을 주로 활용한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일회용 커피 잔은 창문농장 화분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 볼 수 있다.

또 햇빛만 잘 들면 여러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각 가정의 햇빛 투과량에 따라 음식 혹은 양식 식물의 키우는 선택을 적절하면 한다면 가정과 요건이 비슷한 식물을 키울 수 있을뿐더러 재배 또한 가능하다. ■



▶ 외부에 관으로 연장하면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통통하게 다시 모을 수 있어 좋다.

HOW TO

창문농장 페트병만 있으면 OK

창문농장의 매력은 상당하다.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생활공간의 공기청정기 역할도 해준다. 또 미적 경관을 좋게하여 각 가정의 인테리어 역할도 한다.

최근 일부 대형음식점도 창문농장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갓 수확한 채소를 즉석 샐러드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유기농이라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녹색의 향기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창문 농장이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창문농장 재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고, 덕분에 가정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시계절 내내 가정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질 창문농장 재배를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1 일회용 커피 잔, 혹은 페트 컵을 자른 다음 배 양기 포트로 사용한다.



2 페트의 가운데 부분을 인두나, 젓가락을 불에 달구고 오소가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는다.



3 구멍 사이에 물이 빠져 나가는 배수 오소를 꼽아 준다.



4 커튼 줄, 혹은 낚시 줄 등으로 천정의 나무나 플라스틱 창틀부분에 두 줄이 내려올 수 있도록 나사로 고정해준다.



5 바닥 깔판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 뿌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인두나 불에 달근 젓가락으로 구멍을 낸다.



6 페트 깔판을 커진타월로 덮어 준다. 나중에 여기가 씨앗을 뿌려 뿌리를 내려야하기 때문.



7 깔판을 페트 화분 안에 수평을 잘 맞춰 넣어 준다. 페트를 앞에서 보면 바닥면과 깔판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8 분배된 페트 안에 씨앗을 조금 뿌리면 창문농장 완성. 만약 자동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도 하루에 한번 물을 넣어주면 된다.



9 정경제 씨앗으로부터 나온 새싹 채소들이 잘 자란다.



10 오일, 유채, 무순 등 창문 농장은 여러 채소를 주렁주렁 매달아 심을 수 있다.

사진_〈내셔널 지오그래픽〉친환경 미래 도시 농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삶의 정원 - 가든 人

야매가드너의 가든다이러리 야외화단에 야생화 심기

글·사진 김지태

"새싹이 움트려는 계절이 오니까 야매가드너로서도 참으로 할 일이 많아진다. 봄에 꽃구경 하러 다니기에만 바빴지 식물들 때문에 바빠보긴 난생 처음이다. 그 옛날에도 상춘은 할 일없는 한층 양반나부랑이들이나 부린 호사였을 터, 흠에 의지해 사는 대부분 민초들은 봄철에 한가로이 꽃구경할 여가란 어렵도 없었으리라. 그래, 꽃구경은 잠시 미루고 농부의 마음으로, 가드너의 마음으로 분주하게 봄을 맞이해 보자."



우선 나는 나만의 가드너 컨셉을 '야성의 가드너'로 잡았다. 괜히 풀내려가게 아니다. 서투름과 무식함에서 비롯될 어이없는 실수들을 위장하려는 속셈도 없진 않지만 개작개작 식물들 이용해먹기보다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식물들을 대하고 심기 때문이다.

살구나무 옆에 화단을 만들기로 하고 배치도를 그렸다. 대중그린 거 같지만 색상과 개화 시기 등 나름대로 세밀하게 플랜을 짰 것이다.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꽃들이 예상대로 피어준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라는 설계도인 셈이다.

가든조야에서 구입한 하늘매발톱꽃이 참 마음에 든다. 선명한 색상의 외래종과는 달리 은은한 하늘 빛깔 꽃이 가장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 작은 화단의 메인은 하늘매발톱 꽃인 셈이다. 다른 꽃들도 하늘매발톱의 색을 돋보여줄 수 있도록 노랑, 빨강, 주황 등 계열색 꽃들을 골랐다. 따라서 심는 순서는 조금 달랐지만 하늘매발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심어갈 예정이다.

초보가드너의 하늘매발톱 심기



세지 포트에 담겨 있는 하늘매발톱 모종을 빼 보니 황토빛 흙이 엷그레 준 물을 여며 머금고 있다. 물베짐이 잘 안되는 출인가보다. 땅을 파 자리를 마련하고 조심스럽게 옮긴 후 주변 흙으로 메워준다.



하늘매발톱 아래쪽에는 동자꽃 모종을 옮겨 심는다. 가든조야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붉은 색이었는데 배송된 것은 초록색이다. 야생화 사진을 찾아 본 결과 주황계열 꽃을 피울 듯 했다. 그래서 그 아래 쪽에 페튜니아 씨앗을 뿌려줬다.



미안하지만 잠초들을 많이 제거해야 했다. 잠초를 제거하고 주변 흙으로 땅을 다진 후 물을 뿌려준다. 하늘매발톱의 개화시기는 5~6월, 길이는 30~50cm라고 한다.



연보라 꽃을 피우는 페튜니아 옆에는 붉은 꽃양귀비 씨앗을 뿌렸다. 페튜니아와 함께 핀다면 색 관촬은 조화를 이룰 듯 했다. 꽃 양귀비 위쪽에는 선명한 글씨 꽃을 피우는 프렌치메리골드 씨앗을 심는다.



하늘매발톱 위와 왼쪽에 에델바이스 씨앗을 뿌려주기로 한다. 예상대로라면 하늘매발톱이 지르고 할 6월 말 즈음에 에델바이스가 피어날 것이다.



담벼락 쪽에 속근해바라기를 심은 후 화단 맨 앞에는 수선화 구근을 심기로 했다.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추운 겨울 방치돼 있었는데도 싹을 무럭무럭 키운 아이이니 야생에서 더 잘 자랄 듯 했다. 이렇게 해서 야외화단 완성.



우리집 화단이 달라졌어요

화단이 이웃간의 소통 창구

글_소순복 기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광속. 그러나 입소문 이 이에 뒤질까. 이제는 입소문에도 LTE 가속도까지 붙어 그 속도가 가히 광속에 버금간다. 아파트 베란다 화단 열풍이 광속 수준이다. 지난 청간 예비호에서 만난 최남경씨네 화단을 보고 주변 아파트 화단이 들쭉고 있다. 봄이 찾아오니 더 술렁인다. 최남경씨의 도움을 받아 이웃 아파트에 사는 최미영씨도 삽을 들었다. 친원지 최남경씨네 집에서 시작된 화단 열풍이 벌써 6번째 화단을 바꾸고 있는 것. 봄바람에 실려 화단 가꾸기 열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민들은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웃 간의 소통이 되더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미영씨. 그도 첫 마디에 '소통'을 강조했다. 최남경씨도 그랬다. 단순히 내 집 화단을 조성했을 뿐인데 그 화단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웃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어떤 이웃은 꽃을 사는데 보내라고 돈도 건네준다고.

"이웃 간에 도통 대화라는 것을 몰랐는데, 주변에서 말을 걸어오더라.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누가 몇 호에 사는지도 알게 되었다."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화단보다 주변인들이 바뀐 것을 더 기뻐했다. 네모난 콘크리트 벽에 갇혀 사는 도시민들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을 그리워했고 소통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다.



화단을 살리고 정리만 하려고 시작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만큼 정비가 되었다. 단 순히 2달의 노력이 아름다움을 낳았고, 주변의 관심까지 받으니 일석이조. 첫 봄을 맞는 지금의 화단에는 목련이 피었다. 봄이 무럭무럭 때죽이면 라일락 향기가 퍼질 터. 연산홍과 봉숭아 영두꽃 등도 얹다튀 꽃봉오리를 터트릴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이 펼쳐는 봄의 향연을 즐길 일만 남았다.

사람들은 봄의 향연을 즐길 일만 남았다

지난 2월말부터 최미영씨는 본격적으로 화단 조성에 나섰다. 조금 일찍 봄맞이에 나섰다니 시즌에 맞춰 제법 화단다운 화단이 조성되었다. 기존

화단이 글쓰기의 좋은 소재가 되다

화단 조성으로 주변이 깨끗해졌고,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도 없어졌다. 주변으로부터 부러운 시선도 받았고, 이런 추세라면 집값 상승 요인도 되지 않겠는가. 최씨는 "누군가 이 화단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최근 이 아파트에 자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또 아이들이 꽃길을 걸으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좋은 글도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화단이 글쓰기의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어디든 끝지 않은 시선도 따르자 마면, 주변 사람들 모두 화단 조성에 갈채를 보내준 것만은 아니었다. 공동화단을 개인용으로 사용한다는 민원도 제기됐고, 수도를 사용한다고 제지도 당해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것이 부러움일... 아파트 환경의 기본 좋은 변화. 이것은 희색도시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Q&A

Ask our experts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김명채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 명예 교수



묘의 잎이 3~6엽 일 때 분갈이 해주세요.

Q 지난 3월에 집에 있는 화분에 식물을 하나 심었습니다. 어느 새 그 싹을 틔우고, 그 새싹에서 잎도 4개 나왔습니다. 이제 분갈이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해서 부러질까봐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분갈이 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화분에 씨를 뿌려서 어린 묘가 자랐군요,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어떤 식물인지 모르겠지만 옮겨 심기 하루 전에 물을 두세 번 충분히 주세요. 그래야 아삭할 때 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화분에서 모를 뽑을 때는 첫 번째 나온 잎(떡잎)을 엄지와 검지로 쥐고 모종상으로 캐어야 뿌리에 흙도 많이 묻어나오고 줄기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옮길 화분에 물 빠짐이 좋은 배합토를 80~90% 정도 넣고 가운데 심을 구덩이를 만들어 물을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먼저 부어 주세요. 물이 들어가면서 흙이 약간 가라앉을 겁니다. 묘의 뿌리가 묻은 곳에 10~20%가 덮도록 한 다음 한 손으로 모종을 붙잡고 한손으로 흙을 채워가면서 곧게 세도록 모종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묘가 쓰러진다고 너무 깊게 심거나 심은 후 흙을 눌러주시면 절대 안된답니다. 왜냐하면 깊게 심거나 흙을 눌러주면 뿌리가 끊어져서 병이 쉽게 걸릴 뿐 아니라 뿌리 내림도 늦게 되니까요. 심은 후에 마르지 말라고 물을 흠뻑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많이 주어도 토양속에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활착이 매우 늦어지게 됩니다. 옮겨 심는 시기는 묘의 잎이 3~6엽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식물체에 잎이 있으면 다육식물, 가시만 있으면 선인장입니다.

Q 얼마 전 화원에 가서 선인장을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 다육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육식물과 선인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줄기나 잎 또는 식물체가 두껍고 살이 찌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을 보통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선인장도 다육식물의 일종입니다.

단지 선인장은 변형된 잎(가시지라)에서 잎 대신 가시가 발생하는데 다육식물은 표피조직이 도출된 곳에서 가시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식물체에 가시만 있으면 선인장이고 식물체에 가시와 잎 또는 꽃이 같이 있거나 잎이 있으면 다육식물인 것입니다.



텃밭의 흙 그대로 사용해도 좋아요.

Q 봄이 되니 놓고 있는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란다 텃밭을 만들려면 밖에 있는 흙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텃밭에 있는 흙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비료가 부족하거나 물 빠짐이 나빠져서 재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잘 부숙된 퇴비를 10%정도만 넣으시고 잘 섞어 주세요. 화분 가계에 가서 치료성 비료를 구입하여 넣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al step by step



1. 묘를 뽑을 때는 첫 번째 나온 잎(떡잎)을 엄지와 검지로 쥐고 캐어야 한다.



2. 옮길 화분에 물 빠짐이 좋은 배합토를 80~90% 정도 넣는다.



3. 가운데 구덩이를 만들어 물을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먼저 붓는다.



4. 한 손으로 모종을 붙잡고 한손으로 흙을 채워가면서 모종을 심어준다.



5. 묘가 쓰러진다고 너무 깊게 심거나 심은 후 흙을 눌러주면 절대 안 된다.



6. 심은 후에 물을 많이 주면 산소가 부족하여 활착이 매우 늦어진다.

집에서 키우는 배나무의 꽃 수정 해보세요.



배꽃이 수정되어 열매가 맺힌 모습

A 나주는 기온이 따뜻한 관계로 보통 4월 중순부터 배꽃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꽃의 수정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벌, 나비 등의 수정 곤충 등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수정을 하는 곤충들이 감소하고, 꽃피는 시기에 고온건조 등 이상기상으로 인해 수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농가에서는 인위적으로 수정을 해서 균일한 과일이 많이 달리게 하고 있죠. 이것을 인공수분이라 합니다.

집에서 배나무를 키우고 싶다면 과수원에서 많이 키우는 신품종을 추천해요. 하지만 신품종은 꽃가루가 없는 품종이므로, 수정을 위한 수분수인 추황배, 만풍배를 같이 키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아생배의 꽃을 가져다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농약(제초제)이나 원예용동조합에서 꽃가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국산은 20g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이고, 국산은 20g당 10만원 정도 합니다. 수정할 때는 꽃을 하나하나 모두 찍어주는 것보다는 한 뼘인 20cm이상 간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이 많이 달리면 수정효과가 적습니다. 집에 배나무가 있다면 이달에 수정 한번 해보세요.

Q 지난 주말에 전라도 나주를 다녀왔습니다. 과수원을 지나다 배꽃이 많이 피었는데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들고 꽃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배나무를 키우는데 이것도 수정해야 하나요?

포인세티아는
서늘한 그늘에서
키워야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Q 포인세티아를 처음 받았을 때는 붉은 색이었는데, 모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렸더니 잎이 다 떨어지고 새싹이 났는데 다시 붙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포인세티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습기가 많고 일조량이 적은 계곡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포인세티아는 단일성 식물로 서늘하고 햇빛이 없을수록 잎 색이 짙어지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특성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포인세티아가 붉은색으로 꽃이 피어 수도회 사제들이 성탄절 예식에 주로 사용하였다하여 지금도 전통적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화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포인세티아 고유의 색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봄에는 빛의 쏘임 시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며,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잎이 변색되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반드시 분갈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 키우시면 녹색의 잎이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잎도 서서히 붙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아름다운 꽃도 피게 될 것입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키우시면 잎도 선명하고 꽃도 아름답게 핀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천리향은 비료성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적으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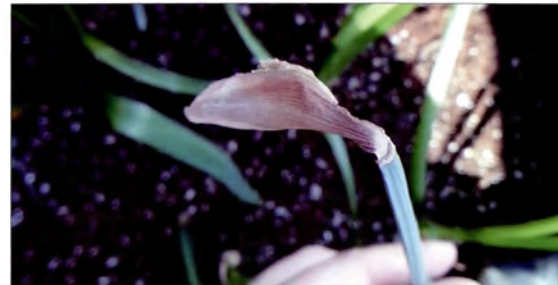


Q 천리향을 키우는데 2년째 꽃을 피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피울 수 있을까요.

A 천리향은 꽃의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하여 불어진 이름입니다. 가을에 꽃봉오리가 맺혀 이듬해 3월 꽃이 피는데 꽃 모양은 별처럼 생겼으며 가지 끝에 10~15개의 꽃송이가 모여 피게 됩니다. 암수가 다른 포기여서 암나무에는 암술이 발달된 꽃이 피고, 수나무에는 수꽃이 발달된 꽃이 피어 열매가 잘 맺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재배지 토양은 물빠짐이 좋고 유기물이 매우 풍부해야 합니다. 비료성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적은 토양에서 키우시면 꽃은 형성이 어려워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화분 재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시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잘게 쉰여 올려 주거나 신문지 등을 덮어 토양 수분의 변동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선화는 온도가 높으면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거나 꽃봉오리 상태로 황변됩니다.



Q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선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제가 이곳에 이사하기 이전에 누군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새싹이 나타나 이제 제법 포대 가든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안녕, 난 수선화야” 하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줄기에서는 꽃봉오리가 나오자마자 시들어버렸어요. 잎은 초록색으로 싱싱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A 수선화도 튤립처럼 가을에 심어 봄에 꽃이 피는 구근식물입니다. 수선화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거나 꽃 봉오리 상태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적의 장소는 15~18℃의 시원한 장소이며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화분에서 재배할 때는 따뜻한 실내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가 좋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기 전에 주시면 됩니다. 자주 주는 것보다 한번을 주더라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대략 4~5일 정도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꽃이 지면 줄기에 씨방이 생기게 되는데 빨리 제거해주어야 구근이 잘 커져서 다음해에 꽃이 더 잘 피게 됩니다. 잎과 줄기가 마르는 5~6월에 구근을 캐어 시원한 곳에 보관했다가 10월 경에 심으면 됩니다. 수선화도 튤립처럼 가을에 심어 봄에 꽃이 피는 구근식물입니다.

재배기간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요.

Q 튤립 화분에 비료를 줘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A 튤립은 가을에 심어 봄에 피는 꽃으로 구근으로 번식을 하며 월경 작물에 속합니다. 구근작물의 재배법은 한지형 마늘재배와 비슷합니다. 가을에 심는 구근은 일정시간 저온기간을 걸쳐야 꽃이 피게 되고 땅속에 온도가 15~20℃가 되는 봄에 꽃이 피게 되고 구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진후 약 한달 정도 지나면 본 잎이 황변하게 되는데, 하엽이 2~3개 정도 황변하는 시기에 구근을 캐어 서늘한 곳에 말려서 저장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는 것입니다. 재배기간 동안에는 비료를 주지 않고 잘 부숙된 퇴비와 복합비료를 혼합하여 화분토양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산소가 충분한 물을 주시고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하시면 병도 없고 꽃도 잘 피게 됩니다. 서늘한 곳에서 기르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일반적으로 파종한 이듬해에 꽃이
핀다.

Q 야생화 종자로 파종했는데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은 언제쯤 나올까요.



종자



부처꽃

A 야생화(다년생)는 파종한 이듬해에 꽃이 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늦여름이나 가을에 개화를 하는 일부(종꽃, 산국, 부처꽃) 식물들 중에는 이른 봄에 파종을 하면 개화를 하는 식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듬해에 개화를 합니다. 일년생과 다년생의 야생화는 파종 후 1~2년 정도에 걸쳐서 개화를 합니다. 파종을 하는 시기와 종류는 일반적으로 봄에 씨가 나오기 전에 유기질비료를, 여름 장마기 전후로 복합비료를, 더위가 지나가고 잎이 시들기 전인 9월 초쯤에 유기질비료 혹은 복합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자껍질을 벗기는 순간 발아는 시작합니다.

Q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름 모를 씨앗을 받았어요. 씨앗을 잘 발아시켜보라 하셨는데, '발아'가 무엇인가요?

A 발아란 식물의 종자에 생긴 씨가 발효 또는 생장을 개시하는 현상입니다. 식물의 씨는 각기에 정해진 적절한 온도와 수분, 충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빛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식'이라는 좁은 의미 이외에 추운 겨울과 건조기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휴면과정을 거칩니다. 휴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아력에 물질을 가지는 것, 종피에 기계적인 발아저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휴면된 씨앗을 깨우거나 휴면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틸렌클로로이드산 등의 약품처리, 저온 또는 온욕

법, 또 씨껍질이 단단해 색이 잘 트지 않는 종자에는 황산이나 상처를 내는 방법 등으로 종자의 겉질로부터 수분 흡수나 산소의 투과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아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씨앗 안의 효소가 활동을 시작해 호흡이 활발해지고 저장 양분을 분해에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발아가 시작되면 저장양분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맥아이나 어린잎 등은 점차 광합성을 하게 되고 뿌리에서도 양분·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양분을 쓰는 것에서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름 모를 씨앗을 잘 발아시켜 보세요. 씨를 틈워 키우다 보면 어떠한 식물인지 알 수 있게네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어 보세요”

자원순환학교, 친환경 퇴비 만들기 강좌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이하 여성미래)에서는 도시에서 텃밭활동을 하는 도시농부들이 자원순환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자원순환학교’를 시작한다. 자원순환이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동물의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다시 퇴비화해 작물에 이로온 영양물질로 바꾸는 것이다.

자원순환학교는 기본적인 자원순환형 텃밭농사법(자원순환학교 I)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 만들기(자원순환학교 II) 등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도시농부학교 수료생, 1년 이상 텃밭 경작 경험자,



생태텃밭 강사, 학교 텃밭 교사, 빚물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활동 관심자 등이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있다. 접수 신청은 이메일(woman@womanfuture.or.kr)로 가능하고, 접수에 관한 문의는 전화(02-761-1800, 구은경 사무국장)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자원순환학교 I & II를 포함해 3만원이다.

여성미래 구은경 사무국장은 “도시텃밭을 운영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드닝을 통한 텃밭을 친환경으로 꾸미면서 건강한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02-761-1800



어린이가 행복한 프로젝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자연체험교실 운영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연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도심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자연체험교실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과정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 애용심을 함양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의 자연체험교실은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 등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25회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름방학기간 열릴 계획이며, 어린이가 행복한 프로젝트가 6월 토요일, 10월부터 11월 토요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5월 중순부터 하순, 9월 중순부터 하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문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02) 459-8992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서울광장서 ‘봄꽃·나무 나눔장터’ 열려

서울시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을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채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시내 전체 총가구 수인 355만 가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첫 행사는 지난 3월 27일 시작했다. 서울광장에서 350여 명의 꽃을 든 시민이 ‘서울, 꽃으로 피다’ 글자를 채우는 플래시 몹(Flash Mob) 행사를 시작으로 ‘한 가정에 상추, 봄 꽃 하나라도 심기’ 운동 등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봄꽃·나무 나눔장터’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화협회와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서울시산림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꽃과 나무를 시중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양묘장에 보유 중인 무궁화 3000주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등 서울시는 연중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일일 농부가 되어보자’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 11월까지 운영

서울시와 농협은 주말을 이용해 서울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근교 농장에서 ‘1일 농부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가족단위로 농촌마을에서 우수 농산물을 수확 체험하고 농산물이 음식이 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식사량 농사량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달 4일(토) 첫 시행되는 5월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연천 새동지마을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해당 농촌으로 이동하게 되고, 도착 후에는 전통맷돌을 이용해 손두부를 만들고, 돼지감자를 수확해 채소감자 썰러 드를 만든다. 봄나물(쑥, 냉이 등)을 채취하기도 하며, 마을 농산물로 마을 주민이 직접 조리해 준 향토시골밥상도 받게 된다. 직접 캔 돼지감자(가족당 4kg/4인 가족 기준)는 가져갈 수도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유치원생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4인 이내 서울시민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4인 20가족 총 80명 내외.

매월 넷째주 토요일 운영, 2주전 선착순 모집

6월부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서울광장 앞에서 시골로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참가신청은 2주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식사량 농사량운동홈페이지(www.식사량농사량.com)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 정서 함양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소비자들과 농업인간에 신뢰가 형성됨은 물론, ‘열광 있는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성화돼 농가소득은 높아지고, 서울시민들은 새로운 주말 나들이 문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홈페이지-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 식사량 농사량운동홈페이지(www.식사량농사량.com)

관상·식용 딸기 ‘관하’

고령지농업연구소, 세계적 피는 ‘꽃 딸기’ 개발

딸기를 이제 집에서 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관상용 딸기 ‘관하’ 화분을 개발했다. ‘관하’는 농촌진흥청에서 로열티 감감을 목적으로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국내최초 관상용 딸기 품종이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딸기의 경우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여름과 가을철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하’는 사계절 꽃이 계속 피는 특이한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어 꽃 딸기용으로 적합하다.

‘관하’ 화분은 지난 3월부터 양재 꽃 화훼공판장에 유통되고 있다. 화분에는 6개월 이상의 비료 효과가 지속되는 완효성비료를 넣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하’는 최적 재배온도가 10~30℃로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연중 재배할 수 있다. 특히 저온기에 꽃꽂이 진하고 과일이 커지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관하’는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난 2012년 여러 업체에 통상실시권이 제공된 바 있다. 이는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이 농업인 혹은 농업기업에 이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으로 연결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는 “도시농업과 가정원예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경매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관하’는 도시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양로원 등에서 관상용과 더불어 교육 및 의료적 활용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약 6,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033-330-1651

베란다가 꽃으로 가득... 화초로 꾸미는 나만의 정원

정원가드닝을 위한 '베란다 꽃밭'

이선영 지음 | 로그인 | 15,800원

식물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서 꽃을 좋아하는 열정인이 되기까지 동기가 필요하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존귀함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 저자는 식물을 마치 자신 몸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자의 마음은 모든 가드너들과 공통적으로 교류된다. 아프신 할머니의 기쁨을 위해 시작한 가드닝은 지금은 할머니가 안 계시지만 저자만의 정서적 희열감으로 넘게 되었다.

저자는 현재 '비온 후'라는 예명의 블로거로써 활동하고 있다. '비온 후'라는 예명은 저자의 개인적 취향도 있지만 비온 후의 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질을 대변한 이름이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식물 재배에 서 물주는 것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 2천여명이 방문하는 그의 블로그(blog.naver.com/beeonhoo)에는 가드닝과 관련한 노하우들과 감상이 적혀있다.

이 책은 저자가 키웠고, 현재 키우고 있는 식물들 소재로 삼았다는 것. 봄의 초화류부터 다육, 허브, 등의 다양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상세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식물별 재배난이도를 중·상·하로 표시해 어떤 꽃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단순히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는 법'을 소개하는 듯 보이지만 책의 끝장을 넘기다 보면 저자가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프리울라라고 한다. 관리가 소홀해도 잘 크는 관엽류 보다는 프리울라처럼 키우기 까다로운 초화류를 선택해 개화할 때 저자는 희열감을 느낀다고 밝힌다.

"시들었네, 내가 물을 안 줬구나. 미안해." 식물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가드닝을 하는 저자는 가드너로서의 철학을 완성하고 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가 아닌 식물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초점이기도 하다. 5월은 꽃의 계절. 이 책을 통해 어떤 식물로 베란다 가드닝을 시작할지 고민해 보자.



중1이 농사를?

열네살 농부 되어보기

이원주, 정대이, 박원만 지음 | 들녘 | 13,000원

농업 입문서로 토양학, 비료학, 재배학은 필수과목이다. 토양의 3상, 토성 등을 알려면 토양학을 이해해야 하고, 비료를 통한 양분흡수 과정을 이야기하는 비료학, 작물을 키워내야 하는 재배학을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학문적 접근법으로 인한 전문성을 추구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열네 살에 무엇을 했을까?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을 들이말았을 때 열에 아홉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청소년들에게 농업, 농부라는 단어를 친숙한 어조로 쉽게 접근했다. 흙은 (-) 성질을 띠는 '여자', 흙에 도움을 주는 (+)성질을 띤 양분은 '남자'로 이야기한다. 또 수소이온(H+)을 '깡패', 수소를 잡는 석회를 '경찰'로 표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흙의 입자를 재미있게 표현해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저자 세 명은 하나같이 농업에 일각이 있다. 농업전문가이면서 현재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주 농업박사,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대이 친환경농업팀장, 15년째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박원만 씨 등은 아이의 눈으로 어떻게 농업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16살 김선호 군이 책의 내용을 삽화로 표현해 더욱 읽기 쉽다. 김 군 또한 1년여 동안 텃밭을 재배해 본 초보 농사꾼이다. 책 중 반부에는 저자가 직접 재배해 본 22가지 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재배법을 이야기한다.

현재 이 책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청소년농부프로젝트'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정대이 지도사는 "청소년들이 흙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한다.



알기 쉬운 현장 실습 위주 도시원에 교육

도시원예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도시농업 교육이 한창이다. 많은 도시원예의 교육이나 귀농, 귀촌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생산농장에서 실제로 가깝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이론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래서 많은 교육생들이 실전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꽃은 '만여 뫼의 농장에 첨단하우스와 연구모지, 그리고 생산시설하우스는 물론 수많은 테마로 이루어진 정원을 가꾸고 있다. 특히 야생화, 과일나무, 소나무, 또 텃밭용 채소재배까지 현장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당이나 강남에서 1시간이나 소요되지만 한번 참가한 교육생은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제공되는 식사는 함께 재배한 채소와 나물 등을 곁들여 우리꽃 직원들이 먹는 식사를 그대로 하는데 정말 매번 소풍을 온 느낌이라 말한다. 특히 강사진은 대학 교수 및 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실제 전문가들이 각각의 과목을 담당한다.



- 주 관 월간 가든인
- 주 최 우리꽃 · 이천그린포럼
- 교육기간 2013년 5월 22일~8월 7일, 총 3개월 12주 강의
매주 수요일 10:00~15:00 / 4시간 수업
- 수 강 료 50만원
기본 원예도구 제공(장갑, 전정가위, 모종삽, 끝 등) / 조경가이드북 및 교재 제공, 종식 제공
- 수강혜택 월간 가든인 1년 무료구독권(연 12만원 상당) / 텃밭제품 - 교육(연 10만원 상당) 기간 이후, 작기 내 텃밭 작물 계속 무료로 수확 가능
교육수료증 증정
우리꽃 10%구매 할인권 증정
교육사진집 전까지 선착순
- 접수기간 경기도 이천시 소재
- 교육장소 - 우리꽃 연구소 및 농장
- 미니팜프장, 테마정원
- 시설하우스, 신동종모주밭 보유
-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www.uriseed.com)
- 전화접수 문의 031-712-7001 / 010-3117-2262



설치가 쉽고 간편한 포켓 걸이용 화분

유럽형 벽걸이 화분

포켓가든

공간 제약 없이 가볍고 간편하게
풍성한 화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 베란다, 실내 벽면 등에 간편하게 설치하세요.
평면, 난간, 곡면 등 어떤 형태의 구조물에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 포켓가든은 벽면이나 창가 등에 부착하여 식물을 식재하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 포켓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여 다양한 식물을 식재 가능합니다.
- 다른 식물로의 교체가 용이하여 채소를 돌려서 재배 가능합니다.
- 아파트 베란다 창가나 거리의 도로화분 대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에 적합합니다.
- 중간 부위 조절 밴드로 자유로운 크기의 텃밭 연출이 가능합니다.
- 부직포 재질로 가볍습니다. (규격: W 50cm x H 37.5cm)
- 가정원예용으로 꽃 뿐만 아니라 상추, 쑥갓, 토마토 등 다양하게 재배 가능합니다.

도시원예, 가든 도우미 쇼핑몰

가든조아



www.gardenjoa.com

Tel. 031-712-7001